

9.C.69/72 (054-2): 061.2(519) 1967年 9月 20日 發行

建築界

大韓建築士協會

建築界

適合，銅，丸
其他 非鐵
一切

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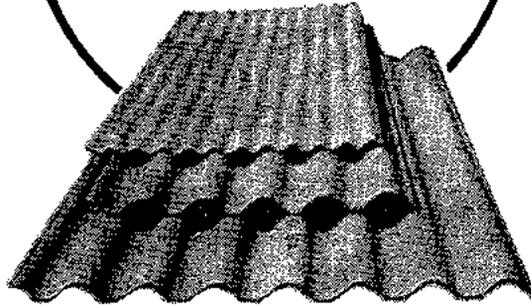
9 1967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第1回優秀建設資材展示回
建設部長官賞
第1回鳳凰大賞受賞
全國百萬消費者投票選定

산뜻한 지붕은 매끈하고 단단한
品質  保證

금강스레트



越南「캄란」小都市 建設에「금강스레트」處女輸出
우리 나라 스레트가 越南에 처음으로 輸出케 되었다. 國內業界의 가장 큰 예이거인「금강스레트」는 지난 7월11일 約 20萬坪의 信用狀을 받고, 8월9일·8월30일·9월30일 3 次에 걸쳐 輸出하여, 우리나라 「스레트」로서는 處女輸出을 하게 된 것이다.
今後 輸出된 「스레트」는 越南「캄란」小都市 建設工事に 使用되며, 發注處는「Naval Facilities Engineering command」이다. 이 工事は 年次的으로 發注될 것이므로 이 런 輸出에서 好評을 만듦으로써 계속 發注될 것이 確實되여 業界의 注目を 끌고 있다.

金剛스레트工業株式會社

분사영업부 (23) 3242~4 광주 (2) 1507 대전 (2) 2319 춘천 2644
부 산 (2) 6266, 9862 대구 (2) 1592 전주 3006 인천 5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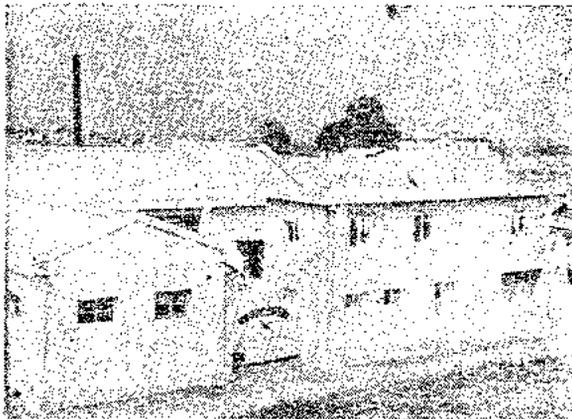
신제품

기리기표

푸라스타일 "S"

VINYL ASBESTOS TILE

日本三星푸라스타일 CO. 와 技術 提携



用 途

各種빌딩, 호텔, 事務所, 劇場, 病院, 學校, 工場, 住宅, 食堂, 茶房 및 其他床材

規 格

1 푸라스 타일

12' × 12' × 3m/m (2.5m/m) (坪當36枚)
9' × 9' × 3m/m (2.5m/m) (坪當64枚)

1 굽 두 리

4' × 36' × 3m/m * 두께는 任意로 注文에 應할수있음.



特 徵

1. 優雅 鮮명한 色彩를 任意로 選擇할수 있음
2. 彈力性이 豊富하여 磨耗性이 없고 防音이 됨
3. 接着力이 強하고 伸縮性이 없음
4. 耐火力이 強하고 油類, 藥品類의 侵蝕에 強함
5. 靜止荷重에 凹型이 생기지 않음
6. 부리는 表面에서 裏面까지通하여 磨耗로 因하여 消滅되지 않음
7. 施工이 簡便하고 他材에 比하여 價格이 低廉함



서울特別市 城東區 聖水洞 1街449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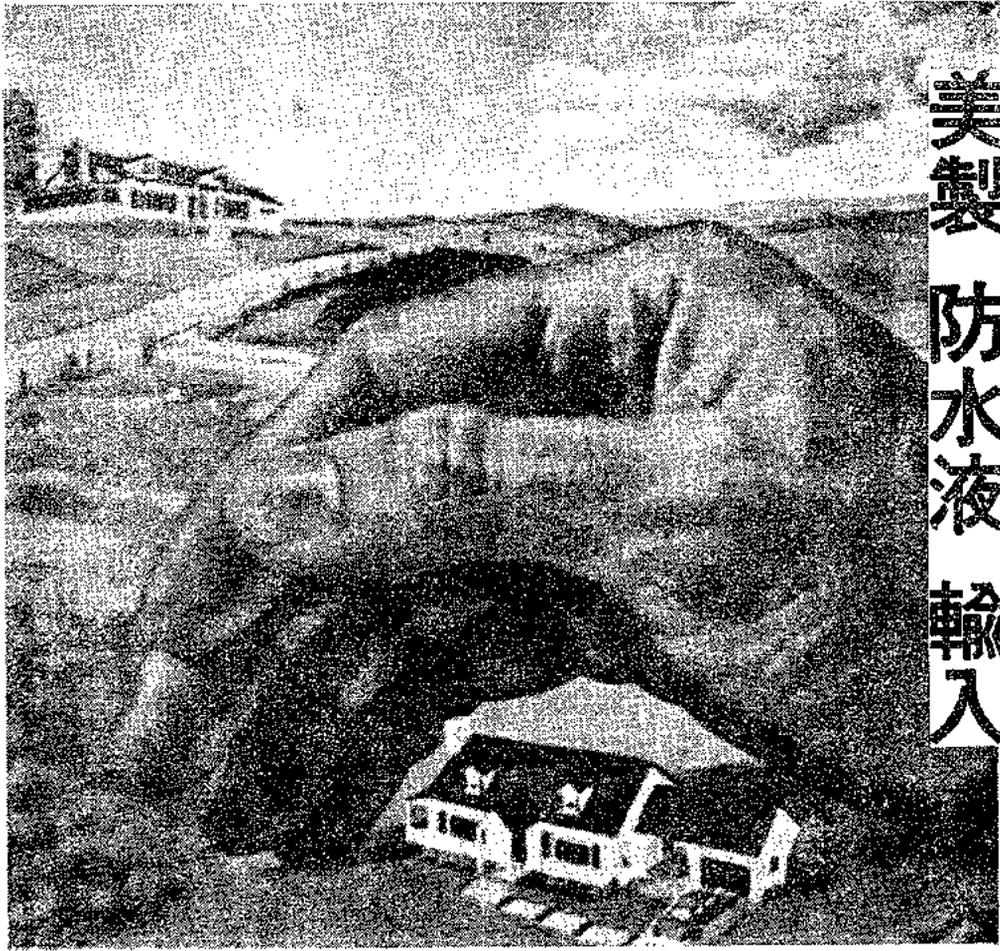
和鴻푸라스타일工業社

TEL 53-4563-4534 서울事務所 28-0734

販賣處 全國有名建材商타이루商

Handwritten signature or address at the bottom of the page.

美製 防水液 輸入



IMPORTED & REPACKED

Duck's Back Masonry Water Repellent
(오리배 방수액)

이 방수제는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건축분류 File No. 7에 속하는 것입니다.

特 徵

1. 단 한번의 칠
2. 15년의 수명
3. 맑고 투명한 액체
4. 7mm이상 칠루
5. 통기성
6. 저렴한 가격

使用處

1. 외부 벽, 지붕, 옥상, 베란다
2. 온돌습기 방지
3. 각종 부력
4. 타이루, 스투트
5. 석조 조각품의 풍화방지

수입원

五利洋行

전화 28-6689
23-5642

特約店

미홍상사...울지로3가 30 22-8608

명신건축사...울지로3가 5 22-3785

아주상사...울지로3가 65-3 22-3379

女苑·폼·서비스센터 22-7090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3 호
구입년월일	19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지부	

大韓建築士協會誌

196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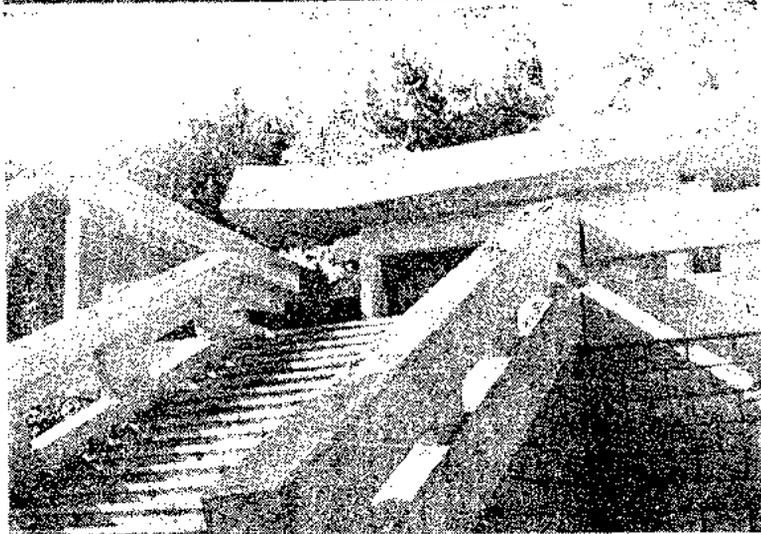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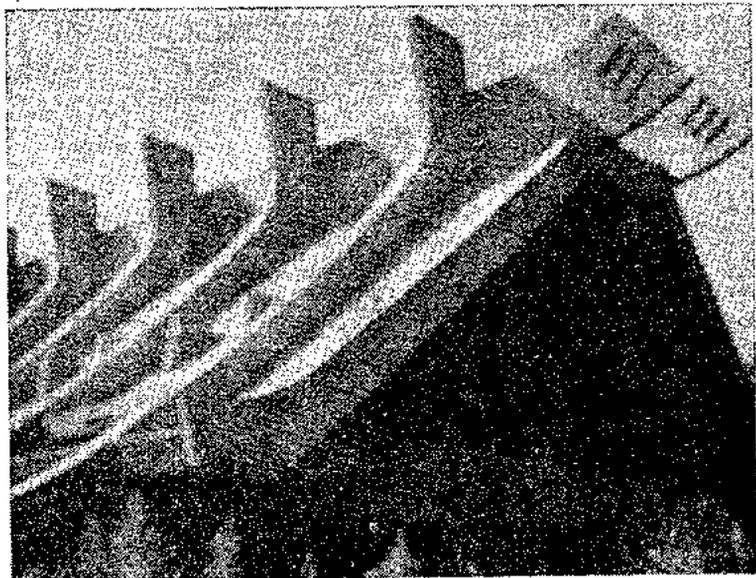
編輯委員會

委員長	安 仁 模
委員	康 晉 參
〃	金 萬 盛
〃	金 鎮 千
〃	宋 基 德
〃	嚴 柱 男
〃	李 丞 雨

目 次

特 輯	扶餘 博物館에 關하여 座談會	4
建築士法 第五條는 改正되어야 한다	朴 永 晚	28
優秀建設資材에 施賞		30
NEWS		32
生活環境의 變化와 建築	朴 胤 成	34
作品誌報		37
韓國建築界의 當面問題	鄭 寅 國	44
都市住宅 供給方案의 考察	朴 恩 天	51
住宅金庫를 통해서 당진도 집을 가질수 있다	韓國住宅金庫	55
質疑應答		59
製品案内	새로운 InsulationN資材 蛭石 vermiculite 에 關해서 기타기표 푸라스타일	43 54
本會記事		63
支部實態調查報告		65
建築資材 物價 時勢表		66
編輯後記		78
< 廣 告 >		
금강스테트	表二面	大有洋行 49, 50
大韓합판商社	表三面	東震鑄物 79
保光工業	表四面	九川窯業社 80
和鴻푸라스타일	1	東洋木材, 現代勃木 81
오리배방수액	2	東光보일러 82

扶餘博物館에 對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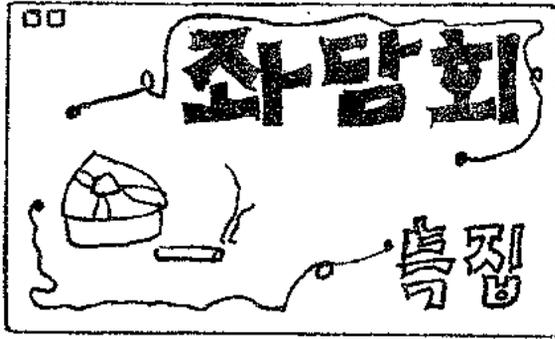


◇編輯者註◇

新築中인 國立博物館 扶餘分館의 建築樣式(金壽根氏 設計)이 日本 神社建築樣式을 닮았다는 是非는 建築界는 勿論 史學界를 비롯한 一般의 큰 關心事가 되었다.

特히 民族의 혼이 배어 있는 百濟의 遺物을 永久히 保存하여 展示할 博物館이라는데 그 問題點이 있다.

本協會에서는 지난 8월 27일, 9월 9일 양차에 걸쳐 本協會 任員과 좌담회에 參席할 各界 代表로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9월 13일에 신문회관 3층에서 各界 人士를 모신 가운데 座談會를 가졌다.



日本神社建築樣式으로

倭色이 짙다



—〈參席者〉—

協 會 長 張 起 仁
 司 會 本協會理事 安 仁 模
 場 所 新 聞 會 館
 日 時 1967. 9. 13 14:00

延 大 建 築 科 教 授	金 正 秀
서 울 工 大 教 授	金 熙 春
漢 大 建 築 科 教 授	洪 鵬 義
大韓佛敎曹溪宗總務院社會局長	金 雲 學
基 督 敎 博 物 館 結 長	金 良 善
本 協 會 理 事 (建 築 士)	姜 奉 辰
本協會서울市支部長 (建 築 士)	姜 大 雄
本協會서울市支部幹事(建 築 士)	金 大 源
本協會서울市支部幹事(建 築 士)	李 圭 安
本協會서울市支部會員(建 築 士)	金 圭 重 業

司會：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던 이제부터 扶餘博物館 建築 樣式에 對한 座談會를 始作하겠습니다.

近間 輿論의 對象이 되고 있는 扶餘博物館 新 築工寮에 對해서 여러분의 高見을 듣고저 座談會 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本協會 會長님의 人事말씀이 있겠습니다.

會長(張起仁)：公私多忙하신데도 不拘하고 이렇 게 參席에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여러 분을 모시게 된것을 저희 建築士協會 로서는 榮光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尙간에 報道되고 論議된 바도 여러 차례 있는 扶餘博物館에 對

한 여러가지 問題點에 對해서 國民의 一員으로서 어떠한 理解와 首肯으로서 對할것이나 하는것이 이座談會의 趣旨라고 생각됩니다. 博物館이 단 우리 온 겨레가 아침 저녁으로 對하며 우리의 高貴

한 민족의 일을 간직하여 代代 後世에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이 建物이 지니는 外形이라든가, 분위기, 또는 印象 그러한 問題點에 있어서, 歷史的 時點國際的 立場에서, 이것이 우리 博物館이라고 자랑스럽게 外國, 日本 中國 또는 歐羅巴 諸國에 내줄 수 있느냐 그 與否도 함께 가려보는 이런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여기에서 그 建築物 自體에 對한 建築的인 作品評이나 作家論 또는 그 意圖하는 바를 論議하고 싶은 뜻은 없고 또 그럴 흥미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建物이 지니고 있는 그 「이미지」나 또는 그가 풍기는 聯想이 日本의 고전 神宮형식에 그 무엇인가 關聯性이 지어질 수 있는 느낌이나 아니냐, 또 多少나마 있다, 또는 그러한 느낌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것이 쏠려 誤解다, 이러한 點을 우리가 가려내면 問題의 關鍵은 잡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이點에 對해서 여러분의 高見을 듣고자 하는 바이며 더우기 이 問題에 對해서는 나이 어린 여러분 말하자면 40代 未滿보다 40代 以上の 사람들이 過去에 30餘年間 日帝 마지막 무렵에 상당한 苦難을 겪어온 事實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神宮이 무엇이다 하는 개념도 오히려 젊은 世代보다는 40고개를 훨씬 넘으신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大韓建築士協會가 이 座談會를 가진데 對해서 여러가지 誤解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까 보아 한마디 參考로 말씀 드립니다.

이 座談會는 어느 누구의 사수에 依했다거나 어느 團體의 支援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何等 外部의 意見이 작용할 수 없으며 우리 建築士協會를 中心으로 해서 여러분 各界의 人士들의 뜻을 모아볼려고 하는 바입니다.

司會: 張起仁 會長님의 人
事 말씀이었습니다.

이 座談會를 여는 그 目的과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번에 全國 支部長會議를 大田에서 열었습니다. 마침 그 때



議를 끝내고 요지음 紙上에 報道된 扶餘博物館 現地에 갔었습니다. 그 후 輿論이 점점 비등해지고 또 저희들도 建築의 實務團體로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建物이 마침 都市巷間이라든가 어떤 이름 없는 村落이라든가 이런데에 있거나 또는 이 建物의 目的하는바 用途가 博物館이 아니었드라면 別 問題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各者의 意見이 나오실줄 알지만 論難對象의 結果는 아직 모르지만 그 대강 커추는 여러분이 紙上을 通해서 대강 짐작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建物의 걸 모양이 日本의 神宮과 같다는 點에서 問題가 발단되었습니다.

그러면 神宮의 概念 神宮用途등을 간단하게 우선 姜理事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이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姜奉辰: 神宮의 概念이라고 하던 중 막연할 것 같습니다. 마는 神宮의 性格이 어떤 것인가 또는 거기에 對한 建築的인 樣式이 어떤 것인가에 對해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원래가 神社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最初에 日本社會의 神도를 國民들에 알리기 爲한 必要에 依해서 設置된 亦是 日本固有의 어떠한 宗教的인 색채를 띤 그러한 性質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勿論 처음에는 日本의 神사라는 것이 最初로 생긴 것은 어떠한 마을 또는 고을에 設置해서 農耕生活하는 百姓들 제사지내는 곳 또는 그 고을에 日本民族이 崇拜하는 神을 모시는 場所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最初에 使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한 2千年 歷史를 밟아오는 동안에 그 性格이 차츰차츰 變해져서 政治權力과 結合해 가지고 오히려 農民을 爲하는 그러한 性格을 벗어나서 農民을 壓迫하고 支配하는 天皇의 神格化에 結付시켜서 어떠한 獨裁的인 性格으로 變質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次大戰 終了前까지는 그것이 한 日本國民의 精神의 支配的인 性格을 가지고 인방의 여

러 절령국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행패를 부린 이러한 性格을 띤 것으로 變質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36年間 壓迫 속에서 더욱이 신사 때문에 여러가지 苦難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분풀이로서 아마 解放 되자마자 第一 먼저 파괴해 버린 것이 신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司會：姜孝辰 理事께서 신사의 概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했습니다. 作家의 作品에 대해서 姜大雄 서울시支部長께서 말씀해 주세요.

姜大雄：建築士協會의 各 市道支部長 議를會 大田서 하고 그 當時에 우리 本部의 會長님 理事님과 같이 扶餘를 實地로 가보았습니다. 가서 그 階段의 間간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볼 때는 金壽根氏가 自由「센타」 등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어떠한 自己의 특징을 나타냈구나 하는 것을 直感的으로 느꼈고요, 正面으로 보니까 그 正門이 조금 倭色에 이제 말하는 「도리이」 같은 그런 공기를 若干 느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서 正門에 들어섰을 때에는 「도리이」라면 기둥이 들이고 또 저기에 이렇게 아래 위에 이렇게 「아까다」가 서 있는데 기둥이 넷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그 느낌을 저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博物館의 여러가지를 볼 때에 저로서는 그분이 어떤 것을 모방해서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안가졌었습니다. 어디까지나 創作的으로 自己의 作品 그대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며 그 施工이 未完成이었습니다.

未完成 建築物 가지고 評價한다는 것도 대단히 困難한 일이고 그 過程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혹시 여러가지 國民의 輿論이 그러한 氣分이 짙다는 것은 앞으로 設計變更할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國民의 輿論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設計者에게 忠告해 줄수 있는 機會가 있고 또 作者가 自己의 作品이니 만큼 民意에 따라서 自己가 左右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問題는 그 사람의 自體에 달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司會：지금 서울시支部長 姜大雄氏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스라이드」에 依해 說明됨) 지금 「스라이드」로서 못가보신 분을 爲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實地 보는것과 「스라이드」를 보는것과 어느 程度의 差異가 있을 줄 압니다. 옛날 三國時代의 찬란했던 統一新羅의 文化에도 백제 文化가 많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建築이라는 것이 國際間的 感情이 없을 때는 無條件 모방해서 쓸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日本 사람과의 關係 밑에서 現在의 實情으로 보아서 20年前을 回想할 적에 여러가지 各者 가지고 있는 日本에 對한 좋지 못한 感情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博物館은 個人 한 사람을 위한것이 아닐 것이고 3千萬을 爲한 옛날의 祖上의 말자취를 더듬어 보는 그릇을 담은 그러한 用途에 쓰이는 建物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궁궐건축은 佛敎에서 많이 왔고 그 다음에 李朝때에 와서는 構造 自體가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 박물관장 金良善先生님께서 어떻게 하던 좋겠는가 이 點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良善：勿論 아까 司會者의 말씀과 같이 오늘

그 作家의 作品 自體가 잘 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作品을 놓고 말하는 것도 아니며 國立博物館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 權威問題 또한 이 國立博物館이 우리 全國民에게 미쳐있는 정신적인 영향 또한 이것이 國



際上으로 가까이는 日本, 歐美, 諸國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博物館을 볼 때에 果然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는 이러한 點들이 問題의 핵심인데 먼저 이 建物이 日本樣式 乃至 신사양식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부터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勿論 객관적인 비판과 아울러서 이 建築家 自身이 이것을 設計하고 施工하는 사람 自身이 말한것을 重要視 해야 될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建物을 設計할 때에 果然 어떠한

한 構想 밑에서 이러한 建築을 設計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自身の 말이 대단히 重要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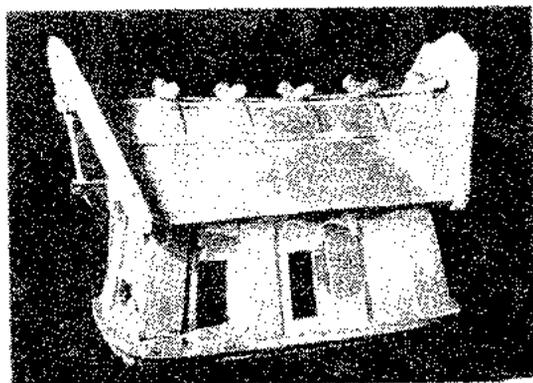
그런데 나는 新聞을 통해서 본바에 의거할 것 같으면 이 作家가 처음에 東亞日報 記者에게 나는 이것이 勿論 國家를 代表하는 建物이고 더군다나 博物館이고 또 이땅이 扶餘라고 하는 立地 條件을 다 參酌해서 어디까지든지 百濟精神, 百濟의 열이 우리에게든지 다른 나라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잘 表現될 수 있도록 만들기 爲해서 고심삼단한 끝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 냈다.』고 이렇게 前提로 말했으 그러한 着想을 그는 扶餘博物館 안에 있는 土器의 線이 말하자면 日本의 「도리이」와 비슷한 線이랄지 或은 신사와 같은 線이랄지 그런것은 내가 밝히지 않아서 모르지마는 그러한 線을 보고 비로소 着想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 勿論 이것이 신사양식에 가깝다고 하는 말을 나도 듣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조금 말하자면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古代文化가 日本으로 건너가서 日本文化를 形成했고, 그렇기 때문에 建築에 있어서도 亦是 우리나라의 建築 樣式이 日本으로 건너갔을 것이고 日本에 있어서 古代 建築은 原形대로 保存해 내려오는 신사가 바로 日本古代 建築의 전형인배 그것은 바로 百濟에서 건너간 建築 樣式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사와 비슷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것이 건너가서 거기에서 保存되어오다가 오늘 우리들은 다시 獨立된 民族으로서 우리의 것을 되찾는 이러한 것을 했다고 해서 조금도 잘못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이러한 意味로서 그는 對答한 것을 나는 新聞記事에서 본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신사 양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슬라이드를 보면서 客觀的으로 비판하기 前에 作者 自身이 <나는 거기에서 모티브를 求했다>고 하면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精神의 問題를 다루는 마당에서 그 문제가 굉장히 重要的 문제라고 나는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客觀的으로 저 建築物을 보고서 이것은 日本樣式이다 或은 신사양식이다 아

니다 이것을 비판할 때는 아마 다 지난것 같습니다. 要는 作者 自身이 <나는 거기에서 따왔다>고 하고 그래도 좋지 않느냐고 했다고 할것 같으면 여기에서 더 말할것이 없지않으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도리어 우리들은 이러한 作者에 對해서 이러한 作者가 만든 作品을 이것을 우리 民族 全體가 받아 들여야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問題가 먼저 대두되어야 될줄 압니다.

考古學上으로 보면 지금 日本은 考古學이 特別히 發達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先史時代에 있는 文化를 完全히 편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日本의 이 古建築樣式이 이미 그들은 「야오이」時代 다시 말하면 B.C 3百年에서 그 아래로 조금 내려오는 그 時代에 日本의 固有한 建築이 形成되었다고 하는 것은 考古學上으로 證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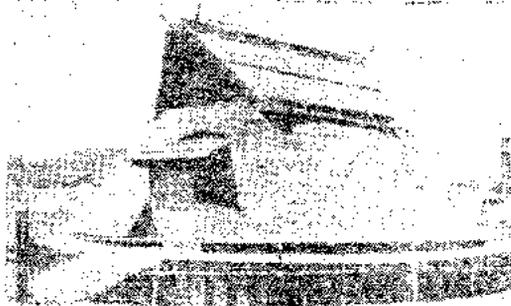
다시 말하면 신사양식의 日本 古建築이 「야오이」時代에 始作이 되어가지고 「고분」時代 말하자면 우리 三國時代 初期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千 4,5百年前 됩니다. 그 때에는 벌써 日本建築이 古代 호족들의 建築을 完全히 지금의 신사양식에 전형화 해서 그것이 土器로 말하자면 「가현신무」라고 말 하는데 이러한 土器로 출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기에서 박공이 굉장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의 박공하고 꼭 같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기」라 하는것이 따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기」라고 하는 것은 後에 나온 것입니다. 지기는 적어도 「나라」時代에 생겨진 것 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 「가쓰오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꼭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야오이」時代에 始作이 되어가고 「고분」시대에는 完全히 전형化되어서 이러한 집을 벌써 그네들은 호족이 문헌 무덤 속에다가 그 사람이 살던 집까지 만들어다 놓은 것이 오늘날 實物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建築을 어디서 받아들였느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日本 古考學에서는 이것은 南方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박공이라든지 또 여기에 「가쓰오기」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파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부는 바다 海洋地帶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집을 保全할 수 없을 것입니다. 日本에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또 여름철이 되면 日本에는 태풍 때문에 日本의 草家집의 어영이라는 것이 우리 草家집 모양 얇게 해가지고 됩니까? 묶어 매가지고 두껍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오늘날 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는 신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日本의 固有한 建築樣式인데 이제 建築士 協會에서 說明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명정」시대에 祭를 지내고 祖上을 爲하고 自己네 神을 위하기 爲해서 처음에는 아무 建築物도 없이 들판에서 始作되었던 것이 차차 文化의 發展으로 말미암아 맨 처음에는 家屋을 짓고 그 다음에는 차차 家屋을 完全히 建築化했는데 日本에서는 초기의 그것조차 지금 復元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自己네 建築 原來 「야오이」時代에 내려오던 建築樣式이 「고분」時代에 結果的으로 전형化 된 것을 「신사」에 바로 응용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日本에 있어서는 史料로 나타난 것은 「나라」시대에 나타납니다. 신사는 이런 양식으로 지었다는 것이 다음입니다. 그러면 그한

게 나온것인데 그 다음에 다만 신사는 그것은 한 곳에 固定的으로 지어놓고 代代로 孫孫이 傳해 왔어요. 變化의 必要가 別로 없지만 一般家屋에 있어서는 時代의 흐름과 함께 文化의 移動과 함께 自然히 變化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이 옵시다. 그래서 신사만은 옛날의 日本의 家屋制度를 오늘날까지 保全하는 日本의 最古 전형이라고 하는것은 日本 考古學者들의 一致된 견해이며 다 認定하는 學說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作家는 「도리이」에 있어서는 古代 「도리이」의 그 뒷 部分을 採擇하고... 안에 들어가니까 기둥이 넷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는 別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 당시 日本 사람들이 말예요 여기에 이 山(부소산) 조금 올라가면 扶餘神宮이라는 그야말로 「日本의 國祖는 너희의 先祖다」 하는 등 이것은 國祖바꾸는 노름이옵시다.

신도가 아니고요 國祖를 바꾸어 놓고 너희들은 檀君이나, 너희들은 누구냐 아니다 「아마베라스 오미가미」가 바로 너희의 祖上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強要시키고 인정시키기 爲해서 신사를 짓되 坊坊曲曲에 어떤 洞里 어떤 個人의 집에까지 「가미다나」가 들어간 것은 다 아시고 우리 젊은 層에서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옵시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近間에 新聞紙上에서 討論된 몇가지 말들을 들어볼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이 日本樣式이나 神社양식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日本 古代建築의 樣式을 말하고 그것이 神社로 變해가지고 神社양식이 되었고 신사양식은 곧 日本 古代建築의 전형이 되었다고 하는것을 여러분에게 다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考古學上으로 또는 文獻上으로 이미 證據되었다는 것도 다 말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의 問題點이 뭐냐, 이것만 나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日本 樣式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 點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 日本樣式하면 우선 中央廳부터 다 깨트려 버려야 되겠고 다른 집도 다 깨트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것 고소원입니다. 깨트려 버려야되는 것입니다. 못깨트리는데 理由가 어디에 있느냐? 가난한 百姓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美國만지 돈이 있다면요 36年間 그 사발들에게 그렇게 되놈물나는 억압과 壓

迫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犧牲을 당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 쓰던 것이 무엇이 좋아서 집이니 뉘니를 쓰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돈이 있다면 다 부수어 버리고 새로운 것을 建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탄스러운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새로 짓는다고 하면 어느 누가 여기 日本樣式으로 짓는 것을 보았어요.

金重業先生, 누가 日本樣式으로 집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個人的 住宅도 없는데 압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國威를 선양하는 重大한 建築物인 博物館을 日本樣式으로 지어야 할 理由가 나뉘어 있느냐 이것이예요.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日本建築은 파괴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하고 亦是 우리가 새로 짓는 建築 또 그 日本 사람들의 억압 밑에서 이렇게 苦生하던 우리로서 博物館을 지으면서 어떤 樣式을 取해야 되겠느냐 결국 日本樣式을 取했다고 하면 그것 미친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萬若 그것이 神社樣式이라면 나는 이제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은 古代 日本建築의 양식이기 때문에 日本 古代建築의 樣式을 가장 오늘날까지 原形대로 保全 해 나온 것은 日本 신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은 신사 양식이라고 또 結論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신사양식이 우리 大韓民國의 國立博物館의 建築樣式이 되어야 할 理由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基督教에서 일어나서 反對해 가지고 50餘名の 순교자가 나고 2百敎會가 閉門을 당하고 2千餘名の 投獄者를 낸 이러한 오늘의 韓國에 있어서 우리 國立博物館이 신사 양식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言語道斷인 것이요 왜 이렇게 빨리... 아니 나는 도리어 여기에서 한따다 한다고 하면은 植民地教育의 效果가 그렇게도 컸던가 植民地教育을 받은 사람이 獨立된지 不過 몇해만에 옛날이 그리웠다. 日本이 그리웠다. 日本의 文化樣式이 그리웠다. 그래서 이제는 神社양식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라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이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立地條件입니다. 萬若 여러분들이 朝鮮神宮 자리였다가 博物館을 짓는다든지 圖書館을 짓는다든지 할 때에 이런 建築樣式으로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扶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神社를 지으려던 옆 자리요. 어떻게 이 扶餘라는 곳 더군다나 解放以後에도 日本人學者들은 如前히 日本의 文化가 百濟를 通해가지고 韓國에 들어와서 扶餘를 中心으로 해가지고 부식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主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日本의 가장 有名한 考古學者「우메하라 스에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韓國에 일찍 나와가지고 韓國의 고분을 그 사람의 손으로 채굴한 世界的인 考古學者입니다. 그런데 그이가 얼마 前에 여기 나와서 저와 더불어 4, 5日間 부를을 마주대고 爭論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몇가지 점에 있어서는 굴하지 않았는데 扶餘를 中心한 百濟의 文化中에 重大한 몇가지가 日本에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事實 日本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신궁을 지으려고 한 것도 그러한 理由에서 짓기 始作했던 것이 을시다. 그런데 解放된 오늘에도 日本의 가장 良心的인 學者라고 해도 如前히 日本文化가 移植되어 가지고 꽃이 핀 곳이 扶餘라고 오늘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勿論 우리가 論文을 通해서도 反駁해야 되겠고 國民的인 問題로서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해도 어쨌든지 이러한 扶餘에다가 萬若 이러한 신사 양식의 博物館을 지어 놓는다고 하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신사가 뭔지 잘 모르고 事實 신사를 안다고 하더라도 西洋 사람들이 수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마는 日本 사람이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속으로는 굉장히 웃을 것이예요. 야 이렇게 되었는데? 또 拍手갈채를 할 것이예요. 이렇게도 우리가 成功的인가, 신사가 오게 된 것, 日本과 더불어 어떠한 關係이 있다는 것, 오늘의 日本學界에서 扶餘를 어떻게 본다는 점, 이러한 상기 여러가지 點을 다 통틀어 볼 때에 問題의 解決은 아까 姜先生이 改造할 餘地가 있다 그랬는데 아 바깥 形式이 신사지 안에야 博物館이겠지요, 안에까지 神社 양식으로 해 놓

을 理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 된 바깥에 다 안이다. 뭐 완자무늬를 붙이고 버라벌것을 다 해도 안되는 것이올시다. 이 建物은 完全히 撤去하고 새로운 韓國樣式에 依한 참말로 博物館다운 建築을 하는것이 이 問題의 解決點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司會：지금 金良善先生님의 熱意와 개탄이 어리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佛敎界를 代表해서서 金雲學 스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金雲學：여러 先生께서 專門的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

기에서 얘기하고 싶은것은 뭐냐하면 제 所感으로서는 扶餘도 갔다왔고 또 여기까지 參與했습니다 마는 제가 여기에 關係하면서 몇가지 보니까 大韓建築士協會와 建築學會, 國立博物館側이



니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어떠한 位置의 한 部分的인 口實을 하기 爲해서 가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읍니다만은 會長님이 아까 먼저 말씀하신데서 그 疑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모든 問題點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것은 全然히 생각에 두지 않고 제가 現地를 가보았다는 사람으로서 그대로 본 所感만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車를 타고 가면서...면에서 바라 보이는 것을 보니까 亦是 靑죽 靑죽 조금 나와있는 것이 그대로 눈에 띄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亦是 이것은 신사갈구나 이런것을 느꼈어요.

신사나 신궁의 참배에 對해서 具體的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가 어렸을 때에 신사에 가서 예배한 記憶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런 歷史的인 것을 하는데 왜 우리 古典的인 것을 하지않고 이런것을 만들었는가 이런것을 생각하면서 現地에 들어갔읍니다.

現地에 들어가서 제가 그것을 具體的으로 옆에서 보면서 제 方面에는 分析을 해보았는데 分析해본 結果로서는 먼저 作家의인 意圖가 어디에 있었는가 또한 왜 이러한 結果를 나타냈는가 이런 문제에 對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先生님들 말씀처럼 作家가 故意的으로 所謂 그러한 日本에 있는 神宮式을 竊다가 만들었다 하는 말씀도 있었읍니다 마는 제 常識으로서는 도저히 그러한 이해는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 신사식으로 본받았을 理가 있겠느냐 저희 國民으로서 수궁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結果가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作家들 한테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百濟의 무슨 線을 댔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도 저는 理解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建築自體가 所謂 하나의 어떤 形態上으로 보아서는 完全히 古典的인 것을 상진하고 있고 「이미지」上으로 있어서는 古典的인 것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왜냐 하면 全體的인 분위기로 보아서는 어떤 무덤같은 印象을 주었습니다.

뚝배가 가는 印象도 주었고 그래서 韓國의 고분적인 印象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를 잡아 놓았다는 것은 수궁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놓았다는 點은 亦是 이것이 하나의 博物館이고 우리 歷史的인 것을 다룬 博物館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는 좋았다고 보았어요. 거기에다가 百濟의 線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線을 따가지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어떤 그렇게 結果가 나타나 있지 않은가? 그래서 作家 自身은 그러한 것을 나타낼려고 하지 않았지 만도 結果的으로 一般的인 보편성의 문제를 상실하고 特殊的인 것만 찾다가 보니까 그런 結果가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해서 可及이라면 이것이 우리 古典的인 形式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韓國的인 여러가지 經濟事情으로 보아서 어느程度 修正할 수는 있지 않은가 結論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內容的인 면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도 外形的인 면에 對해서도 專門家들이 좀더 머리를 쓰고 해 본다면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地方民들 意見도 들어보니까 대단히 憐하는 것을 忖하고있어요.

莫大한 財産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全部 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것을 綜合해 볼때 우리 韓國的인 어떤 實情에 비추어 보아서는 이것은 萬만하면 좀더 修正할 수 있는 方法으로 해서 좀

더 원만한 길을 여는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結論을 얻어보았습니다.

司會: 감사합니다. 지금 金雲學 스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建築人으로써 外形에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金良善: 잠깐...저는 말하자면 誤解일지 正解일지 모르기 때문에...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 東亞日報 社會部記者가 參席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金先生께서(스님을 뜻) 말씀하시기로는 그이가 決코 그럴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作者 自身이 내가 日本 신사에서 따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否定 해 가면서까지 말을 해야 되겠는지?

金雲學: 그 點에 對해서 저도 먼저 신문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제 바로 先生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作家 自身이 그대로 수긍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後에 週刊韓國을 보니까 記者에게 말한것이 誤解로 그렇게 되었다. 자기로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런것을 新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결국 제 意見을 덧붙임 했습니다.

司會: 다음에는 現場에 가보신 漢陽大學教授 洪鵬義先生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外形에 나타난 建築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洪鵬義: 建築의인 面에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建築에 對해서 모방을 했는지 創作이냐 論難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模倣과 創作에 對한 概念을 한번 考察해 보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 建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主觀性이 배경되어 있는 作品에 있어서는 恒常 創作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순수한 作品이라면 순전한 創作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한걸음더 나아가서 그 作家가 創作을 하기까지에는 어떠한 過程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優秀한 作家가 作品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全部가 創作이라고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또



아무리 能熟한 作家라 할지라도 그 創作을 하기까지 育成이 되고 成長하기까지에는 그 過程으로서 亦是 模倣이라고 하는 어떤 段階를 거치지 않고서는 거기에까지 到達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創作속에 模倣이 포함되어 있고 亦是 模倣없이 創作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扶餘博物館建物에 있어서도 亦是 勿論 創作을 是認합니다. 作家의 權威를 認定하면서 틀림없는 創作物이라 認定합니다.

그러나 그 創作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 背後에는 亦是 模倣이라는 段階를 그 作家도 거쳐왔을 것이다. 이것도 亦是 우리가 是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作品에는 創作인 同時에 적지 아니한 어떤 模倣性이 介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常識的으로서 認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模倣性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作家의 過去의 經歷과 學歷 이런데서부터 찾아 볼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後進國의 作家는 대개 外國 先進國의 教育을 받는것이 常例인데 그 外國에 가서 先進作家들의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분은 佛蘭西에 가서 或은 美國에 가서 어떤분은 獨逸에 가서 어떤분은 日本을 갔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亦是 各各 그 作家 自身의 教育的인 過程과 또 經驗에 依해서 얻어지는 어떤 主觀性의 傾向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作家의 過去經歷과 學歷을 미루어 볼때에 능히 어떠한 模倣性이 여기에 介在될 可能性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前提로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둘째로서는 그 어느程度의 模倣, 다시 말하면 어느 程度의 유사성이 여기에 介在되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때에 이것은 勿論, 數學的이 아니고 建築이라는 것은 순전히 이것은 工業作品이 아닙니다. 가령 어떤 機械를 만들었다면 機械 이것은 完全히 工業作品이기 때문에 重量을 단다든가 치數를 견다든가, 그러나 建築作品이라는 것은 工業製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作品이며, 조각을 우리가 評價할 때物理的으로 化學的으로 評價해서는 價値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建築도 亦是 造形

美術이기 때문에 예술이기 때문에 科學的인 根據에서 몇 「퍼센트」가 模倣이고 몇 「퍼센트」가 創作이라고 가려내기는 대단히 困難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大略 그 判斷을 우리가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判斷을 내리는 方法으로서서는 저는 全體의인 立場에서 判斷을 내리볼까 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即 問題가 되고 있는 樣式의 類別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새기입니다. 아무런 建築이라도 그 樣式이 어떠한 계류가 있을것입니다.

「루네상스」系統의 建築이라든지 或은 「코딕」건축이라든지 혹은 佛敎系統의 建築이라든지 基督敎系統의 建築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樣式的 潮流가 있을 것입니다. 이 潮流程度로라도 分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亦是扶餘 博物館이라는 樣式은 이것은 「루네상스」라고 보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요. 이것을 優先 基督敎 建築의 敎會堂의인 어떤 「고딕」建築이라고 보기에 困難합니다.

또 佛敎建築이라고 보거에도 困難하고 또 韓國의 古典 建築이라고도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필칭 新聞을 통해서도 日本의 神宮과 흡사한 點이 많다. 이것은 다 共認하는 바입니다. 共認하면서도 어디가 그러나 이렇기 교집어 뜬지는 못하지만 亦是 그것을 是認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現地를 踏査하면서 많은 人들은 共通된 이야기가 여던지 냄새가 난다. 이것은 그 全體의인 분위기에서 상당한 影響을 거기에 加味시켰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部分的으로 얘기를 하라든 亦是 상당히 根據가 있는 것입니다.

扶餘에 내려가기 前 日本 建築歷史冊을 參照해 보았습니다. 日本의 有名한 建築歷史家인 「이도 주다」라고 하시는 분이 쓴 日本 建築史에 對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日本 神明造 「진묘 주꾸리」이라고 하는 神社의 正형적인 形態의 특징을 記錄해 놓은것을 보았습니다. 日本말을 그대로 하면 첫째는 「야네노·우에니·지키·가즈요기 아루」 이것이 神明神社의 特徵입니다.

또 하나는 「야네와 흑센케이니 시데·후키가와 라오·모찌이즈」 이렇게 되었습니다. 即 다시 말하면 直線形이고 기와를 넣지 않는다.

셋째는 「가나라즈 쓰마가와와 히라이리조오니 시데 가쿠보오니 콕센케이오 오오쿠 모찌이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出入口가 제가 解釋하기에는 쓰마가와 即 말하자면 穴공 쪽으로 門이 난다. 이제 거기 完成된 設計圖를 보니까 亦是 東側으로 正門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넷째로서는 「마쓰구미오 모찌이즈」 그랬습니다. 마쓰구미라는 것은 우리 韓國式 도자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것들을 비추어 볼 때 亦是 그 (扶物 博物館) 建築의 樣式은 이러한 點에서 상당히 類似한 點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또 여기에 제가 冊을 하나 더 왔습니다.



(冊을 보이면서)

이러한 것이 신명 주꾸리 신사의 桴本인데 이것이 「이세 다이징구」와 日本의 아주 최고 머리 신사입니다. 여기 보면 지기라는 것이 꼭대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뼈죽 나온것과 상당히 類似한 感覺을 주는 것은 여러분은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類似點이 있는 것은 여기 지기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멍이 있는것을 왜 했는가 이것이 상당한 創意性을 發揮했다고 보았는데 仔細히 보니 여기에도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亦是 類似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지붕이라는 것이 우리 韓國式 지붕형은 어느 지붕이나 大槪는 곡線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神社지붕을 보면 직각으로 直線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亦是 상당히 類似한 點이 있지않은가 이러한 點들이 본관에 對해서 部分的으로 유사한 點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正門을 볼때에 正門의 「도리이」라고 하면 亦是 그 「이도오 추우다」가 쓴 歷史冊에 나온 說明에서 여기에 「도리이」의 형이 이렇게 벗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진묘 주꾸리」라는 것이 신궁과 마찬가지로 型의 아까 金良善先生께서도 말씀 했습니다만 역시 이렇게 2줄이 가고 양끝이 약간 들렸는데 亦是 그것도 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셋고 中도 리랄까 이것이 기둥 바깥으로 조금 나갔습니다. 이것도 亦是 우리 韓國의 塙산문이나 或은 城門이나 이런데에서는 볼 수 없는 형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네개 서 있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신사를 두箇 겹쳐 안팎 점신사 「도리이」 形態와 마찬가지로 입니다.

結局은 물을 갖다가 붙여 놓으면 안으로도 「도리이」 바깥으로도 「도리이」 이러한 形態의 것이 아닌가 이 끝이 틀리고 도리이가 무게가 있고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그 「도리이」의 全體 共通이고 거기에 끝이 꼬부라진 「진묘 주꾸리」라든가 대왕 神社라는 것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붕이 약간 좀 亦是 꼬부라져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것도 亦是 마찬가지로이고 괘보사라는 것도 亦是 그러한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部分的으로 類似한 點이 많다. 이렇게 結論 내리면서 그러면 建築的으로서 이렇게, 全體的으로 보다 部分的으로 보나 類似한 點을 상당히 많이 發見할수가 있는데 이것을 꼭 日本 神社를 모방했다 이렇게 斷定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創作中에 그러한 影響이 미쳐져 있다. 이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結果를 어떻게 處理할 것이냐는 데에서 생각하면 이 建物の 性格上 容納이 안됩니다. 按餘라고 하는 땅 그 지연과 또는 博物館이라고 하는 建築의 性格, 이것으로 볼 때에 도저히 이러한 樣式을 容納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능후한 日本의 神社의 背景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우리 博物館 建築이라고 하는 建築의 性格上 안되는 것과 同時에 그것이 더욱기 많았어도 왜 何必 日本의 것을 답았느냐 이것이 가령 「로마」 「이태리」 建築樣式이 왔다면 或은 佛蘭西나 獨逸의 建築樣式으로 했다면 容納할 用意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日本과는 현재 아무리 善隣關係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歷史의 汚點은 씻을 수 없습니다. 新聞에서도 여러번 感情을 介在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거니와 勿論 感情을 介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事實이기 때문에 植民地統治로 해서 우리가 외면적인 피해, 논, 밭을 배앗겼든가 이런것이 아니고 우리 國民性을 송두리채 뺏어갔습니다. 이 植民地教育 때문에 우리가 받는 植民地 根性, 自主性이 박약하고 民主性이 없다는 이러한 좋지못한 精神的인 遺毒 등 過去의 事實을 알면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느냐.

韓國의 祖上에 對한 優秀性을 찬양하고 거기에 어떤 知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그런 博物館을 어떻게 歷史에 逆行하는 日本 神社의 樣式에 우리 祖上들의 유물을 담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 神社라고 하는 樣式이 여기에 「퍼센트」만 模倣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民族感情을…혹은 民族의 將來를 爲해서 容納안된다. 그 뒤에 이것을 허느냐 어쩌느냐 하는 문제는 政策的인 문제이기 때문에 國家에 미루고 그것을 改造한다는 것을 積極的으로 反對합니다. 改造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建物の 豫算이 4千 5百萬원인데 現在 千 5百萬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 程度 들거나 말거나 했는데 이제 3분의 2 더 들어서 그런 수치스러운 物件을 우리 子孫 代代에까지 植民地精神을 그대로 넘겨줄 것이냐? 깨끗하게 千5百萬원을 버리고 우리가 새 出發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國家나 當局의 賢明한 政策에 맡기고 게 所感을 마칠 것입니다.

司會：洪鵬義先生께서 細密한 觀察과 그 收拾方案을 말씀 하셨습니다. 延世大學教授 金正秀先生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金正秀：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自由로운 마음으로서 對話式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于先 建物에 對해서 여러 先生님들이 지금까지 너무 缺點만 얘기 하는 것 같으니까 보고 느낀점을 우선 長點부터 얘기 하고 그 다음에 缺點도 아울러서 얘기 하겠습니다.

가서 우선 建物を 보아가지고 느낀 것은 그 手法이 金壽根氏의 手法中에서 가장 代表的인 手法으로 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平面 構想이라든지 또는 日照關係라든지 모든 것을 다놓고 보아서 內部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雄大해 보였다. 特히 博物館으로서 들어온 사람에게 비교적 좋은 霧國氣를 주지 않겠으나, 안에 들어가서는 이런 感을 주고 또 構造도 三角型 構造니까 상당히 튼튼할 것이고 하여튼 지금 그것이 옛날 建築 그대토가 絕對 아니고 現代 建築이다. 이렇게 보는데 作家가 만든 것이 잘 된 建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여러 先生님들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建物を 보고 느낀 것은 亦是 정말 분위기에서 日本냄새가 아주 많이 풍긴다는 것은 이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어떠한지나 하고 하나 하나 說明하라면 說明할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全體의으로 보아서 더우기 먼데서 보면 먼데서 볼수록 다른 建物들 하고 比해서 얼듯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고 뭐로 한바퀴 뱅 둘러보았습니다 마는 뭐로 가 봐서도 亦是 마찬가지입니다. 大體로 그런 느낌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左右間 그런 느낌을 느끼는 原因이 나뉘어 있으나 하는 것을 나더러 說明하라면 現代 建築이라 할지라도… 現代 建築은 몇가닥의 部分이 있다. 이 建物は은 어떠한 形式에 가까우냐 하게 되면 여기 建築家들이면 十中 八, 九는 다들 알겠지만 建築樣式이 日本의 現代 建築과 꼭 같다는 것을 제 自身 느꼈습니다.

日本의 現代 建築은 지금 外國의 現代 建築中에서는 좀 特異합니다. 特히 10餘年동안에 日本人 固有한 어떠한 型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外的으로 보아서는 日本의 수재적인 아주 우수한 建築家가 하나 있는데 「당계 건조」



라고 하는 建築家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진 主流가 되어가지고 그 양반이 거진 創案해 내다시피 해가지고 「리더 쉽」이 되어가지고 日本 固有한 建築을 現代化 하는데 한 10여년전 부터 成功했고 扶餘博物館 같은 建築을 限없이 많이 보는것입니다. 그 手法을…그런데 日本 사람들의 手法이라는 것은 日本의 固有한 建築은 韓國에서 들어간 建築이 많습니다 마는…亦是 日本固有의 建築으로 안키고 있고… 神社나 神宮이니 하는 것으로 大體로 日本 사람들이 固有한 建築으로 키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現代化 하느냐 하는 것을 日本사람들이 建築家로서의 큰 課題로 생각해 왔는데 解決을 못보고 있던중 한 10餘年 前부터 神社 建築에 다가 말하자면 「콜미제」계통의 「아우스트락」한 「어펠」에다가 또는 西歐의 기념주의적인 것을 「콤바인」 해가지고 아주 日本 獨特한 現代 建築을 創案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아서는 扶餘의 博物館이 十中 八·九가 아니라 거진 가장 代表的으로 日本 現代 建築에 가깝다 하는것을 내 自身이 느꼈고 亦是 다른분들도 日本의 建築雜誌를 쉽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는 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亦是 내가 特히 생각하건데는 金壽根氏의 手法은 日本式 建築 手法의 代表的인 현대 건축의 手法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平常時에 金壽根氏에게 付託하고 있었던 것은 「亦是 外國사람이 보면은 日本 建築이나 韓國 建築의 差異는 알기가 힘듭니다 마는 韓國사람이나 日本사람은 亦是 日本 建築과 韓國 建築의 差異를 區分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願하고 싶은 것은 金壽根氏가 좀 더 이것을… 日本에서 그 양반이 工夫를 해왔을망정 좀 더 韓國적인 것으로 若干만 좀 고치면 이것이 韓國적인 것으로서 表現될 수 있지 않았었나 將來는 그런 方向으로 나가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분에게 對한 希望이고 그분에게 대한 솔직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扶餘博物館의 境遇에 있어서도 지금 잔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아가지고 이것은 뭐 日本 建物業를 完全히 模倣한 것이다. 再版이

다 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그렇게까지 느끼고 있는 모양 같지만 제가 보아서는 金壽根氏가 韓國 사람인 以上 절대 그분이 日本 建築을 模倣했으리라고 생각할 理는 절대 萬無한 것입니다.

나는 但只 그 양반의 手法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無意識中에...그런데 그분의 가장 代表的인 것이 있지요 지금 그 양반의 作品으로 首都醫科大學 正門建物이라든지 그런것 하고 比較해보면 納得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無意識中에 그것이 나온 것이지 絶對 그양반이 意識的으로 特別 日本의 神社建築으로 模倣을 하였다 그런 생각으로서 設計했다는 것은 우리가 常識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절대 그런 일은 萬無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處理했으면 좋겠느냐 그 문제인데 構造的으로 三角型 構造가 되어 있어가지고 日本의 「덴징 공전 주꾸리」의 再版이 아니냐 이런 말쯤까지 나온 사람이 있는데 三角型의 부분을 이것을 고쳐나간다면 이것은 정말 뜯어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不可能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절제적인 냄새나는 根源이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大部分이 構造體 아닌 장식적인 部分 全部를 빼버려도 何等 建物이 상하지 않을 그런 部分에서 대부분 냄새를 풍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部分을 꼭 돌아가면서 亦是 本人의 忖度로서 이것을 最大限 다시 한번 修正을 해 보았으면...이왕 된 部分이라 할지라도 그 部分만 빼버리면 되져 왔을까? 다시 다른 모양으로 하든지...우선 正門만해도 그렇습니다. 太極 무늬를 둥그런 것을 하나 붙인다든지 여러가지 修正方法이 있지않은가 그렇게 하므로써 내가 생각하기에는 全體 雰圍氣는 一新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特別 이제 말한 바와 같이 냄새나는 大部分이 構造的으로 그것을 變更해도 構造에 영향을 주지 않을 部分이 大部分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 하나 組織해 가지고 委員會한테 그것을 問議해서 그만 했으면 괜찮다 하는 그런 좋은案이 나오기를 眞心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司會: 다음은 서울市支部 幹事로 계시는 金源安先生께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源安: 여러분이 建築樣式과 여러面에 對해서



모두 說據物을 指示하시면서까지 力說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參席하신 분들은 建物이 어떤 것이냐 또 어떤 性質의 建物이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는 略하고 아주 좀 분위기가 不快했던 것은 金壽

根氏 個人을 놓고 그분의 作品에 對해서 強壓的으로 어떻게 하느냐 않느냐 그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모인것은 무스 強壓性을 띤것도 아니고 어느個人을 갖다가 論議하려고 나온 것도 아닌 만치 그것은 다 一掃되어야 하고 또 一掃되어 있다고 봅니다. 建物自體 作畧을 가지고 論議의 對象을 삼아야지 特定人物 個人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建物이 成立하기까지는 勿論 우리 民族全體가 金壽根氏에게 付託한 것이 아니고 官廳이 우리 民族을 代表해서 金壽根氏에게 設計를 의뢰한 결과로 봅니다. 이 建物 自體는 우리 韓國百姓 全體를 爲해서 생겨진 建物이 아니냐 여기에 重點을 두고 이 建物의 設計者는 勿論 金壽根氏지 마는 金壽根氏가 官廳을 통해서 이제 設計를 받았지만은 結果에 가서는 우리 民族 한사람 한사람 거기에는 나도 들었습니다 마는 한사람 한사람이 建築主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建築家의 立場을 떠나서 民族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基督教 博物館長 金先生께서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젊으신 분들은 理解가 안갈 일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40代 以上되는 사람들은 그 建物의 形態...過去에 그런 建物 앞에 가서 어느 家庭을 막론하고 지나친 苦役을 안 당한 사람이 別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이런 點에서 그것이 若干 模倣을 했는지 全體를 模倣했는지 눈에 희끗 피기만 해도 벌써 그것을 聯想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한 國民의 立場으로 생각해 볼적에는 그 自體 形態가 우리 建築士가 아닌 만 사람들이 먼저 말을 했고 오늘날까지 評을 加하고 있습니다. 그

려면 建築家를 떠나 단 分野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評을 하고 있느냐 하면 異口同聲으로 다같이 옛날 自己가 精神的으로나 實質的으로 當했던 과정을 상기하면서 그 建物에 대한 아주 좋지않은 印象을 가졌다는 그 評이 내려지고 있는 事實을 우리가 否認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形態를 여러모로 보아서 우리 民族의 열 그것을 中心삼아 놓고 얘기할적에는 이것이 容納이 되느냐는 것이 疑心이 가고 作品을 한분에게도 다시 한번 좀 眞摯하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技術者의 立場에서 같은 建築家의 立場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적에는 어느 때나 이 建築藝術이라는 것은 그時 그時的 文化過程을 우리가 過去 歷史를 通해서 역력히 보는바와 같이 이 現時點을 後代人에게 보여주는 事實이 第一먼저 튀어나하면 建物로서 그때의 상징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내가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現時點에서 建築 全分野에서 움직이는 각 技術者들이 그냥 默過하고 이 순간만 그냥 通過해서 그것을 建築하고 成立했다고 할적에는 이 後代에 가서는 現時點에서 建設의 役軍으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責任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대단히 重大한 것입니다. 萬一 設計한 분이 依賴한 官廳에서 條件으로서 이것은 日本과 우리와 國際的인 交流 問題로서 이런 색채를 띤 建築도 必要하다 해가지고 請託을 받았을 적에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事實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民族歷史의 한 過程을 밝은 扶餘時代 博物館 그것을 聯想하는 것이 아니고...또 國際的인 國際博覽會나 國際博物館으로 이것이 한 部分으로 日本을 紹介한 博物館이다. 이렇게 할적에는 또 納得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것이 아닌것도 事實이였습니다.

이런 모든 點에서 이것은 考古學的 見地로 보나 또 建築樣式이나...現 時點의 우리 民族의 한 사람으로 보나 또 現時點에서 같이 呼吸을 하고 있는 우리 建築技術者의 公正한 立場에서 보나 이 形式만은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變形을 시킨다든지 除去하든지 可否間 決定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以上입니다.

司會：다음 서울工大 金熙春先生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金熙春：...이것은 특별히...그동안 여타 건축이 많이 되었읍니다 마는 이 建物만이 이렇게 日本



것이라고 굉장히 말이 많은 그 動機가 어디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말씀 하겠읍니다.

우리의 生活이 점점 世界에 「유니버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건축의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美國것이다 어느 것이 佛蘭西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없이 모두 共感을 갖게 되고 과거에는 폐쇄되어 생활양식이 감추어져 가고, 건축의 樣式 이런것이 전혀 달라졌읍니다 만 요즘에 와서는 生活이 비슷해지고 생각하는 것이 같아져 가지고 그 모양 같은것을 보았을 때 特別히 「타브」가 없는것 같은 그런감이 들어가고 現在 여기 많이 세워진 建物中에서 어느것이 美國式이다 佛蘭西式이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은 日本 式이나...문제가 저기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神社에 對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마는 神社의 出發이 神道를 國民에게 알리는 日本의 固有의 建築에서 따온 것인데 이것을 후에 아까 姜先生님 말씀처럼 天皇을 神格化하기 爲한 하나의 政治的인 道具化된 것입니다. 神道라고 하는 것이...그런데 마침 그때 日本 固有의 建築은 日本이 굉장히 태풍이 많고 바람이 많고 해서 이런 被害가 많습니다. 거기서 이 木造로서 이를 수 있는 建築의 樣式이 아주 긴장되고 강한 그러한 모습으로 갖고 있는 것이 建築의 樣式이였읍니다

이것은 아주 日本 固有의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現代 日本의 作家...「당계」라든지 「마에카와」나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현대 建築의 큰 要素로서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特別히 材料를 철근 「콘크리트」로서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 강한 긴장감을 주는 그러한 構造 이러한 것이 일본이 世界에 다른 건물과 特殊하다는 點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建物에서는 特徵을 느끼지 못하며 美國것이다 佛蘭西것이다 確實히 말할 수 없지마는 이것만은 이제 日本的이라고 하는 것은 作家 또는 作品이 아까 말한것 같이 固有의 日本에서 나온 긴장된 감 直線으로 나온感 그런것을 많이 內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一般 專門家 아닌 사람도 이것은 日本것이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것과는 쏠려 다른 要素입니다.

우리나라 것은 아까 말한 自然的인 우리가 비교적 被害가 적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것은 온화하고 아름답고 평온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메력을 얻고 어떤 장엄한 感을 갖게 하기 爲한 現代 日本建築의 方向이 여기에 이렇게 틀려져 있지 않은가 그런 點에서 이것은 完全히 日本것입니다. 아까 金先生께서 말씀하기를 全體構造를 어느정도 수정할 수 있지 않은가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細部的인 것보다도 全體構造 自體가 直線으로 말하자면 강한 긴장된 要素를 充分히 갖고 있습니다.

全體構造 自體를 도저히 콘크리트가 되어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勿論 細部的인 것을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마는 오히려 圖面으로서 저는 더 判斷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萬若에 工事 途中이니까 앞으로 變更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랬지만은 設計圖로 보아서 이것이 完成되었을 적에는 더욱 더 그러한 要素를 더욱 強調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한 日本的인 긴장감을 주기 爲한 그러한 메력적인 方法을 주로 쓰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어떤 方法으로든가 修正의 餘地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點에서 아까 博物館이라는 面, 여러가지 面에 여러 사람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는 저는 그런 點에서 이것은 日本的인것 그 自體가 果然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은 別問題하고 그러한 여러가지 與件으로 보아서 이建築은 그대로 結束을 보아서는 안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司會: 지금 金熙容 先生께서 그대로 목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金重業 先生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金重業: 맨 처음에 이 博物館에 關한 問題를 알

게 된것은 아마 8月 19일에 社會面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不快했어오. 建築家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또 그러한 答辯이라는 것이 도시 있을 수 있는가에 對해서 먼저 의아한 感을 느꼈습니다.

어느날 圖面을 가지고 東亞日報에서 찾아 오셨어오. 그제 圖面을 보고서 어떠한 評을 해 줄수 있겠느냐 하는 付託이였습니다. 저는 圖面을 보고서 서슴치 않고 評을 해드리기로 決心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建築家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視覺 言語를 통해서 一般에게 傳達하고 있는 作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建築家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視覺 言語라는 것은 一旦 圖面의 作業에 定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一旦 圖面이라는 것은 모든 自己의 意思表示나 自己가 一般에게 傳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圖面을 보고서 제가 첫째 느낀것은 이것은 지독하게 日本的이구나 하는 것을 첫째 느꼈습니다. 지금 日本에서 만들고 있는 建築의 「다테일」을 그대로 갖다가 綜合해 놓은 것이 扶餘博物館이다 하는 이러한 印象을 첫째 품겼고 그 다음 細部的으로 따져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日本의 신도 「이름」에서 온것이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으로 斷定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도리이」가 발이 네個다. 本來 도리이가 발이 두個가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 것같지만은 시각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리이」는 「도리이」 자체가 가지는 한個의 言語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勿論 「도리이」라는 것은 한 種類가 아니고 지금 日本에서도 여러가지 種類의 「도리이」가 있으며 두 발만 가진 「도리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이쯔꾸시마 신사」 앞에 있는, 해주에 있는 「도리이」는 발이 열個입니다.

그러면 소위 「도리이」는 「도리이」라는 自體의 造型언어가 있는데 그 「도리이」라는 造型언어가 한개의 모티프가 되어서 여기에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前에 우선 建築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즉 可觀的인 것이다 이것



입니다. 눈에 보일 때에 그 시각 언어를 어떻게 解釋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도리이」라는 그것으로 밖에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는것이 저의 솔직한 告白입니다.

그 다음에 百濟에서 그런 樣式이 건너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얘기를 나중에 否認을 하고 나섰습니다. 마는 이것은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저어」 같은 그런 熱帶地方의 住宅樣式이 래풍이 많고 또 多雨地方이기 때문에 고상 建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所謂 「스토아」가 소위 땅하고 떨어져 있다 말이에요. 바닥이 그래서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소위 지기로 나중에 發展하는 그러한 구조의 形式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상하고 거의 같은것들이 「타이」라든가 「말레이저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가련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現在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日本은 어디까지나 아까 金良善博士께서 말씀이 계시다시피 日本의 先史時代에 있어서 南方의 宗教가 올라온 것만은 事實이고 宗教만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南方族들이 北上한 것만도 事實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日本建築의 原形을 어디에서 찾느냐 할 것 같으면 「신도 이즘」의 建築에서 찾고 있는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現代에 와서 아까 얘기가 나온 「당계 전조」라든지 그밖에 「가와제 노보투」 같은 評論家라든지 그밖에 여러 사람들이 日本에 있어서의 傳統問題를 論議하고 傳統을 現代化 하는데 있어서의 한個의 주된되는 모티브로서 神社建築을 어떻게 現代化 해서 이것을 現代建築에 쓰여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까지 研究해 오고 또한 表現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여박물관의 이 작가는 그대로 옮겨 왔다고 밖에 말하기가 쉽습니다. 말하자면 모방이다 창작이다 하는 問題는 어디까지나 建築이라는 것은 모방에 끝나는 것이 건축이라고 저는 배운일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自己의 개성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떠한 自己것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내뱉었던 소위 「당계」나 또는 말하자면 신도 「이즘」의 솔직한 한個의 상징 「심보라이즈」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합니다.

勿論 그밖에 여러가지에서 느껴진 것이 때 日本的이었다하는 것은 韓國에 틀림이 없었던 事實입니다. 그리고 日本것을 그대로 따가지고 있다 하는것도 本人으로서 否定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問題는 여기에 問題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 言語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韓國 自體가 가지고 있는 시각 言語가 무엇이고 또한 日本 自體가 내뱉고 있는 視覺言語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金熙春先生께서 말씀이 계시다시피 긴장 線에 관한 問題가 나오고 非 긴장 線에 관한 問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소위 우리 韓國의 건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女性的인 것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歷史적으로 볼 때 굉장히 쓰라린 말하자면 悲劇的인 歴史를 가졌다하는 그러한 메도 관계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구려 때에 있던 線의 感覺이라든가 여러가지가 新羅時代 以後에 있어서는 상실되었다. 그런데 그 강건하고 男性的인 여러가지 모습이 없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韓國이라는 것이 소위 女性的인 그런 線을 무척 사랑해 온 民族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붕에서 오는 부드러운 비 긴장된 선이라든가 女子들의 의상 특히 옷소매에서 나오는 비 긴장선이라든가 보선모에서 오는 線이라든가 또 作家 自身이 들고 나오는 소반에 있어서의 개발의 曲線이라든가 이런것은 어디까지나 비 긴장된 曲線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挾餘博物館에 쓰여진 곡선이 完全히 긴장된 곡선인 동시에 순수 日本式의 曲線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自體가 國家에서 委囑한 國立博物館인 同時에 그것이…人間의 壽命이라는 것이 기껏해서 90이나 百살이면 그 이상 잘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 建築이라는 것은 남았버린다. 남더라도 철근콘크리트 만드는 現代의 建築이라는 것은 파괴하기조차 무척 힘든 그러한 建築이라는 것을 볼때에 여러가지 問題를 내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建築이라고 하는 것은 時代의 潮流입니다. 또 建築家라는 것은 時代를 明確히 證言해 나가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現 時點이라는 것

에서 建築家は 離脫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現時點 自體가 말하자면 日本의 神社를 韓國에 꼭 세워야 할 그러한 時點에 놓여져 있다면 저는 百「퍼센트」 양보해서 수긍하겠습니다. 民族感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엄연히 現時點에서 살아있는 이것은 한個의 現實이며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作家의 良識의 問題인데 作家의 良識의 問題는 萬一에 그러한 發言을 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또 終局에 있어서 그것이 옳다고 認定된다면 그것은 精神病院에 가서 速히 뇌진단을 받는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斷定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와 同時에 或者는 말하기를 日本式이 들어오는 것이 또 서울시內에 「지기」가 세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나쁘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이 나오기까지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마는 이것은 韓國 國民이 굉장히 전망중에 걸린 民族이 아니겠느냐 하는것으로 自體가 反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전망증이 強하고 말하자면 얼마나 嚴약하고 정말 人間自體 全體가 女性化 되어버리고 말았느냐 하는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樣式問題만은 아니다. 機能問題를 따져볼 때에 소위 內部 공간문제를 云云하지마는 內部 공간 자체는 博物館으로서 적합하다는 斷定이 절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同時에 그 內部를 構成하는 모든 「디테일」 自體도 이것은 日本만이 가지고 있는 그 聯關性이 없는 一聯性이 없는 부분이 結局에 있어서는 손재간만을 부리는 그러한 內部 공간 構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同時에 動線計劃이라는 것은 「제로」입니다. 또 그와 同時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기능도 滿足이 안되고 조형도 問題여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티프」가 神社에서 왔다 이렇게 斷定할 때는 할 道理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斷定합니다 마는... 왜 거기에는 또한가지 強力한 理由가 있습니다.

建築을 하는 사람은 良識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는 同時에 建築家は 進退가 明白해야 됩니다. 自己가 만든 過誤라는 것은 自己가 썼는 것입니다. 그러면 建築家라고 자칭을 하건 타칭을 하건간에 建築家라고 할 수 있다고 할것 같으면 自己가 부린 씨는 自己가 걸우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修正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建築家라고 自處할 수 있고 建築家の 길을 걸어간다고 보면 부여박물관을 어디까지나 칠거하는 것이 民族을 爲해서도 깨끗한 일일 뿐더러 自己를 구제 할 수 있는 唯一한 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注意해야 될것은...저는 金壽根氏라는 人間에 對해서는 조금도 미운마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려야 될것은 金壽根氏는 제 제자입니다. 또 金壽根氏의 日本 유학을 격려해준 사람이며 적은 액수지만 그의 용기를 북돋아 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國會議事堂 설계 현상모집시에 심사위원으로서 여러가지 反對를 무릅쓰고 그를 추천하자고 한 사람이며 말하자면 建築家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거취가 明白해야 됩니다. 建築家다운 自己의 個性 내지 自己의 行動이라는 것이 明確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은 여기에 明確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엔 이러한 問題가 建築界에서 이러나기 前에 社會의 여론화 되고 建築界에서 뒤늦게 이러한 論爭을 뒤늦게나마 하고 있다는 自體가 建築家들이 그동안에 너무나도 無爲徒食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感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 現代建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 지어봐도 現代建築이나 하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하고 또 古代建築을 확대해서 갖다놓는다는 것도 이것은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하고 傳統이라는 問題는 이것은 손쉽게 이어 가는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 자체가 무엇인가 그 열 自體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는 表現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問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問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놓여진 時點이라는 것 이것이 뒤를 아갈수도 없고 또한 머물러 있을수도 없는것 前進만이 있는데 前進이라는 것은 21世紀를 準備하는 그러한 立場에 우리들이 놓여 있다는 點, 그러한 點에서 이것은 確實히 밝혀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多幸인지 不幸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建築의 問題가 이렇게까지 社會問題化 되고 이렇게까지 여러가지의 意見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한개의 좋은 建築을 남기 爲한 한개의 태동일수도 있고 또한 이것이 자극이 되어서 建築作品을 만든다고 할때 自己가 完全히

責任질 수 있는 그러한 態度로서 建築에 임해야 되겠고 어떠한 것을 내뱉는다 할적에 내뱉는다는 것은 내뱉기 前까지의 問題와 내뱉고 나서의 問題, 말하자면 建築이라는 것은 作家의 손에서 떠나면 그것은 作家하고 關係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自體에 生命이 있습니다. 그 自體에 말하자면 모든 책임이 지워집니다. 그러한 點에서 이것이 神社建築이다 아니다. 또한 이것을 撤去해야 된다 안된다 할적에 깨끗이 이것은 어떠한 규정이 내려져야 하겠고 그 규정에 따라서 施設가 밝혀져야 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司會：金重業先生께서 作家와 作品을 놓고 신랄히 評價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支部 李圭福幹事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福：저도 日前에 여러분과 같이 扶餘博物館을 갔다운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扶餘博物館自體 그 建築物의 樣式이 어떻게든 模倣이다 模倣이 아니다 이런것을 떠나서 結果에 있어서 日本的이라는 것이 미 結論이 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問題를 果然 어떻게 規定지 어가지고 어떻게 處理할 것이냐? 勿論 政府當局이나 設計하신 분에 여러가지로 左右될 問題겠지만 제가 생각하면은 修正해가지고 될것같으면



勿論 修正도 可能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修正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造型을 만들 때에는 어떠한 着想下에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修正을 加할것 같으면 自己가 着想했던 그 造型이 그대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 빼고 둘 빼고 셋 빼고 해서는 이 自體가 어떤 形態가 나오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는 自然이 修正한다는 問題는 간단히 解決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루 속히 이 문제를 빨리 歸結을 가져와서 허느냐, 또 修正하느냐 이 문제를 決定해서 國民 여러분에게 納得할 수 있는 그러한 建築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도 아까 40代 以上 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제 自身도 過去の 倭治末葉에 當했던 그러한 생각을 하면은 아주 뼈저리게 아프고 피눈물나는 그런 記憶이 지금 새삼스럽게 느껴 집니다. 또한 거기에 몇千萬分의 一에 該當하는 돈이 내주머니에서도 나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 速히 이 문제를 歸結지어서 全 國民이 納得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博物館이 되어주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마지 않습니다.

司會：다음은 마감으로 저의 協會 會長께서 直接 두번이나 현지에 갔다 오셨습니다. 말씀이 게시겠습니다.

張起仁：參考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이 會議의 性格이라는 것이 이것이야 여러분이 말



<座談會 모습>

설명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어떤 強壓을 해서 實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民族的으로 이것이 지는 이제 말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점에 맞는 方向提示만 하면 저희로서는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百濟文化에 對해 좀 깊이는 모릅니다 마는 제가 느끼고 또 제가 過去에 배운바를 생각해서 잠깐 여러 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출토품이 있다시피 기와라든가 이 문양이라는 것은 와당이라고 그러나요, 처마끝에 쓰이는 기와의 무늬라든가 이런 것은 新羅의 조각 미술 以上の 세련되고 高貴한 솜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百濟 때의 建物은 특히 지붕이 있는 것이고 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모퉁이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본묘를 보더라도 公州 地方에 남아있는 百濟의 遺物이라고 하는 것은 탐 벽돌... 옛날 말로는 천이라고 합니다. 벽돌에다가 무늬가 아주 古代形式이지만 至今 現代感覺에도 맞을만한 이런 아기자기한 現代 느낌을 가지는 벽돌로 차곡 차곡 쌓아서 만든 본묘를 만든 바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亦是 그 百濟建物の 樣式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아마 그 代表的인 것이 亦是 신라 때와 마찬가지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서 바합벽을 이루었다는 데에는 아마 거의 異論이 없을 줄 압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찬란한 文化를 이룩해 놓고 그 餘力이 日本으로 건너가지 않았나 即 말하자면 우리 百濟文化는 完全히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그 씨의 一部가 日本으로 건너갔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萬一 이것이 뭐 우리나라에서 피지 못한 꽃이 日本에 가서 피어서 열매를 맺었다는 등 이런 說이 있었다면 이것은 너무 자학적인 情神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우리가 좀 더 우리것을 알았다라면 이렇게까지 暴言을 쓰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로지 하나 남은 百濟 탐에서도 느낄 수 있는線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現在 日本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細部曲線美 라든가 이런것은 能히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民族이 남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生覺하면서 좀 더 도리켜서 우리

百濟文化를 높히 評價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며, 저희가 生覺해 볼 때는 저희들 大多數의 意見은 아마 무엇인가 좀 手法를 달리 하자는 데에는 意見이 어느정도 統--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면 그것은 모순된 것이다 하는 結論이 내려지리라고 生覺합니다.

司會：그러면 이제부터는 討論이 아니라 自由對話式으로 얘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洪鵬義：황간에서는 이것이 感情的인 報復이나 或은 편파적인 意見이란 말도 있으나 이러한 것은 제 自身 或은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전혀 그러한 底意가 없다는 것을 確言해 둡니다. 이것은 建築界의 말하자면 學族的인 問題로서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본것이고 여기에 오신분의 作品中에도 우리가 비판할 對象이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방性이 있다면 그 作家는 다 누구든지 共通으로서 亦是 創作에 모방이 介在될 수 있다는 그러한 手法의 原則을 말씀 드린것이고 金壽根氏 自身만이 모방性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問題는 그저 「이미 했으니까 다시 도리킬 수 없는 것이나」라는 것을 떠나서 그 程度로 되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할 일이 남은 것으로 어떻게 具體的인 좀 建議라도 해서 우리의 意見을 當局에 建議라든가 或은 陳情을 해서 어떤 귀취를 지을 수 있는 핵심을 提示해 두시는 것이 이 問題를 해결하는데 或一助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司會：아까 저의 會長任겨서는 이 會議의 개최 취지등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結局은 國民全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洪鵬義先生께서도 이러한 여론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 建築人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좀 수습하는 것으로서 當國에 建議하는 것으로 해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李圭福：그런데 이 問題는 座談會를 廻해가지고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 扶餘博物館을 作品으로서 내놓은 作家自身的 態度 如何에 달리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他分野에 계실 분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가지 말이 나오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려는 더욱 問題가 擴大되고 이러한 點을 생각할 때는 作品을

委囑한 官이나 或은 作家自身이 하루속히 態度를 決定해서 修正하게 된다면 빨리 修正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國民 全體가 納得하고 固有文化로서의 價値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大義名分이 서는 이런 建築物을 세운다든지 해서 빨리 決定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建築界가 시끄럽게 된다는 點을 作家自身이 잘 納得을 해서 解決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對한 方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張起仁: 그 點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 내가 지금 洪教授님이나 李主福 幹事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가 이 座談會로서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明確한 當局에 要請 내지 建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對해서는 귀추를 보고 우리 또 大多數의 意思가 아무래도 이것은 잘못된 點이 있다 그것은 撤去하고 안하는 것은 이것은 政策問題로 이뤄질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거기에 對한 見解는 進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좌담회에 나와주신 여러분은 그러한 建議文에 異議가 없을들로 생각하면서 機會있는 대로 進言해 보겠습니다.

金重業: 아까 洪鵬發教授께서 좋은 말씀이 계시는데 밖에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아마 들고 그 얘기 가운데에는 本人이 글에 쓰다시피 利害得失에 얽힌 曰可曰否의 問題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 自身은 이 문제에 對해서 조금도 利害得失關係가 없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所謂 現地に 調査團이 내려갔는데 博物館 建築審査委員會라는 것이 아마 構成이 된 모양입니다. 어떤 분으로서 어떻게 構成이 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 중에 두 사람의 發言이 크게 新聞에 報道되고 있었는데 金斗宗氏라는 분은 어떠한 表現을 했는가 하면 서울거리에 西洋建築物이 많이 있는데 하필 「지기」가 선다고 해서 나무랄 것이 뭐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妄言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마는 이런 無責任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金영주라는 분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所謂 扶餘博物館이 日本建築을 닮아서 그것을 꼭 헐어야 되겠다던 中央廳부러 헐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러한 無責任한 毒

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判斷으로서 이번엔 調査團으로 派遣된 몇몇 사람은 저는 官製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官製로서 이것이 結末이 지어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문제의 다른 方向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政治問題化 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發言을 하는 것이고 政治적으로 解決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問題이고 또 건축이라는 것이 어떠한 政治的인 問題로 다루어져서 建築의 運命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本人이 글을 쓰다시피 지금에서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한 個의 「에피소드」가 되고 앞으로는 이것이 잘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등 비슷한 發言의 記事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었읍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建築家는 살아 있을 때 自己의 時點에서 離脫할 수 없다는 것만은 明確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會長: 제가 그러던 그 點에 對해서는 거듭 말씀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제 그제 잠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 協會에서는 이 座談會가 특히 어떤 特定人을 攻擊하거나 또는 어떤 特定人을 擁護하기 위해서 始作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제 제가 무슨 소리냐고 깜짝 놀래서 나는 오로지 우리 建築士協會라는 것이 建築에 깊은 關心이 있고 그것을 넘쳐서 우리가 直接 關係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社會의 物議가 일어났을 적에 우리가 自發적으로 行動하는 일이 많았다. 예를 들면 靑丘大學에서 事故가 났을 때 우리가 自發적으로 간 것이지 어디 靑丘大學이라든가 어디 招請에 依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이 行幕야 말로 순전히 우리 建築士 여러분이 적어도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는 公平正大하게 무엇인가를 指摘은 못하더라도 한번 모여서 檢討할 必要는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한 意圖에서 모인 것이지 어떠한 團體의 후원이나 어떠한 누구의 조그만치한 助力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한 것은 아

됩니다. 진지하게 우리 建築界에 이뤄지는 이 문제를 우리 建築士가 어찌 가만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오로지 信念을 쏟아서 한번 이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其他 여러가지 雜音이 있더라도 그것은 전연히 그런 잡음을 일으키는 當事者가 그런 열려를 할 수 있다는 이런 事實로 돌리고 이자리만은 絶對로 어느 누구한테 내놓아도 조금도 꺼림없이 자유롭게 自由분위기 속에서 말씀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강압감이라든가 어떠한 편파적인 이러한 것으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부인 하거나와 여기에 對해서 또 必要하다고 하면 우리는 좌담회 아니라 討論會라도 또는 무슨 강연회라도 능히 가질 수 있는 自體의 能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 두겠습니다.

金源安: 지금 韓國의 建築分野의 團體가 조직이 되고 있는것은 대개 建築學會나 建築士協會나 建築家協會 이렇게 3團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벌써 대두되어가지고 여론화 된것이 벌써 2個月以上 되어가고 있는데 設計製作者 本人 自身은 오늘날까지 辨明만 해왔지 거기에 對한 무슨 누구 말에 納得이 간다든지 自己의 어떤 태도표명에 있어서 그 作品에 對한 모순성을 얘기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併行해서 官廳에서 이런 일이 생긴지가 벌써 수삭이 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團體로서 이것이 組織되어 있는게가 세군데가 되는데도 어떠한 團體에게도 이 建築物에 對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問議의 對象으로 삼고 問議해온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點으로 보아서 亦是 官廳과 設計者 自身이 똑같은 心情에 아직도 놓여있지 않았느냐는 아까 金重業先生께서도 말씀 하신바와 같이 거기서 委員會가 組織되었는데 그분들이 發說한 內容은 그저 一種의 억지를 가한 側面에 지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것을 發見할 수가 있고 그 前이라도 대개 그것을 옹호해 가지고 얘기한 분들은 여지를 한번 켜보고 이러한 것에 不遇하고 타당성이 확실치 규명한 것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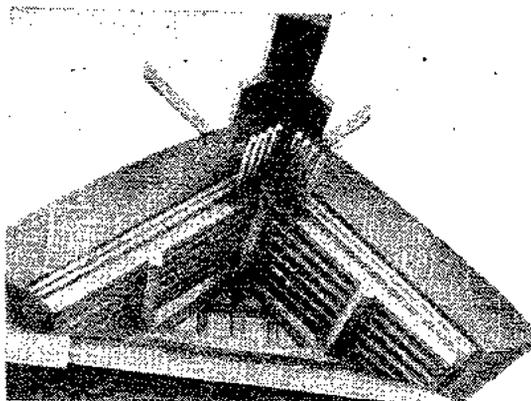
그런것을 보아서 國民들 立場으로서도 論評하는 大多數가 亦是 神社 神宮, 말하자면 그 建築

을 模倣했다고 보아서 不快感이 컸고 또 같이 呼吸을 하고 있는 建築家 大多數가 亦是 같은 論調로서 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듣고서는 官廳에서 委員會를 두지 않고도 벌써 관가름을 해가지고 무슨 措處가 이뤄져야 할터인데도 아직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官廳의 怠慢도 없지않아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建築士協會長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로 그냥 우물쭈물 나가 가지고 撫摩策으로 時日도 끌면 모든 것이 식어가지고 구멍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建築士協會 뿐만 아니라 他 團體에서도 이것을 관가름 하기 爲해서 어떤 措處가 자연 加해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良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우 타당성 있는 말씀으로 저는 同感입니다. 오늘은 좌담회니까 座談으로서 우리 各界 各層을 代表해서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로 끝쳐야 되겠고 그것이 建築士協會에 어느程度 反映이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成功이겠지요.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그저 이렇게만 하고 정말 우리가 절감하는 이 문제를 되어가는 데로 放置해 두겠느냐? 아마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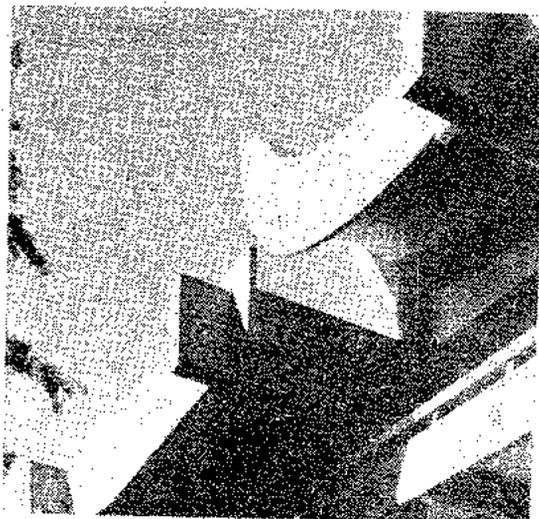
말하자면 우리 宗教團體에서라도 이것을 建築士協會의 權威있는 이러한 團體에서 聲明이 나온다면 이러한 것이 될때에 비로소 거기에 根據해 가지고 우리도 代表者를 介해서 시감적으로 볼 때 巖然 어떠한가? 그것을 관가름 해가지고 全體的인 우리 完敎團體 特別 神社參拜에 強要를 當한 基督教側에서 일어날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이것은 學族的인 運動으로 일어나서라도 阻止시켜야 될것이면 阻止시키는 것이 當然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것이 座談會로 끄치지 않는다는 것은 明確히 해두어야 되겠고 또 이것이 그대로 잊어져서는 안되겠고 여러 분께서 그 後의 일을 계속적으로 잘 하셔서 民族全體의 學族的인 그러한 呼應을 얻어야 될 境遇라면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司會: 그것은 한번 있음직한 그런것으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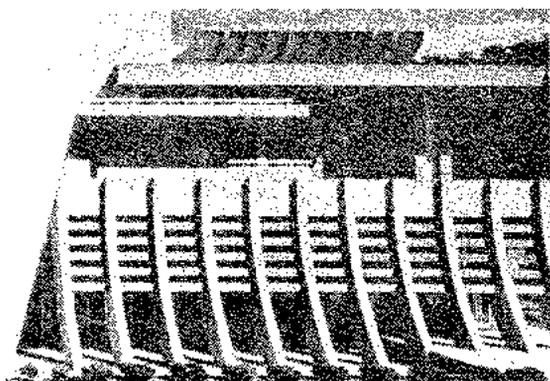
日本建築様式



<奥殿의 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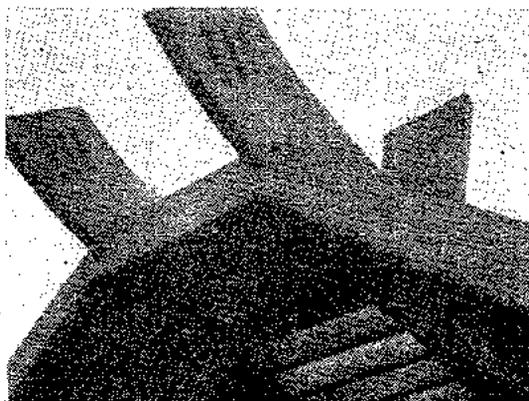


<TENSUO KOTAI JINGU>



<上 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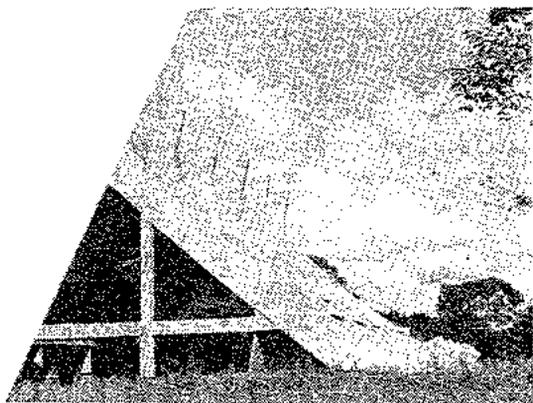
扶餘博物館建築様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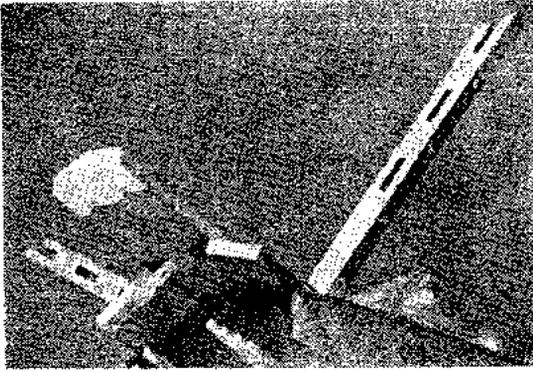
<東 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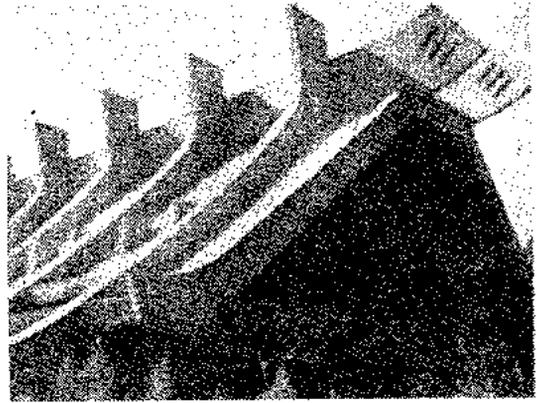
<東側처마끝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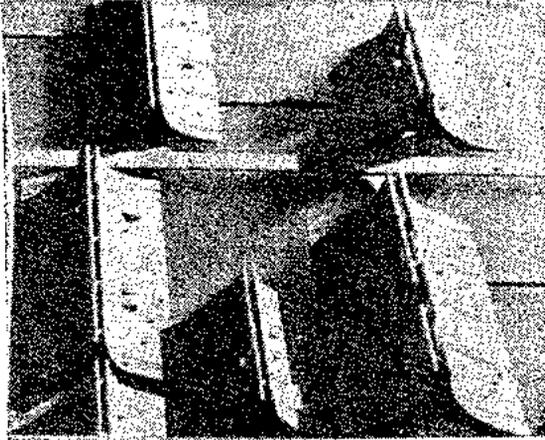
<西側 층추 대청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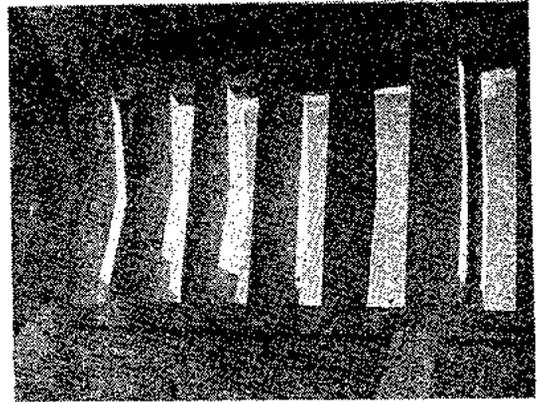
<正殿屋根의 千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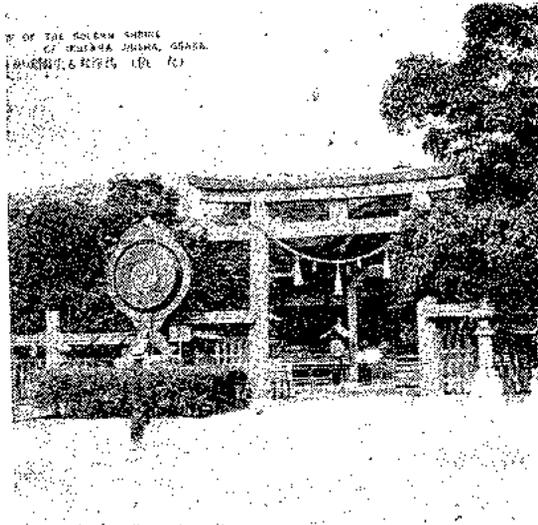
<東側 용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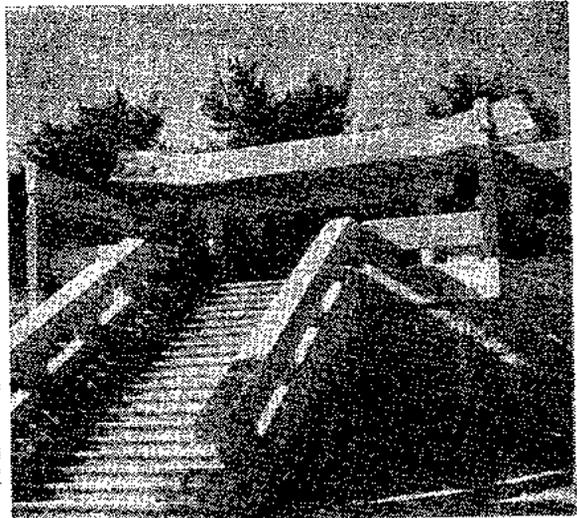
<丹下建三의 1960 東京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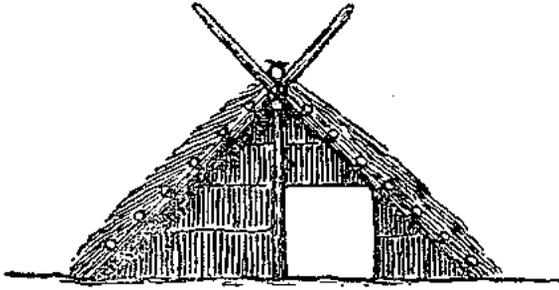
<천 정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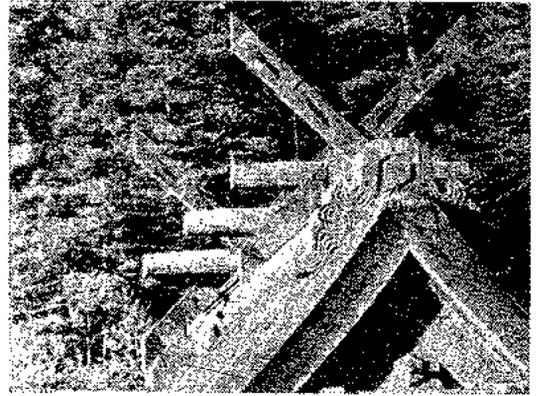
<이구다마 神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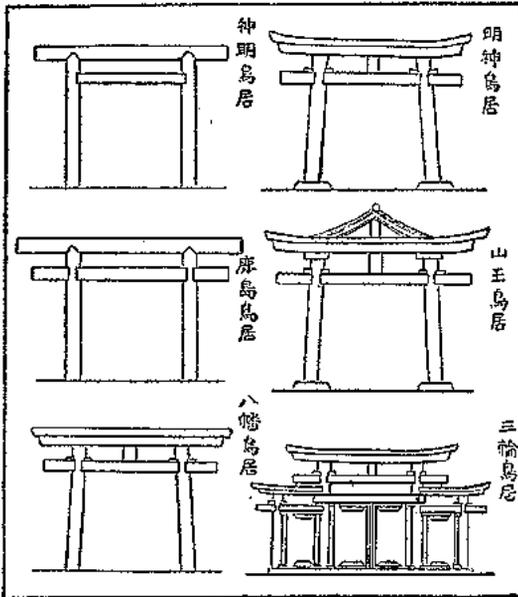
<박물관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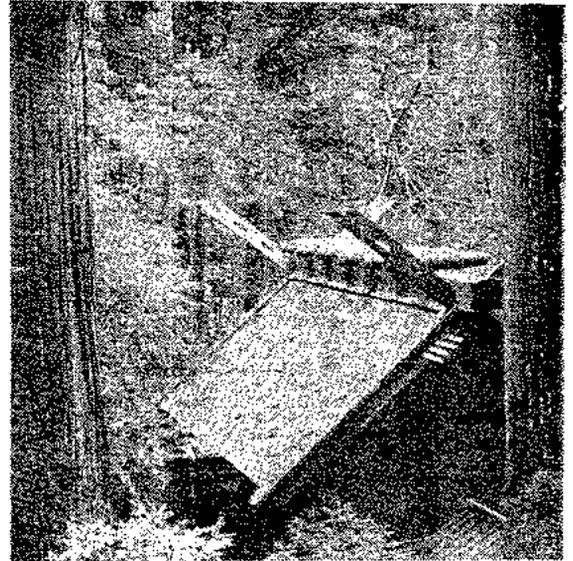
<日本 古代神社様式>



<日本の 神社지키>



<日本神社正門様式>



<日本 神社>



<建水分 神社社殿>



<부여 박물관 정문>

建築士法 第5條는 改正되어야 한다

朴 永 晚

建築士法에 對하여 改正을 主張함에 있어서 法은 곧 國民의 道德이라는 見地에서 볼때에 그 理致에 맞지 않는 點을 털어 놓는다.

建築士法(以下 法이라 略稱함)은 오로지 建築士만을 保護育成하는 法으로 解釋하는 傾向은 조금도 없고 도리어 建築士를 圍束하는 法으로 느끼고 조식하는 터 이므로 第三者의 屐촉을 받지 않을 것으로 믿겨니와 法 自體로서의 淸된 意義는

法 第1條에서 明示한바와 같이 “이 法은 建築士의 資格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建築技術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建築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곧 法의 前提의 精神일 것이며 또한 그렇게 圍束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建築物의 質的 向上이란 곧 文化向上인 同時에 國民生活의 安全度를 加一層 增大시키는 方法이 될 것이니 말이다. 俗談에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쥐어 주어도 모른다”는 것을 力說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國家建設에 重且大한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를 建築技術을 모르는 사람에게 擔當시켜서 잘될 것으로 믿어야 할지 자못 疑心스럽다.

法 第2條 用語의 定義에서 “이 法에서 「建築士」라 함은 建設部長官의 免許를 받아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 等の 業務를 行하는 者를 말한다” 하였으며

法 第19條에 業務內容을 規定한 것으로 볼지라도 法에서 「業務」라 함은 事務所를 開設한 建築士의 營業行爲를 指稱한 것으로 認定되며

法 第20條에 建築士의 誠實 等 義務를 規定한 點을 綜合하면 어찌까지나 “建築物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려는 精神이 釋然하며 그러한 精神을 實現시키는 方法으로서

法 第3條에서 建築士의 等級을, 法 第4條에

서는 前條에 揭記한 建築士들의 業務擔當의 限界를 正確하게 區別하였으니 곧

第4條 (1級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建築物을 新築하는 境遇에는 그 設計 또는 工事監理는 1級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다.

1. 學校, 病院, 劇場, 映畫館, 演藝場, 觀覽場, 公會堂, 集會場(觀覽席 또는 聽衆席이 없는 것을 除外한다) 또는 百貨店의 用途에 供하는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500平方미터를 초과하는 것.
2. 鐵筋콘크리트造, 鐵骨造, 石造, 煉瓦造, 콘크리트 부록코트 또는 無筋콘크리트造의 建築物이나 建築物의 部分으로서 延面積 300平方미터 높이가 13미터 또는 저마 높이가 9미터를 초과하는 것.
3. 延面積이 100平方미터를 초과하고 그 層數가 二層 以上인 建築物.
4. (筆者가 主張하는 點과 關聯이 없으므로 揭載하지 않음)

이렇게 規定되었으나

國內實情을 살피 보려는 前記한 用語의 定義에서 밝힌 建築士 以外에도 開業을 하지 않은 建築士 및 建築士 資格試驗 應試資格者가 많은 까닭에 이들을 活用하여 보다 빨리 建築物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려는 意圖 밑에 法 第4條를 緩和하여서 “開業한 建築士가 아닐지라도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할 수 있는 限界”를 規定한다는 것이 그만 文章의 未及이랄까, 意思表示의 不徹底랄까, 用語의 定義解釋에서의 混線 등으로 말미암아 事實上으로는 本意에 없는 나쁜 結果를 가져온 것이라고 하겠으니 卽

『第5條 (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 前條 各號에 揭記한 建築物 以外의 建築物로서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것을 新築

하는 境遇에는 그 設計 또는 工事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다.

1. 前條 第2號에 揭記한 構造의 建築物 또는 建築物의 部分으로서 延面積이 30平方미터를 초과하는 것.
2. 延面積이 100平方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 (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許可를 要하는 建築物에 限한다).
3. 層數가 3層以上인 建築物

이라고 規定하였으니 이것을 뒤집어서 分析하려는 建築技術을 모르는 사람인지라도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할 수 있는 것으로

1. 延面積 30平方미터 以內的 鐵筋콘크리트造, 鐵骨造, 石造, 煉瓦造, 콘크리트-부록크造 또는 無筋콘크리트造의 建築物이나 建築物의 部分으로서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 높이 9미터 以下의 것.
2. 延面積이 100平方미터 以內的 建築物로서 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許可를 要하는 것.
3. 層數가 2層以下인 建築物

等으로 解釋되는데 이는 중대한 모순 點이다.

다시 말 하거니와 法第1條에서 밝힌 바와같이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圖謀함이 이 法의 目的”이고 또 法 第20條 (建築士의 誠實 等 義務) 第1項 後段에서 “建築物의 質의 向上에 努力하여야 한다”를 거듭 強調한 點으로 미루어 볼 때에 “建築技術을 全然 모르는 사람에게 設計 또는 工事監理의 重任을 擔當시켜서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圖謀하려는 立法精神은 꿈에도 없었을 것”이라고 確信한다.

다만 法運營의 結果를 여러 갈래로 따져 보지 않고서 建築士, 建築士의 級別, 開業을 하지 않은 建築士 및 建築士 資格試驗 應試資格者의 職能을 區別한다는 그 좋은 構想이 建築面積의 大小에만 置重한 錯覺과 用語解釋의 混線으로 말미암아 不知中에 “國內에서 80%~90%에 가까운 延面積 100平方미터 以下의 建築物은 質的向上은 커녕 質的低下를 가져올 바탕을 마련 하였다”.

이제 그 實際事實을 따져 볼 때에 建築技術을 全然 모르는 白紙素人으로서

1. 延面積 30平方미터 以內的 鐵筋콘크리트造

鐵骨造, 石造, 煉瓦造, 콘크리트-부록크造 또는 無筋콘크리트造의 建築物이나 建築物의 部分으로서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 높이 9미터 以內的의 것.

2. 延面積 100平方미터 以內的의 2層建築物(建築許可를 要하는것).

3. 層數가 2層以下인 建築物
等을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能히 맡아서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圖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高等學校에서 3年동안 建築工學을 배우고 또 7年以上 建築에 關한 實務經驗을 가진 者가 試驗을 거친 2級建築士 即 10年以上 建築技術을 專攻한 사람은 而積 1,000平方미터까지의 單層 建物밖에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하지 못하는데 反하여 建築技術을 全然 모르는 사람은 延面積 100平方미터까지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할 수 있다는 것이 果然 可能한 일이 겠는가?

그래서 法 第5條는 氣魄이 없고 理性을 잃은 文句라고 하더라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의 等差를 區別함에 있어서는 “建築物의 構造, 使用資材의 質, 用途 등을 標準삼아서 策定함이 事理와 實態에 穩當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建築面積의 大小를 가지고 標準을 삼은 그 自體가 모순을 자아내는 基本이며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圖謀하는 目的精神에 어긋난 것이다.

法은 곧 國民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이지않는 길인 까닭에 그 運籌의 結果가 當初의 立法精神에 어긋날진데 이는 本意에 없는 惡法이 될 것이고 또한 그 實効를 걸우지 못할진데 一德의 空文書가 되고야 말 것이다.

따라서 法은 運營의 妙를 얻을이 果然 得策일진데 이 어찌 그 文字에만 拘碍를 받아 融通性이 없는 見解를 굳이 지킬 타이리오 모들지기 그 참된 立法精神에 立脚해서 國家主義 밑에서 勇敢하게 奮處할 것으로 믿는다.

要컨대 “建築士法이 果然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圖謀함에 그 目的이 있다”던 同法 第5條의 盲點을 改正함은 急務中の 急務라고 確信한다.

筆者 本協會 理事

優秀建設資材에 施賞

本協會主催 第1回 優秀建設資材 展示會



〈施賞式 모습〉



〈受賞業體 代表들〉

지난 8月 31日 午前 10時 新聞會館 講堂에서 1967년 4月 15日부터 5月 15日까지 市民會館 옆 廣場에서 開催되었던 本協會 主催 第1回 全國 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 出品된 600餘 種 目中 本協會의 展示會 資材審査委員會에서 嚴選된 32個 種目에 對한 施賞式이 있었다.

이날 施賞式에는 金允基 建設部長官을 비롯하여 多數 來賓과 受賞業體의 各 代表 그리고 關係人事의 多數 參席裡에 盛大히 舉行되었다.

먼저 本會 張起仁 會長은 開會辭를 통해서 受賞者 諸位에게 優秀建設資材 生産에 對한 勞苦를 讚揚하고 앞으로 더욱더 研究 發展하여 보다더 좋은 建設資材를 生産하여 이나라 建設工事面에 활용도를 높이고 自立經濟造成을 爲하여 힘써 주기를 바란다는 要旨의 말씀이

있었다.

金允基 建設部長官은 致辭에서 大韓建築士協會가 主催한 第1回 全國優秀建設資材 展示會는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과 大國土建設事業計劃과 連關하여 그 意義가 컸으며 이나라 自立經濟向上을 爲한 좋은 契機가 되었다고 말하고 受賞者 諸位에 對하여 그 功勞를 높이 敎賞했으며 앞으로 外國製品에 比해 값싸고 좋은 資材를 生産하여 需要者에 供給하고 또한 海外에 輸出하여 外貨 獲得에 勞力할 것 과 메저티브 시스템 實施로서 易質의 自由化 擴大政策에 대비해서 우수한 자재를 生産하는데 勞力을 傾注하여 즐것을 當부하였다.

이날 受賞業體 및 受賞品目과 受賞業體代表者는 다음 페이지와 같다.

受 賞 者 名 單

區 分	會 社 名	代 表 者	資 材 名
大 法 院 長 賞	富二産業社	이 창 덕	은돌부록
國 務 總 理 賞	韓一유리纖維工業株式會社	문 영 직	유리섬유
經 濟 企 劃 院 長 官 賞	三榮하드-보드工業株式會社	김 현 갑	하드-보드
建 設 部 長 官 賞	東和産業公司	최 준 호	조명기구
〃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최 태 섭	판유리
〃	金剛스레트工業株式會社	정 상 영	스레트
〃	東震鑄物製作所	김 형 태	보일러
〃	唯信化學工業社	김 흥 기	택스밀·호마이카
〃	三安燈石株式會社	안 현 구	질석제품
商 工 部 長 官 賞	東和타이루工業株式會社	박 일 현	도자기 타일
〃	韓國스레트工業株式會社	김 인 득	스레트
〃	保光工業株式會社	서 중 호	알루미늄샷슈
〃	盛昌企業株式會社	정 성 태	프린트台板
文 敎 部 長 官 賞	鮮滿剛材工業社	오 수 용	스틸샷슈
公 報 部 長 官 賞	大成木材工業株式會社	김 창 진	P. F 化粧판
〃	東明木材商社	강 석 전	台板
서 量 特 別 市 長 賞	大陸企業社	최 서 봉	은돌용취사로
〃	京光보일러製作所	박 중 태	보일러
〃	九川窯業社	김 응 칠	청기화
大 韓 建 築 學 會 長 賞	제림요업유한회사	박 재 문	도자기 위생기구
大 韓 土 木 學 會 長 賞	雙龍洋灰工業株式會社	조 병 준	레미콘
大 韓 建 設 協 會 長 賞	建設化學工業株式會社	황 학 구	페인트
大 韓 商 工 會 議 所 長 賞	大韓洋灰工業株式會社	이 정 구	시멘트
〃	三隆化學工業株式會社	유 관 우	아크릴제품
韓 國 建 築 家 協 會 長 賞	만성산업주식회사	박 창 현	tion pipe
大 韓 建 築 士 協 會 長 賞	三星新機瓦工業株式會社	김 정 호	선기와
〃	선만기업주식회사	박 상 추	방수제
〃	대륙특수고무株式會社	만 원 기	아스타일
〃	忠北시멘트工業株式會社	우 승 환	시멘트
〃	都市工業株式會社	최 창 수	방수제
〃	한국화재탐지기주식회사	유 성 열	화재탐지기
〃	第一스레트工業株式會社	김 진 형	스레트

功 勞 賞

區 分	所 屬	姓 名
大 韓 建 築 士 協 會 長 賞	市民會館長	이 남 용
〃	大韓建築士協會서울支部長	강 대 용
〃	大韓建築士協會서울支部幹事	이 봉 로

N E W S

新築中이던 靑丘大 5層本館 崩壞

지난 6월 16일 大邱靑丘大學에서 施工中이던 本館 5層의 新築建物이 갑자기 2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여 삽시간에 死亡 8名 重輕傷 33名의 死傷자를 낸 大慘事를 빚어 냈다.

同 新築建物은 大邱市의 許可없이 工事를 착공한 후 5개월이 넘는 지난 5월 28일에야 허가를 받았음에 뒤 늦게 밝혀 졌으며 7월 8일 준공일을 앞두고 중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당초 3층으로 설계되었던 것을 시공 후에 5층으로 설계변경을 했음이 밝혀 졌다.

靑丘大學 崩壞에 調查團 派遣

本協會는 6월 16일 도파된 靑丘大學事件의 原因을 調査키 爲해서 調查團을 構成 6월 22일 大邱로 出發 했다.

大邱支檢의 要請에 依한 同 調查團은 本協會의 張起仁會長, 安仁模理事와 威性權 裴基濤氏 등 4名으로 構成되었으며 6월 26日 原因鑑定 調査를 完了코 上京했다.

한편 同 調查團은 6월 27日, 7월 19日, 7월 20日의 累次 會議을 거친 分析結果에 對한 綜合檢討 끝에 大邱支檢에 回信했다.

支部 業務實態 調査 實施

本協會에서는 67會計年度 末을 앞두고 支部의 運營 實態를 파악하고 아울러 支部 業務에 對한 指導 監督을 爲하여 4個班으로 編成하여 支部 및 分析까지 지난 7월 5日부터 27日까지 實施했다.

A班은 姜奉辰理事와 李尙薰事務處長으로 構成되어 全南北支部를 擔當 했으며 B班은 朴永晚理事, 金鍾煥總務部長으로 忠南北을 擔當 했으며 C班은 李鍾泰理事와 安義模 技士로 京畿道와 江原道를 그리고 서울特別市 支部는 理事全員과 李事務處長과 金總務部長으로 構成되어 7월 27日에 實施 하였다.

會員名簿 發行

本協會는 8월 20日에 會員名簿를 發行하여 配付하고 있다.

67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道別 級別로 作成된 同 名簿는 매년 發行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보다 規模를 廣範圍하게 編輯할 계획이다, 資料收集을 爲한 여러 會員들의 協助가 기대 된다.

建設部 局長級 異動

建設部는 8월 1日자로 特定地域局長에 現 國立建設研究所長인 崔海仁氏를 그리고 國立建設研究所長엔 現 特定地域局長 白鎮基氏를 各 轉補 發令했다.

會員 懲戒

本協會는 1967年 6월 27日자로 다과 같이 會員 3名을 懲戒措置했다.

1) 黃基植 江原道支部會員은 休業中이라고 會員資格이 상실된 것이 아니므로 會費를 納付 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會費를 納付치 않으므로 定款 第11條 規定에 依據 會員資格停止 (6個月)키로 決議함.

2) 曹台和 慶南支部會員은 1966年 5月에 加入 後 全히 會費를 納付치 않으므로 定款 第11條 規定을 適用 除名키로 決議함.

3) 崔聖德 慶北支部 會員은 靑丘大學本館倒壞事件에 있어서 無免許者인 金仁鎬가 作成한 設計圖書를 自己가 作成한 것처럼 許可書類를 作成 함으로써 除名키로 決議함.

한편 本協會 理事會는 1967. 5. 23 日자로 六個月間 會員資格停止措置된 金淳赫 趙子爾會員에 對한 慶北支部의 懲戒措置 解除要請은 資料未備로 慶北支部에 通告하였다.

釜山市支部 事務室 移轉

本協會 釜山直轄市 支部는 지난 7월 15日 中區 新昌洞에서 中區 忠武洞 2街3번지로 移轉했다.

N E W S

建設部 機構 擴大 計劃

5. 3 및 6. 8 總選에서 國民에게 公約한 大國土建設事業을 本格的으로 推進하기 爲해서 建設部는 第2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2次年度인 68年度부터 實施할 計劃으로 機構擴張計劃을 推進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예상되는 業務量의 幅曠와 國土開發計劃에 따르는 事業의 圓滑한 遂行을 爲해서 取하여진 不可避한 것으로 擴大範圍는 現在의 5局20課를 7局32課로 擴張할 計劃인것 같다.

한편 機構擴張을 爲해 關係部處와 協議가 進行中인데 이에 따라 大幅의인 增員 및 經費를 新年度 예산에 反映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밝혀진 내용은 國土計劃局에 國土計劃課 地域計劃課 國土調查課 立地課를 두고 都市局에 都市總括課 都市計劃課, 上下水道課, 市場開發課, 首都整備課를 두고 住宅管理課, 住宅計劃課, 建築指導課, 團地造成課를 두고 管理局에 建設行政課, 建設振興課, 會計課, 資材課를 두며 道路局에는 公路管理課, 計劃調查課, 國道課, 地方國道課, 特殊道路課를 두고 港灣局에는 港灣管理課, 計劃調查課, 工業港課, 一般港課, 海岸課를 두고 水資源局에는, 水政課, 取水課, 防災課, 開發課, 水利墾拓課를 두도록 했다.

또한 建設部는 業務量 幅曠로 行政次官補나 技術次官補制를 實施하여 業務의 迅速處理를 期하려 기획중이다.

倫理委員會 委員 改編

本協會 理事會는 第24回, 理事會에서 倫理委員會 委員 改編을 論議하고 第26回 理事會(1967. 6. 7)에서 다음과 같이 改選하였다.

金東珪, 金鳳善, 裴基滢, 李明煥, 李喜泰, 康晉參會員과 釜山の 林日善會員 等 7名으로 倫理委員會 委員을 위촉키로 하였다.

日本 建築學會長 一行 來訪

來韓中에 있던 日本建築學會長 坪井善勝會長을 비롯하여 吉阪隆正副會長, 野村 孝文教授 및 高杉造酒太郎相談役 등 4名은 6月 19日 本協會를 來訪하여 本協會 任員들과 韓日兩國 建築界의 理解增進과 親善을 도모코져 相互意見交換이 있었으며 訪問記念으로 贈物交換이 있었다.

한편 同一行은 6月 22日 釜山 經由離韓 했다.

居昌分所 設置 承認

本協會 理事會는 6月 15日字로 慶南支部에서 提出한 居昌分所 設置 要請을 承認했다. 이로서 本協會는 11개 支部에 36個의 分所를 가지게 되었다.

懲戒 解除

本協會는 會員의 資格이 停止中인 慶北支部 金淳赫에 對한 第30會 理事會 決議에 依據 現事務所 登錄地인 서울特別市中區水標洞21번지 소재 大韓建築研究所를 踏査한바 建築士의 業務를 誠實히 遂行할 수 있는 條件을 갖추었다고 사료 되므로 67. 6. 4 일자 懲戒(會員資格停止)를 해제했다.

建築士業務報酬基準改正申請

本協會 理事會는 數次審議를 거쳐 67. 8. 2日字로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얻기 爲해서 建築士業務報酬基準改正案을 申請했다.

韓國住宅金庫發足

그동안 市民의 關心을 끌어오던 住宅金庫가 資本金 5拾億5千萬원으로 67. 7. 10일 문을 열었으며 理事長에 金振興氏가 취임했다

建築士資格試驗 9月末에

建設部 當局은 事情에 의하여 無期延期 되었던 建築士資格試驗을 9月 23, 24兩日 서울, 釜山, 光州 等에서 實施한다.

生活環境의 變化와 建築

朴 胤 成

덜출줄 모르고 激增하는 人口,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苦惱는 아닌 것이다. 이것은 世界的인 共通된 커다란 課題이며, 苦惱인 것이다. 여기에 대한 解決方法은 各分野에서 研究되고 여러가지 方案을 提示하고 있으며 누구나가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한 事實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人口의 增加現象의 停止는 볼수 없으며, 특히 後進國에서는 激增一路에서 조금도 後退를 안하고 있는 實情인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에 대한 關心을 建築家들이 왜 가져야 하느냐 하는 問題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으로서, 人口增加와 더불어 建築의 圓滑한 需給이 뒤 따라야 한다는 點에 起因되는 까닭인 것이다. 과연 圓滑한 建築이 누구나가 生活하는데 不便을 느끼지 않고 滿足스러운 建築이, 現在 人口增加의 Tempo에 맞추어서 需給이 되고 있으나 하는 問題를 反省하여 불배 需給이 뒤 따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生活環境의 惡化를 招來케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圓滑한 建築의 需給이 못되는 까닭에 생기는 副作用이 여러 모로 우리 周邊에 이러나고 있는 例는 列記할 필요도 없이 많은 것이다.

또한 人口增加와 더불어 人口의 大移動 現象도 默過할수 없는 것이다. 農村으로부터 都市로 向하는 人口의 大移動은 農事는 天下之大本이라고 표방하던 우리나라의 경우도 例外없이 進行되어 가고 있는 現象을 우리는 目擊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복잡한 個人的 여러가지 生活事由에서 오는 現象이 主要原因이 겠으나 概우간 이것은 人口增加에서 오는 農村生活에 대한 不安感의 增加와 都市生活에 대한 未來의 새로운 生活憧憬에서 오는 期待로 말미암아 이러나는 所爲임에는 틀림 없는 것이다. 여기에 또한 工業化政策의 強力한 推進은 都市人口 集中에 迫率을 加하게 한것은 嚴然한 事實이며 이와같은 都市人口의 增加는 過去 都市建物의 機能을 變化시키고 都市의 縱橫으로의 膨脹은 時間的인 經過와 더불어 加速度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人口의 增加와 人口의 移動現象은 都市로 集中되어 서울의 경우도 1945年 解放당시 90萬의 人口

가 1967年 20餘年後의 오늘은 350萬을 넘어가고 있는 實情으로 실로 근 4倍의 人口가 增加하여온 것이다. 이와같은 趨勢로 보아 앞으로 20여년後에는 800萬線을 훨씬 넘게 될 것을 豫測하고도 남는 것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都市 膨창하여 가는 都市의 機能은 過去의 都市와는 달리 變質하여 가고 있으며, 都市住宅地는 業務를 위주로 하는 高層建物이 建立되어 가고, 住宅團地는 郊外로 急進的으로 뻗어 가고 있는 進出현상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交通機關의 發達 즉 自動車의 多生産으로 因하여 都市地에서 멀리 떠러져 있는 곳에도 능히 住宅團地를 形成할수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建物의 高層化도 Elevator, Escalator의 發達로 더욱 機能化되어온 것은 周知의 事實인 것이다. 이와같이 機械의 發達은 우리의 生活環境에 여러모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從來와 같은 單純한 建築으로는 現代人의 感覺을 充足시킬수 없으며 人間과 現代의 怪物機械를 融合하여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것이다. 또한 交通手段으로 地上의 自動車 뿐만이 아니라 飛行機도 역시 一般化되어 가고 있는 것은 과거의 人間과 建築에 대한 概念을 뒤흔들어 놓고 단것이 사실인 것이다.

既成都市의 發展過程에 있는 都市環境은 그야말로 過去와 같은 靜的인 安定性을 찾아 볼 길이 없으며, Rush hour의 洪水처럼 밀리는 人波, 神經을 곤 두세워야 할 自動車群의 暴走등은 우리들의 生活環境에 壓迫感을 주는 것이며 더 나가서는 우리에게 威脅까지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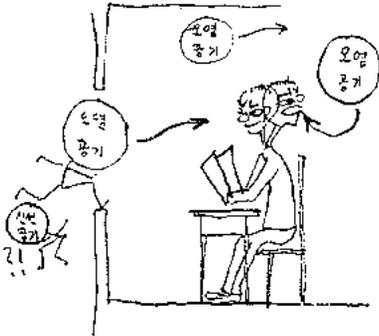
여기에 工業化의 推進은 現代技術을 最大로 活用하여 建築을 構造的으로 發展시켜 高層化를 促進시켰으며 技術의 向上進歩는 新材料의 發展을 또한 促進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建築發展의 次元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經濟的인 成長은 必要한 建築의 概念을 變化시켰으며 既成概念을 一掃시켜 버리고 만것이다.

이와같은 條件은 建築에 대한 概念을 再認識하고 再確認해야하며 靜的인 都市에서 動的인 都市로 移行하여 가고 있는 過程에 處하여 있는 現實과 未來에 대한 觀念을 아직까지도 손구루마나 牛馬車가 主要街路를 누비던 時節의 環境과 精神을 아직도 간직하고 固執한다

면 建築家의 立場에서 볼때 建築은 커다란 過誤를 犯하고 있는 것으로 斷定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發展하는 都市와 建築이 어디까지나 人間을 위한 人間을 尊重하는 生活環境으로서의 都市, 建築 즉 Human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 主眼을 두고 考慮되어야하며 積極的인 반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人口增加에 따르는 都市의 發展과 建築의 새로운 模相, 自動車交通, 이것모두 人間生活의 便利를 圖謀하여 우리의 生活環境을 보다 낮게 만들려고 努力하는 結果임에는 疑心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外樣的인 發展과 더불어 都市內에 居住하는 人間들이 都市生活狀의 惠澤만을 입고 있으나 하는데에 反問의 餘地가 많은 것이다. 이것은 肉 눈에 보이지 않는 害毒이 都市發展과 더불어 自然的으로 發生한다는 事實을 우리는 看過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人間에게 絶대로 必要한 新鮮한 空氣問題도 그 좋은 例의 하나인 것이다. 建築을 計劃할때 반드시 생각하고 設計에 반영되어야 하는 室內空氣 環境의 造成策으로 고려되는 換氣도 언제나 室內에서 汚染된 空氣를 室外의 新鮮한 空氣와 어떻게 交換시키느냐 하는데에 努力을 傾注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室外의 空氣 自體가 新鮮하지 못하고 汚染된 空氣라고 한다면 過去의 窓에 대한 認識부터 改め야 한다는 問題가 發生하는 것이다. 然이나 都心地의 交通의 複雜化 곧 道路의 먼지들 이브키고 있으며, 特히 自動車에서 뿜는 gas와 Asphalt道路의 먼지는 人間에게 공포를 주는 發癌性物質이 많이 包含되고 있다는 可恐 할만한 事實을 指摘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住居地域이라 할지라도 各家庭에서 널리 使用하고 있는 煉炭에서 發生하는 一酸化炭素 gas, 煉炭재의 放置에서 오는 먼지의 發生 등등은 우리의 健康에 害를 주는 大氣를 汚染시키는 條件이 되고 있는 것이다.

大氣의 汚染問題는 비단 人體에 限한 것만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家畜이나 植物에도 惡影響을 주는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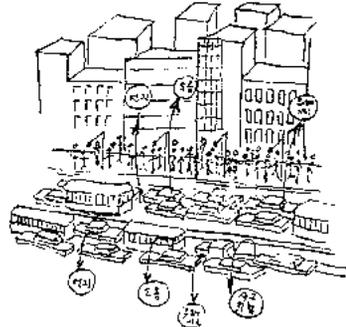
며 더욱이 建築에서 使用되는 鐵物, 非鐵金屬등의 腐蝕을 促進시켜 建築의 壽命을 短縮시키는 結果를 가져 오게하는 것이다. 따라서 特히 工業化되어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都市의 大氣 汚染에 대한 防止策은 물론 汚染된 大氣의 室內導入의 防止에 對한 積極的인 對策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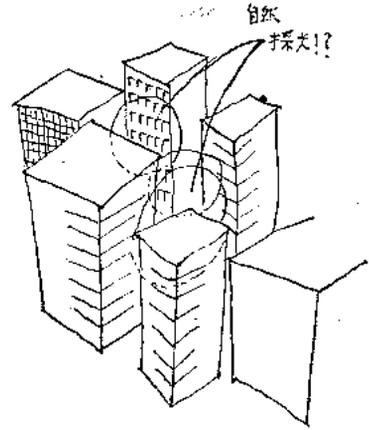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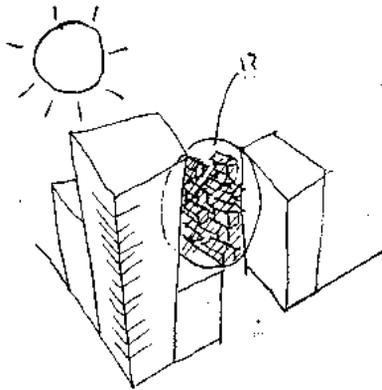
그리고 우리가 建築 室內環境의 造成策으로 그建物이 都心地의 事務所이거나 郊外 住宅의 居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용하고 아늑한 環境에서 事務能率을 올리고 Recreation을 取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騒音은 動的인 都市에서 특히 많이 發生하고 있는 것이다.

自動車기계에서 發生하는 騒音, Speaker, 工場기계의 소리, 左右間 이 騒音은 心理的으로 作業能力을 減少시키며, 騒音은 人間의 注意力을 散亂시켜 주어, 精神作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勞動을 하는 사람보다 強하게 作用을 하며 騒音은 睡眠을 妨害시켜 不必要한 疲勞의 原因이 되게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騒音역시 都市計劃 및 建築에서 技術的으로 다루어져야 할것은 더 말할必 要가 없는 것이다.

이 以外에도 都心地의 高層化에서 派生되는 日照問題와 採光問題도 역시 重要한 事項이 될것이다. 高層建物 위와 低層住宅地가 있을 경우 이 低層地帶은 高層建物로 因한 日照의 惠澤을 全然 못 받는 곳으로 그受難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닌 것이다. 日照計劃의 重要한 目的이 太陽光線中の 紫外線을 必要로 하는 것으로 紫外線中 Dorno Area의 것은 人間의 健康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라나는 兒童들의 生育作用에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不可缺의 것으로 우리가 家庭生活를 享有함에 있어 第二世들의 健育을 위하여 問題가 되는 것이다. 1年中 햇빛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그야말로 콩나물 같이 자라나 疇하고 不健全하고 虛弱하게 發育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특히 留意해야 할것이다.

都心地의 高層建物이 조밀하게 서 있는 곳에 상호간의 採光도 역시 問題點이 안될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間이 晝間에 活動을 하고 事務能率을 올리는것도 窓을 通한 可視光線에 의한다는 點을 잊을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自然採光의 良否는 곧 肉眼의 疲勞度에 差異가 생겨 晝間活動에 상당한 制約을 주는 것이다. 過去 우리는 이 採光問題를 소홀히 다루어 왔으나 廣大한 面積을 갖는 高層建物の 林立化는 現段階에서는 이것역시 科學的인 究明이 要請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電氣照明的의 發達로 電氣化하면 되지않으나 하는 持論도 있겠으나 電力消耗費도 無視할수 없는 것으로 晝間에 照明으로 電力을 消耗시킨다는 것은 經濟的인 面에서 보아 自然光의 充分活用이 또한 賢明한 일이나 하니 하는 것은 더 말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Right light in the right place는 建築家에 의하여 구상되고 設計되어야 한다는 點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都心地 高層建物の 林立化의 過程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을 象徵하는 面에서 廢棄할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 高層建物로 因한 副作用의 內包를 그냥 放置하여 버린다는 것은 우리 人間들의 生活環境을 좀더 낮게 造成하려는 意圖를 喪失시키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再評價와 是正策이 講求되어 合理的인 方案을 樹立하고 그 實踐에 응색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都市計劃과 建築計劃의 合理性을 追求하여 이루어진 結論에 의거해야 한다는 點을 再三 強調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健康된 生活을 營爲하기 위하여는 적당한 飲食物을 攝取하고 적당한 衣服을 입어야 하나 健康한 生活에 不可缺의 것은 空氣와 光과 餘裕있고 부드러운 環境을 갖는 空間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生活의 快適에 대한 住居로서 上記事項을 建築의 三大基本條件으로 斷定을 짓고 이에대한 生活環境의 空間을 造成해야 할 것이다.

물론 都心地의 高層化는 水平距離를 短縮시켜주고 時間을 節約시켜주나 高層部에서 밖으로 直接나갈수는 없고 Elevator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 難點도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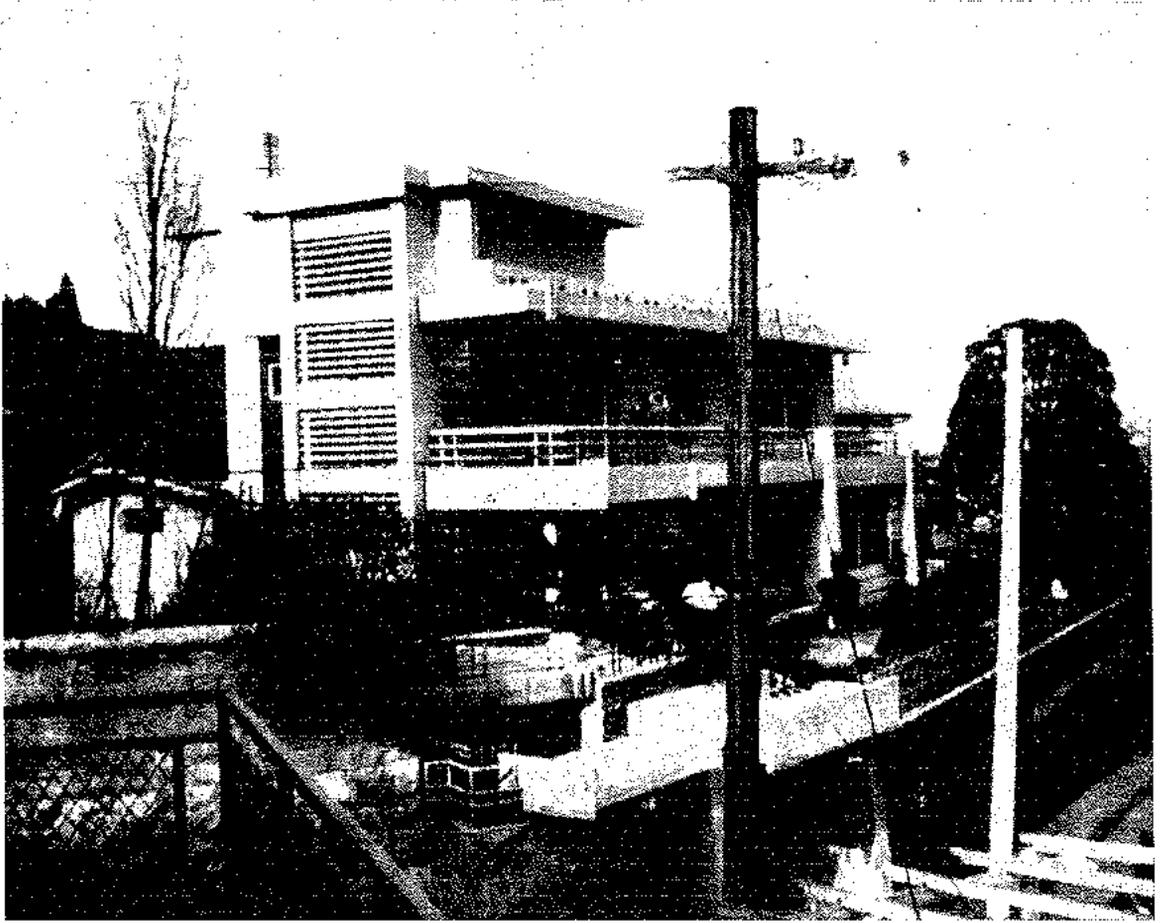
이다. 그러나 建物の 高層化는 都市의 膨脹을 막어주는 利點도 또한 큰 것이다. 그리고 특히 住宅의 경우 單層 戶別住宅에서 人口의 大部分이 生活을 한다면 그야말로 經濟的으로 理想的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人口增加에 따르는 都市收容은 個別住宅만으로는 充當하기에 許多한 難點이 생기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低收入者를 위한 最小限 住宅으로서의 高層 Apart의 장려와 특히 우리나라 獨特한 生活의 融和를 圖謀해야 할 것이다. 住宅 특히 低收入者를 위한 Apart의 建立은 都市土地의 活用과 人口稠密地區 住民의 健康狀態의 改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生活環境이 急激한 人口增加에 따라 建築供給이 뒤 따르지 못하는 限은 惡化一路를 걸을 것이며, 機械의 登場은 우리의 生活과 不可分의 關聯性을 점점 맺어가는 이상 種래와 같은 人間本位의 建築形式으로는 좀 困難하며 人間과 機械를 같이 融和시켜야 한하는데에서 過去의 建築과는 그 性格이 달라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現代科學技術의 急進的인 發展과 工業化는 建築의 次元을 높여가고 있으며, 經濟成長에 따라 建築主의 必要觀念이 상당히 變化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建築家들이 判斷 잘하지 아니하면 不滿足스러운 結果를 招來할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 建築의 社會化의 進行도 滯落 시킬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個人이 建築을 委託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個人만이 滿足하는 것이 아니라 公共的으로 社會가 要求하는 建築 즉, 市民全體가 希求하는 것으로의 Service가 要請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認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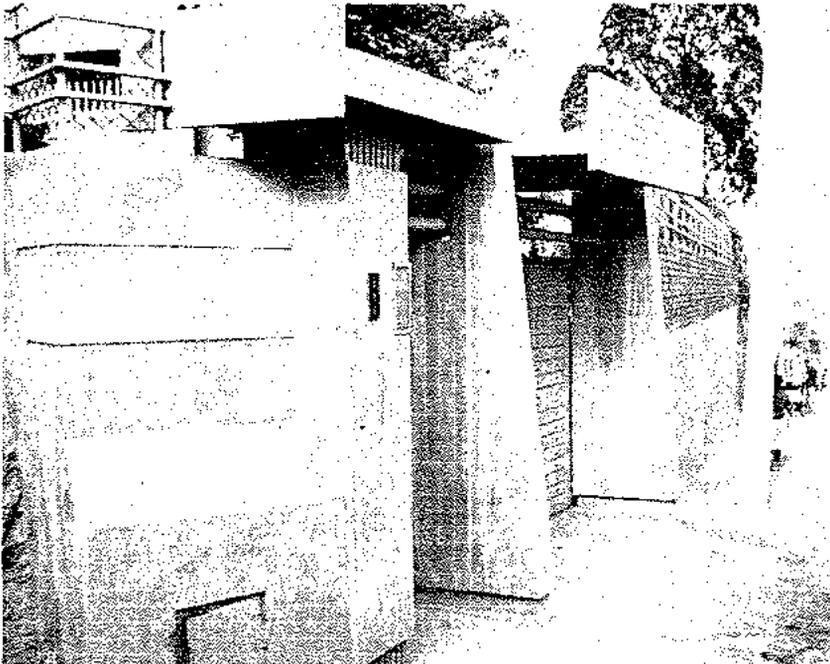
이러한 點으로 보아 變化하여 가는 우리들의 生活環境이 過去의 것을 그냥 保持시켜주지 못하는 實情에 비추어 生活環境의 改善策이 改惡으로 되지 않게 合理的으로 誘導되어 未來의 建築을 우리는 새롭게 構想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人間을 尊重하여 가는 生活環境의 造成에 主目的을 두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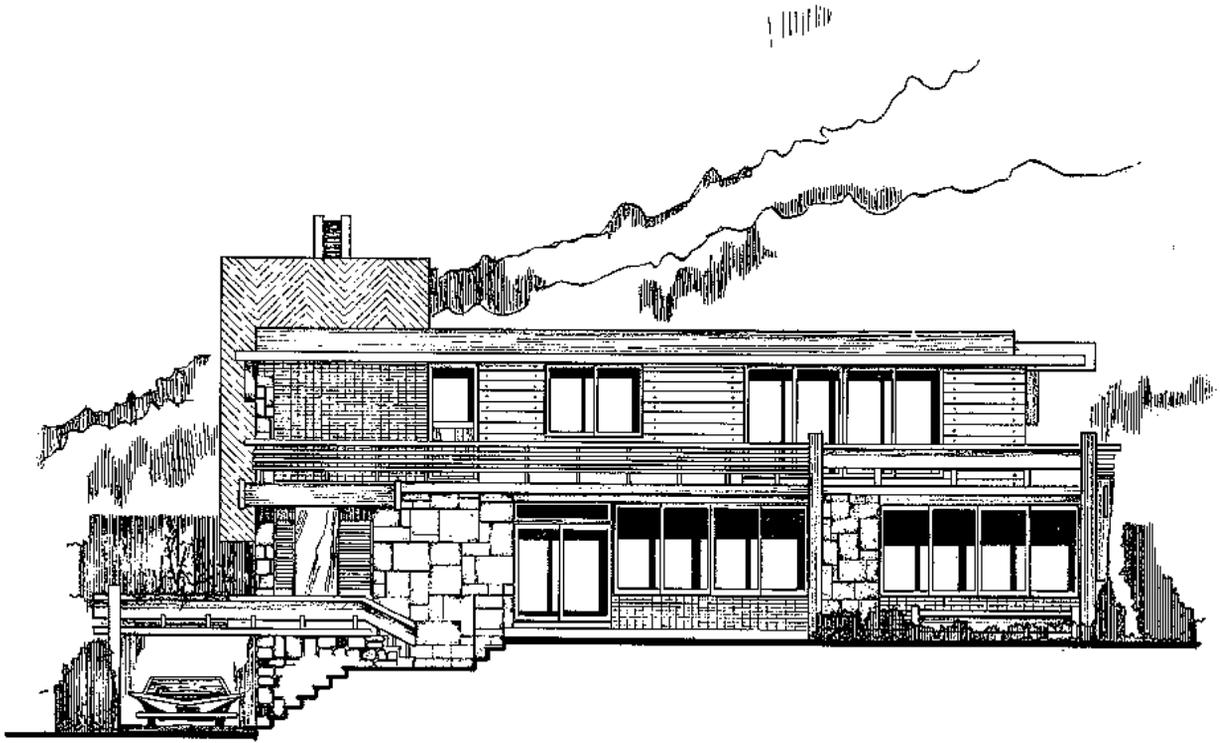
(筆者 高麗大學校 教授)

K 씨 주택



<전 경>





FRONT ELEVATION SCALE 1:100

“K씨 주택설계 설명서”



康 善 生 氏

1. 기본구상

좁은 공간속에서 삶을 누리는 우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시급한 시점에 처해 있다. 그래서 현대 이상적인 주택계획의 재 발견을 목적으로 예술을 이해 하는 젊은 건축주가 원하는 것을 우린 건축적인 미와 구조를 연구 계획해서 여기 구상해 놓았다.

2. 배치 계획

주택가의 적합한 분위기를 살려 아담하게 꾸며진 외모로 디자인하고 거리와의 소음이 완전 차단되게끔 배치하였다.

3. 평면 계획

경사진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 차고로 계획했고 그위를 테라스로 설계하여 자연스러운 층계로 연결시켰으며 테라스 옆으로 연못을 두어 내실 장맛을 꾸렸으며 내실에서 밖을 내다 보는 경원의 경치를 한층 아름답게 구상해 왔다. 남하를 통한

각방의 배치를 그들의 기능에 맞게 배치 설계 하고 독립된 2층 홀에서 내려다 보이는 정원의 경치가 한결 아름다워져 가끔 이곳에서 연회가 이루어진다.

4. 의장 계획

일반 주택 건물로서의 안전감과 친밀감 믿음성을 고려, 현대 건축미에 어긋남이 없이 구조와 기능을 살려 무난히 해결 하므로서 우아한 주택미로 만족 시켰다.

5. 구조계획 개요

- 가. 건축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 나. 시공감리 : 태양 건축 연구소
- 다. 건축설계 : 태양 건축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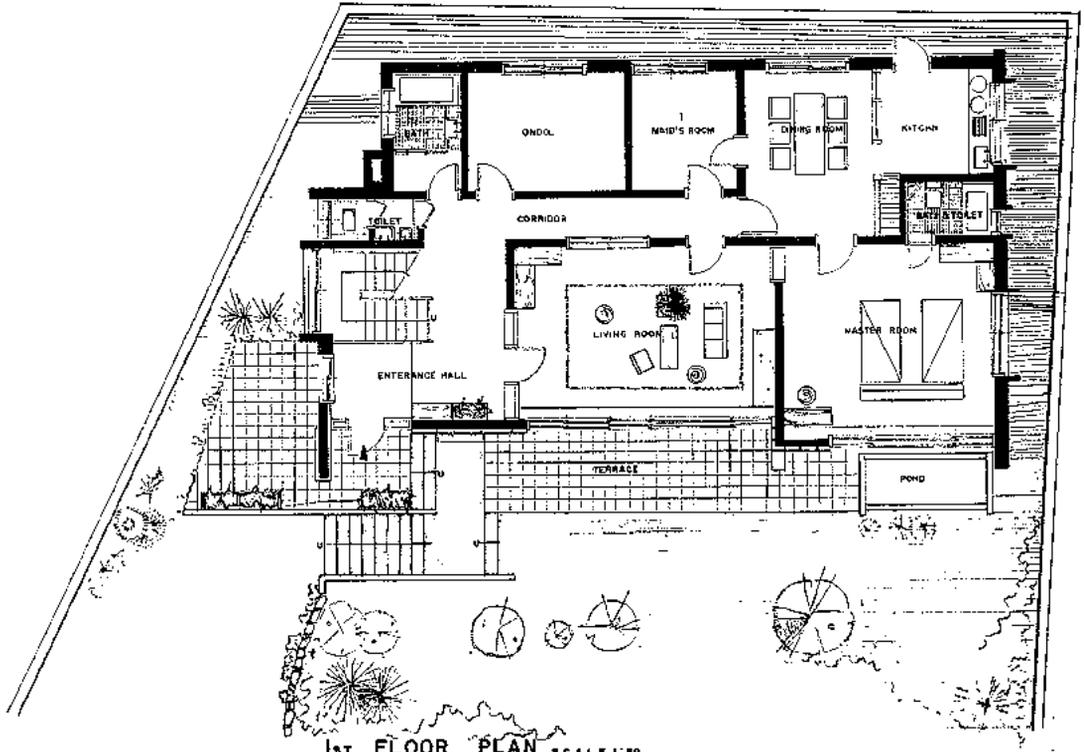
대표 : 김 진삼

- 라. 구조 : 인조석 및 콘크리트조.
- 마. 면적 : 지하실 60M². 1층 142.09M²
2층 99.18M² 총면적 301.2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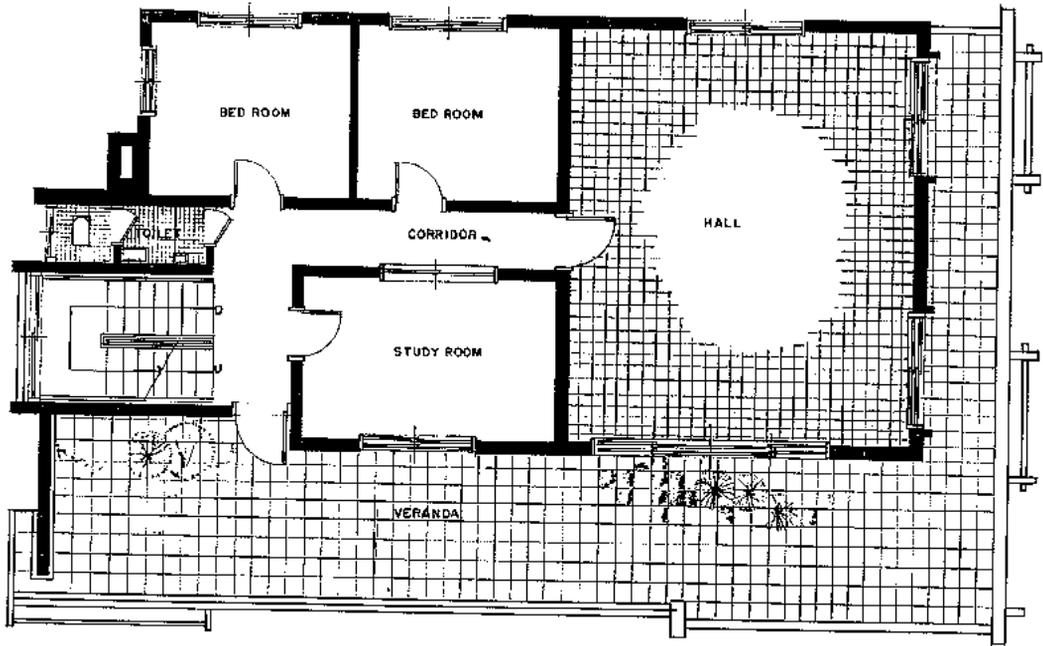
- 바. 층수 : 지하 1층, 지상 2층.
- 사. 부대시설 : 차고, 연못, 대문, 울타리
- 야. 착공년월일 : 1966년 8월 20일
- 자. 준공년월일 : 1967년 3월 15일

K M 1 1

建築事務所 新子母 4 号
設計者 (建築師) 新子母 4 号
建築面積 2,690 平方尺
完成年 1966 年 11 月



1st FLOOR PLAN SCALE 1:30 AREA 140 M²



2ND FLOOR PLAN SCALE 1:30 AREA 96 M²

光州婦女會館



<광주 부녀 회관 투시도>



光州婦女會館

陽地會 事業으로 新築
 設 計 東邦建築研究所
 監 理 推 進 會

李 白 吉 氏 構 造 鐵筋콘크리트 라멘造

面 積 地下室 115.2m² 34.5坪 요이러機械室 倉庫

壹層 384m² 115.0坪 館長 管理事務室
 相談室, 會堂, 탁아소, 美容室

貳層 384m² 115.0坪 禮式場, 職業教導所, 圖書室

參層 384m² 115.0坪, 職業指導室, 寢室, 會談室

計 1,267.2m² 379.5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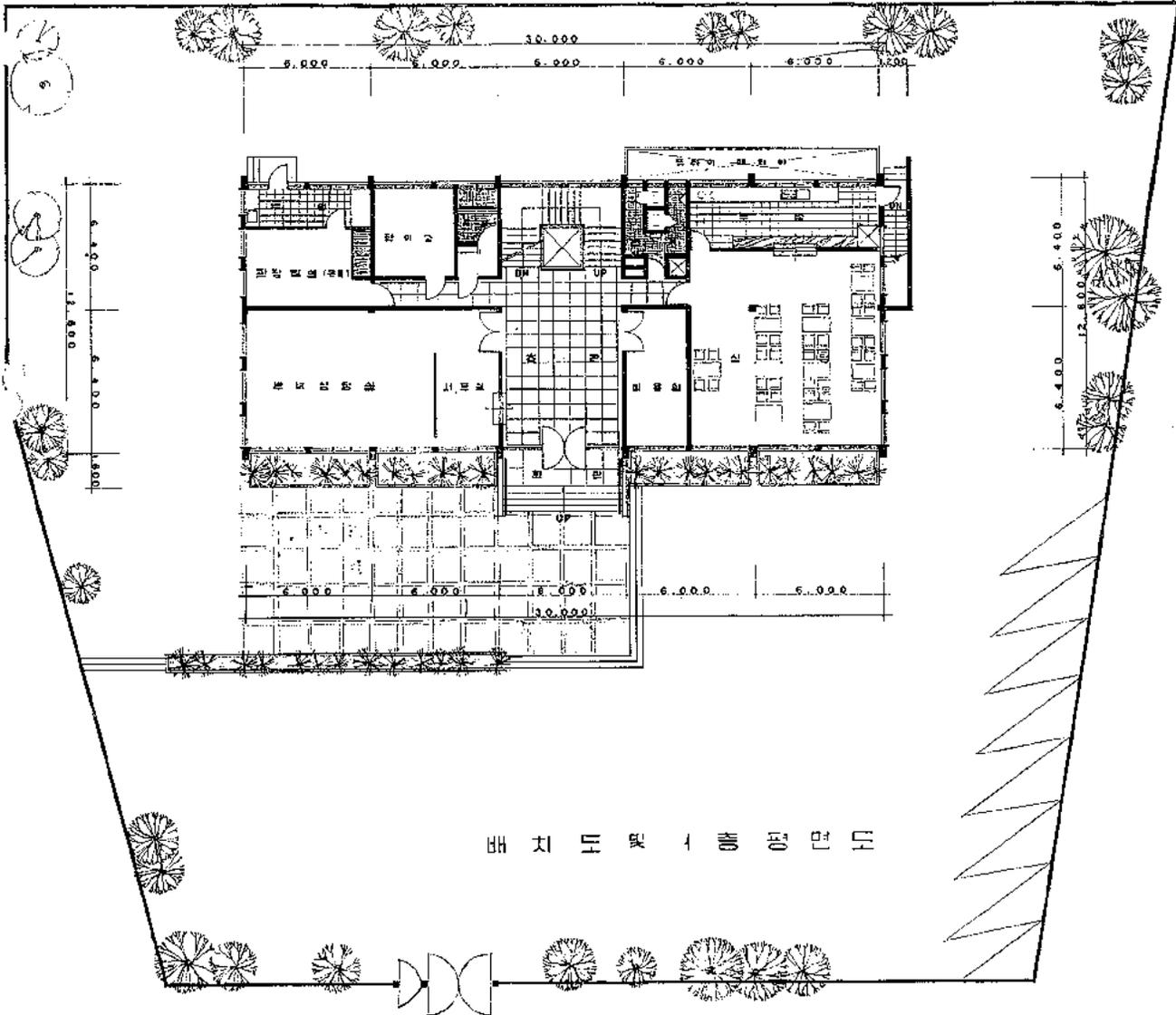
施 工 光川 大東建設株式會社

工 事 費 一, 二次 工事 內部 마감

約 25,000,000원 程度

工 期 1967年 4月 起工 1967年 8月 完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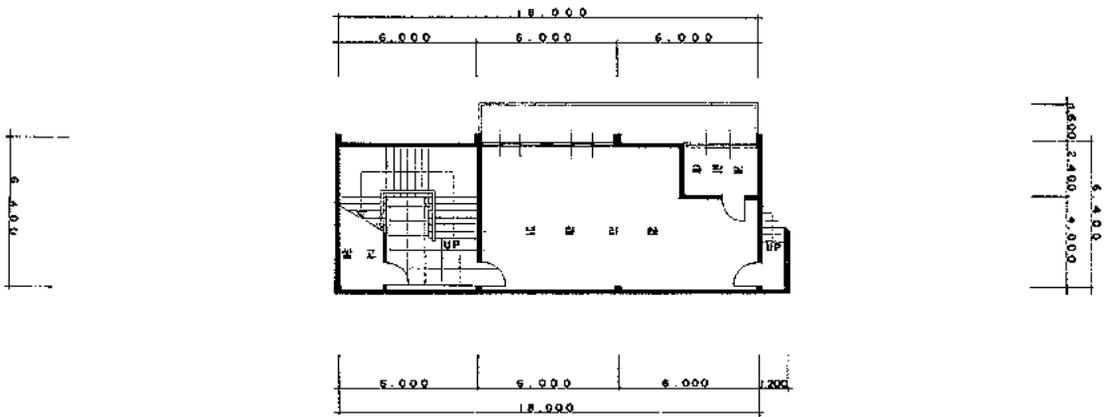
位 置 光州市 社洞



바치든꽃이동영면도

양주본사회관

이비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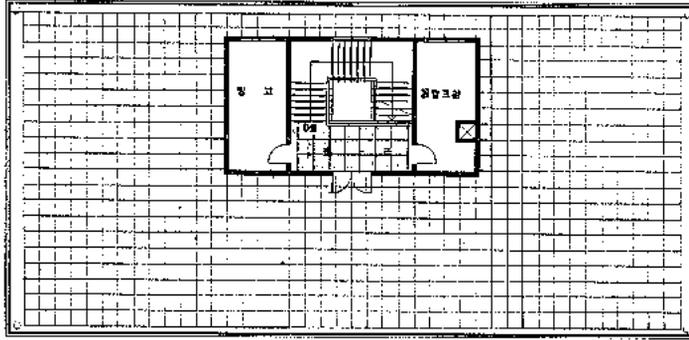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양주본사회관

이비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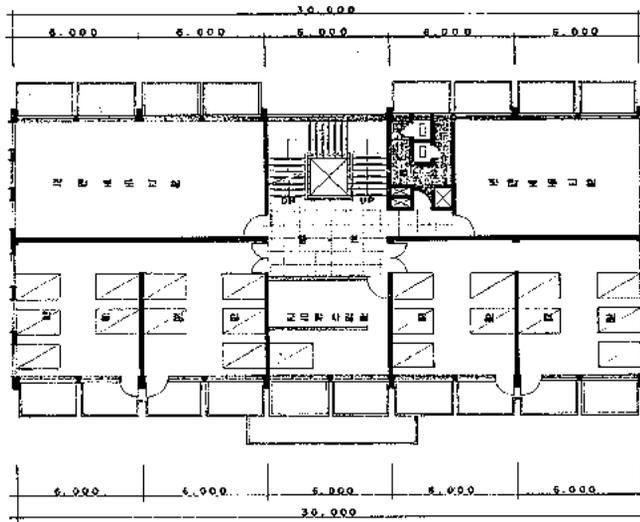
30.000
 9.000 3.000 4.000 3.000 9.000 1.600

1.800
 5.400
 12.800
 5.400
 1.800



1.800
 5.400
 12.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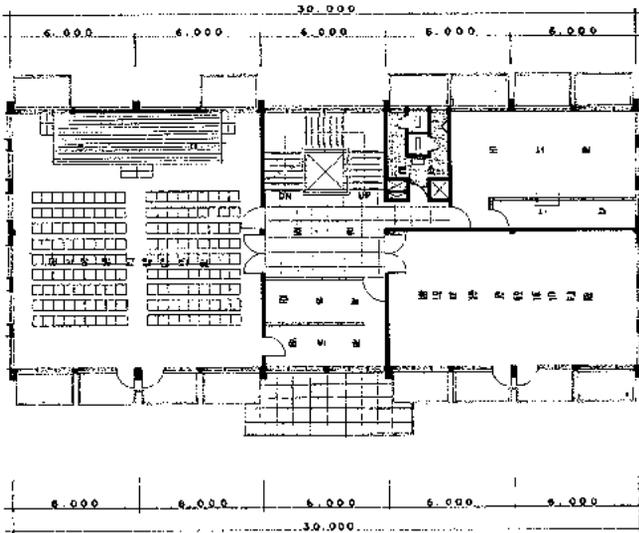
图 1 办公室及会议室



5.400
 12.800
 5.400

5.400
 12.800
 5.400

图 2 办公室及会议室



5.400
 12.800
 5.400
 1.800
 4.500

5.400
 12.800
 5.400
 1.800
 4.500

图 3 办公室及会议室

새로운 Insulation 資材 蛭石(Vermiculite)에 關하여

李 炳 昊



蛭石 (Vermiculite)이란 雲母系의 特殊한 鑛石을 高熱(約 1,000°C~1,200°C)로 加熱膨脹시킨것으로서 이것은 無數한 공기집(Air cell)을 가진 대단히 가벼운 細粒子이다. 蛭石이 가진 斷熱性 吸音性과 其他 特性은 주로 이 공기집에 依하고 同時에 金屬光澤을 지닌 鱗片面에 依한 熱의 反射가 한층 그 效果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蛭石은 高度의 斷熱性과 輕量性 및 耐火性을 지닌 우수한 건축재료라 하겠다. 이미 歐美 各國과 日本에서는 오래전부터 斷熱材로 輕量骨材로서 蛭石의 特殊性을 살려 넓은 分野에 使用되어 왔고 最近에는 農藝用으로도 研究報及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建築材料로서 蛭石을 利用하기 始作하기는 極히 最近인 二年前부터이다. 점차 수요자의 蛭石에 對한 認識度가 높아짐에 따라 날로 그 수요가 急增하고 있다. 蛭石은 종래의 他材料에 比하여 鑛物性粒子이므로 어떠한 상태에서도 變質이 없고 質의 저하가 없으며 매우 經濟的인 材料이다. 蛭石이 지닌 特性과 用度에 따른 施工方法을 記述하겠다.

※蛭石의 特性

- (1) 斷熱性.....熱傳導率 : 0.05 Kcal/mh°C
- (2) 輕量性.....부피比重 : 0.1~0.18
- (3) 防音性.....1000/sec 81%
- (4) 防濕性.....濕度 75%에서 1%以下
- (5) 耐火性.....安全使用溫度 1,200°C

※蛭石斷熱콘크리트

蛭石斷熱콘크리트는 콘크리트配合中 모래 자갈 대신 蛭石骨材를 혼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지붕(옥상)이나 바닥의 구조체 위에 단열층을 만들 때 시공한다. 이때의 蛭石骨材 品位 및 配合에 따른 特性은 下記와 같다.

(1) 材料品位

종 류	規 格	중 량	비 고
No 2	4.7~0.5m/m	4~5	(kg/Cu/Ft)

(2) 配合와 特性

배 할 비	1:4	1:6	1:8	1:2:3
세 멘 트(±)	1	1	1	1

질 석(포)	4	6	8	3
모 레(M ²)	—	—	—	0.05
물 (l)	40	65	85	35
비 중	0.6	0.45	0.35	1.3
알 육 강 도	30	15	8.5	4.5
열 전 도 율	0.12	0.095	0.075	0.31

※蛭石斷熱充塹骨材

蛭石骨材를 斷熱이 必要한 二重壁間이나 天井에 充填하여 斷熱層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섬유공장 건축에 단열 및 병장 제빙시설의 단열층은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하고 恒濕을 必要로하는 시설에도 적합하다.

(1) 材料品位

蛭石品位	規 格 m/m	중 량	비 고
No. 3	2.3~0.14	5.5~6	kg/Cu/Ft
No. 4	1.1~0.14	6~6.5	〃

(2) 열전율(K值)

두께 m/m	50	100	200
K 值	0.742	0.428	0.23

K 值算出 근거

$$\alpha = 0.05 \text{ Kcal/mh}^\circ\text{C}$$

$$\alpha = 6.0 \text{ Kcal/m}^2\text{h}^\circ\text{C}$$

$$r.a.b = \frac{1}{6.0} = 0.167$$

$$K = \frac{1}{\frac{1}{6.0} + \frac{0.05}{0.05} + \frac{1}{6.0}} = 0.742$$

(3) 병장 保冷공사에 있어서의 표준두께

실내 온도	0°C 以上	-10°C 以上	-20°C 以上	-50°C 以上
두께 m/m	60	85	100	200

(4) M²당 질석 소요량

두께 m/m	50	60	100	150
소요대수	2	2.4	4	6

※蛭石물탈

蛭石물탈은 一般물탈에 蛭石을 混合한 것을 말한다. 蛭石물탈의 特性은 保溫力이 強하므로 결로방지 방습 내차벽층에 使用한다.

(1) 材料品位

종 류	규 격 m/m	중량 kg/Cu/Ft
No. 3	2.3~0.14	5.5~6
No. 4	1.1~0.14	6~6.5

(48페이지에 계속)

韓國建築界의 當面問題

鄭 寅 國

序—提論

筆者는 最近에 韓國建築界의 當面問題가 무엇인가를 深刻하게 生覺할 여러 機會에 부딪치게 되었다.

첫째, 建設協會要請에 依하여 靑丘大學 慘事現場을 踏査하였다. 이미 世上을 놀라게한 이 事件은 이렇다 할 結論도 없이(勿論 法庭에서의 判決은 내리지겠지만) 우리 記憶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이 建築史上 보기드문 事件이 어떠한 原因으로 發生하였느냐 하는것도 重要な 問題이기는 하지만 이 事件이 發生한 以後 行政的으로 또는 學究的으로 그 原因糾明의 方法이나 經過가 너무나 無秩序하고 散漫한때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數많은 學者와 行政家들이 現場을 調査하고 갔으나 學術的인 立場에서 그 原因에 對한 調査報告書가 發表된 것을 보지 못 하였으며, 建設部, 數個의 建築團體에서 會議을 거듭하였으나 이 亦是 破壞原因을 正確하게 規定치위 一般과 專門家들의 공급증을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筆者가 參席한 唯一한 建設協會 技術審議委員會에서도 構造計算上 露出된 過誤면 그 以上 論議할 必要를 늦기지 않는 것으로 處理되고 말았다. 勿論 表面上으로나 形式上立場에서는 具體的으로 들어난 構造計算 錯誤와 現實的으로 倒壞된 事實만 가지면 다른 問題를 더 追窮할 餘地없이 쉽게 結論 지을수 있다 그러나 構造計算이라는 方法에 있어서 그 方法 自體의 假定이나 安全率이나 許容限度의 幅넉은 限界의 曖昧한 點등으로 미루어 볼때 構造計算上의 錯誤가 그대로 建物を 決定的으로 砂壤하는데 까지 이르게 하였는 가 하는 點은 容易하게 背背이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錯雜히 複合된 原因을 分析하여 建築士에게, 學界에 行政當局者들에게 큰 警鐘이 될수있도록 좀더 組織的이고 統一된 調査機構와 方法이 實施되었어야 하였을 毫 안다. 더욱이 이 事件이 物質的인 被害뿐만 아니라 十餘名의 人命被害를 입힌 法律上 處決問題와도 關係되기 때문에 露出된 事實만을 들 뿐이지 그 內面의 相互連關性이나 關係의 深度를 追求하려고 들지않는 無難한 結論으로 끝냈고 만듯한 개운치 않은 結果이다.

둘째, 某某建物懸賞審査委員會에 參席하였다. 이 들은 韓國初有의 大規模의 建物하나의 韓國初有의 紀念性을 드인 다른한 建物이다. 이 두 建물이 모두 한 審

査員이 眞心으로 바라고 있는 方向과는 다른 方向으로 突進하여 物議를 일으키고 또 빈축을 사고있다. 하나는 意圖하고 있는 基本아이디어가 成熟한 建築創作品으로 轉換하여 줄것을 바랐고, 또 하나는 個個가 가지고 있는 不完全性を 結束된 힘으로 補完되어 수기를 바랐는데 이 모두 純眞한 審査員의 善意의 祈願과는 背馳되는 길을 擇하였다. 무엇이 이렇게 하게하는 原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리 거리 부길수있는 淺薄한 억저 理由 때문은 아닌것 같다. 그 內面에 우리 建築界의 正當한 發展을 侵害하는 어떤 病弊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셋째, 標準局에서 主權한 모듈(module) 制定委員會에 參席한 일이었다. 建築工業化의 多量生産을 爲한 基礎적수의 決定을 目的으로하는 모듈制定은 世界各國의 趨勢에 비추어 切實히 必要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會議의 內容을 들어보면 너무나 抽速主義로 일을 서둘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重大한 基礎的 事業에 割愛한 豫算이라는 것이 不要不急한 다른面의 天文學的 豫算에 비추어 微細한데 놀랐다. 韓國의 모듈制定을 爲한 總豫算이 3萬5千圓整이라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모듈의 制定이 生産業界와 디자인界에 얼마큼 큰 影響을 주며, 그것이 우리 周邊 生活에 어떠한 革命을 일으키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이 會議 亦是 沈鬱한 場所의 탓인지 흐린氣分으로 계단을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네째, 어떤 建物設計의 設計者의 名義가 任意로 둔갑하고 있다. 한 權威있는 月刊雜誌에서는 法的契約者로서 基本 아이디어를 着想誘導한 끝에 最初提出한 側面制作者를 設計者의 名義도 發表하였고, 다른 한 季刊雜誌에서는 所管 企業處로서 恣意로 할수 있는 制作權 侵害를 部分的 修正으로 行한 끝에 當黨히 名義를 내세우는 橫暴를 恣行하고 있다. 落後한 倫理社會일수록 建築主의 橫暴는 甚한 法이다. 오래전에 한 映畵에서 理想主義者인 建築家가 自己設計와는 다른 建물이 建築된데 憤慨하여 建物を 爆破하는 場面을 본 記憶이 있다. 이러한 無秩序와 恣意와 橫暴가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社會는 韓國社會 뿐일 것이다. 建築行爲社會에서 이러한 無政府狀態를 默認하여 一言半句 對句도 하지 않는때는 建築主의 橫暴를 茶飯事로 알고

있는 不遇한 世代的 諦念도 아니고 절 없는 三尺童子의 戲弄을 可笑롭게 生覺하는 맛도 아니다. 좀더 깊은 哲學的 苦悶에서이다.

假令 例로 든 이 建物の 그 자랑스러운 基本아이디어란 어떤 것인가, 적어도 全世界各地에 十餘個는 있는 그런 것이다. 또 알루미늄루라의 스크드렌로 된 이 建物の 包裝紙는 獨創인가? 또 美國 친구가 선사해준 工業生産品의 包裝紙를 模倣하여 그럴사하게 짐을 싸는 行爲가 果然 우리 自身을 納得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 그것을 누가 했든 世界의 어느 한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A or B 가 했을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韓國社會에서 問題는 그것을 누가 하였느냐 보다는 더 深刻한 重要한 論點이 이 些少한 일로 提案될 수 있는 데도 不拘하고 鈍感하게 癡癡된 神經으로 얼버무려 두고 넘어가는 世態가 寒心할 뿐이다.

다섯째. 某雜誌를 읽었다. 거기에 高名한 建築家들의 座談이 실여 있었다. 그곳에는 建築 內至 建築家라는 分野에 對해서 有益한 말들이 많았다. 그런데 果然 建築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떤 特定한 藝術的 陶冶를 거친 것에 限하며, 建築家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特定한 藝術的 資質을 갖춘 사람에 限하여 누릴 수 있는 高尚한 이름인가? 筆者는 數年前 藝總創立總會에서 藝術文化團體라는 이름이 建築이 加擔한 것으로 크게 모독을 당하는 것 같이 發言한 親愛하는 한 詩人의 發言에 먹울 할을 참지 못 하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建築에 對한 高踏的인 定義를 내리는 데도 어떤 현기증을 느낀다. 흔히 初年生 建築學徒들에게 建築家라는 말은 처음으로 宇宙의 創造者라는 뜻으로 세익스피어가 썼으며, 古代社會나 文藝復興時代에는 建築家는 모든 藝術과 技術의 總帥라는 뜻으로 불렸으니 너희들도 이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훌륭한 建築家가 되라고 教訓한다. 建築에 對한 이러한 概念은 多分히 中世紀的인 윌리엄모리스流派의 思想에서 根源하는 것이다. 또 近世에 들어와서 貴族에게 雇傭當하고 있던 御用建築家들의 貴族趣向에 起因하는 것이다. 建築은 사람이 살고있는 當위에 사람을 爲하여 세워지는 것이니 하늘에서 神을 섬기기 爲하여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러한 問題가 座談에서 오고가는 理由는 特權意識에서 오는 것과 建築行爲에 있어서의 誠實性 純粹성을 疑心하면서 생긴 것이다. 建築創造에 從事하는 모든 建築士가 人間이 居處하는 空間創造에 誠實한 態度로 對하면은 그 結果가 비록 어떤 價値規準에서 알은 水準에 있다 하더라도 建築本然의 行爲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서 建築教育과 建築評論등 여러가지 部面의 質

的 向上으로 韓國의 建築內容을 豊富하게 하는 대신에 高踏的인 諷刺로 超然한 態度를 取하는 것은 百害無益하지 않을 까하는 懷疑가 座談으로 줄수있다 贊譽보다 더한것 같다.

여섯째. 서울市內를 散策하며 이런 感傷에 젖는다. 到處에 뚫어놓은 地下道에는 장마철에 물이 새서 떨어지는데 한편에서는 地下都市를 構想한다. 애써 만든 陸橋의 階段 폭은 여기 저기에서 다시 뜯어 넓히느라고 일을 서두르고있다. 都心地에 알맞게 들어 앉아 있던 조선호텔 자리에는 數十층의 摩天樓가 세워진다고한다 都市景觀의 都市計劃的 解釋을 일 버릇으로 하든 建築家들이 그 말의 더 운감이 식기도 前에 이것을 贊同하고 나선다 檀道호텔 앞에도 中모 맞은 前에도 파고다공원 周邊에도 商街가 준비하게 된다고 한다. 그것이 所謂 都市再開發計劃이라고 美名을 부치는 지는 모르겠다. 도대체 이런것들이 어떠한 科學的 根據에서 計劃的 事業으로 推進되고 있는 것인지 卍로皇帝가 聖琴朗詩 하던 로마市를 불지른 氣分으로 하는 것인지 모를일이다.

그러면 우리 建築界의 當面한 重要한 問題들은 무엇이며, 이것들을 基本的으로 어떻게 處理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하여보자.

全般的으로 精神的 問題에 對하여

1. 建築에 있어서의 倫理性的 要求

언제나 偉大한 建築時代의 始初에는 建築의 內面에서보다 倫理性에 對한 要求가 더 強調되기 마련이다. 現代建築의 始祖라고 불리우는 윌리엄·모리스는 그의 作品上의 活動보다도 當時의 混沌한 創作世界의 倫理的 指針을 明示한데 있다. 그는 19世紀初의 狀態를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다. 첫째로 利潤을 爲하여서만 生産은 행하여져서 製品을 가차물건이 되버려 藝術性은 喪失되고만다. 둘째로 大量生産을 追求하는 나머지 機械化와 分業이 行하여져서 勞動者는 機械의 노예가 되어 藝術的 創作의 自由가 없어졌다. ……셋째로 裝飾的 藝術은 機械化되어 여기에 從事하는 者의 社會的 地位는 下落하고 藝術은 特權階級的 藝術家의 손에 마져져서 藝術 全般的의 衰退가 招來된다.

그다음 虛偽와 模倣과 汚毒된 環境을 是正하는 것을 建築活動의 出發點으로 삼은 다른 한 建築家를 들어보자.

和蘭의 벨라체는 1890年代에 一般으로 流行하는 建築物을 걸치레의 建築, 卽 模倣, 卽 虛偽라고 하면서 虛偽가 法則이 되고 眞實이 例外가 되버리고만 建築活動을 慨嘆하고 있다. 또 거의 같은 時期에 반·데·벨

데는 「이와같은 汚穢된 環境을 一掃하라!」고 웨쳤다
이러한 先驅者들의 말은 次元을 달리하면서 그대로
우리 社會에도 該當시키고 싶다.

充分한 技術的 檢討도 없이 倒壞된 要素가 많은 設計를 해 내키는 大學敎授의 良心, 技術的 檢討를 專門
家에게 맡겨 할수 있도록 充分한 經費도 支拂하지 않
는 企業主의 吝嗇, 이러한 圖樣을 유야무야 許可하여
준 行政官吏의 無能, 또 이 工事を 無許可業者가 盜用
한 商號로 아무 技術保障없이 進行된 業者의 無謀한利
潤追窮 등 一連의 일들, 그 외에 提論 구석구석에 頗多
한 虛偽와 汚穢된 環境을 一掃하는 것만이 建築界를
淨化하는 唯一한 길이다.

建築活動은 단기 利潤追窮의 한 手段으로 化하여 藝
術活動이라느니 보다는 巷市의 商行爲와 흡사하여 겹
고, 建築의 本質은 이러한 商行爲에 알맞게 P·R을爲
한 廣告術에 가깝게 타락하여 가고 있다. 建築藝術의
木質과 純粹性을 다시 찾는 것이 우리를 建築家의 先
先務이다.

2. 建築評論의 育成

이제는 韓國도 建築評論이 必要한 時期가 되었으며
또 素地도 마땅 되었다고 본다. 2年前 美國의 著名한
Pratt 大學建築科長이 懇談會席上에서 第一번저 묻는
質問에 韓國建築評論은 어떤 狀態에 있는가를 내놓았
다. 그때 아직 時期尙早함과 그럴만한 充分한 與件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建設面에서 볼을 일으키고 있어 政策, 價値,
社會性, 技術, 機能, 生産 方式등 여러面으로 論議의 對
象이 되는 評論相對物이 急增하고 있고, 一般大衆의
關心이 나날이 커가고 있는 點 더욱이 住宅問題, 都市
問題, 國土計劃問題등으로 直接的으로 市民社會의 利
害關係와 漸漸더 接近하고 있는 點 들은 建築評論을
要求하게 하는 要因이 된다.

建築家의 立場에서 볼때도 本質的 問題에 對한 混亂
과 技術, 디자인의 急進的 發展과 이에 隨體하는 建築
家의 資質向上等은 또한 建築評論을 切實히 必要로 하
게 한다.

建築評論이 成立될려면 批評의 對象이 일정한 建築
物이 있어야 할것과 批評할수 있는 能力을 가진 評論
者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作用받을 수 있는 社會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마와 같이 經濟成長에 따르
는 建築의 膨脹에 따라서 相當한 數의 對象은 생겼다
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充分
한 能力을 가진 批評家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적 오
례전에 某雜誌에 韓國의 建築家를 아무 原則없이 分類

하나 途中에 綱筆한 것 같은 論文이 學術誌 卷頭에 실
린것을 읽고, 그 論文을 쓴 사람이나 실은 사람이나
모두 常軌를 벗어난 사람들이란 느낌과 建築批判의 困
難함과 重要함을 새삼스럽게 느낀적이 있다.

批評家로서의 基本條件은 그의 批評의 立場이 明確
하여야하며, 一貫된 方法이 樹立되어야하며, 이러한 方
法이 그 社會에서 容認되어야 한다. 一時的 着限이나
感情의 發言으로는 批評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建築
評論에서는 繪畫나 彫刻 같은 純粹藝術과는 달라서 社
會라는 建築主가 있기 때문에 批評이 잘못되어 被害를
주는 範圍는 넓어진다.

批評의 方法에 있어서도 各樣各色일 수 있다. 럼포
드(L. Mumford)는 文明社會의 發展에 대한 廣範한 社
會文化史의 見地에서 社會環境으로서의 都市, 建築의
推移, 個個作品의 檢討紹介를 方法으로 하였고, 기메
온(S. Giedeon)은 美術史家로서 建築活動에서 藝術의
社會的인 새로운 契機를 把握하고, 認識하며, 解釋하
여 一般化하는 立場도 있고, 리차즈(J. M. Richards)
같이 近代建築活動에서 그 本質, 그 意義를 解說하면
서 現實의 動向을 規定짓는 方向도 있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것은 該當時點에서 그 社會에 切實히 要求되는
問題點들에 알맞게 討論이 行해져야 하는 것이다. 즉
現在 우리 社會의 狀態에서는 어떤 建築活動이 社會要
求에 合當한 것인가 外來文化의 影響 밑에서 獨白의 文
化로서 認定받을 수 있는가, 建築의 本質의 要素와 離
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問題가 그 建築이 藝術의 價
值로 보아 좋은가 좋지 않은가 하는 問題보다 더 重要
하다

그래서 批評의 세계要素인 社會가 論議된다. 리차드
노이트라는 말하기를 建築에는 恒常 두개의 建築主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資本을 直接내는 建築主이고
하나는 沈默하고 있는 社會라는 建築主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批評도 建築과 마찬가지로 社會의 判定
으로 效果가 發生하게 된다. 어떤 sensual 한 몇개의
建物을 보고 온 한 市民이 그 建物의 表現의 卓越함에
놀라는 것 보다는 効用性에서 제로이고 經濟性에서 제
로以下라고 評하는 것을 듣고 沈默의 社會의 批評에 感
嘆하였다.

하루 速히 建築評論을 育成하여 韓國社會에 알맞는 建
築이 軌道에서 發展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겠
다.

3. 個個建築家의 建築哲學樹立

美國의 著名한 建築家인 야마자기가 現建築界의 混
亂은 哲學의 貧困에서 起因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哲學이라함은 極히 俗된 뜻으로 즉 建築의 純粹性이나 藝術性을 느끼고 있는가, 建築의 基本要素를 理解하고 있는가, 建築의 社會性을 알아 거기에 背馳안되게 行動하는 가하는 程度에서 우리 建築界에 該當시킬 수 있고 좀더 깊이 들어가서 創作態度에 根源的 哲學이 뒷받침하고 있는지, 社會와의 關係에서 어떤 革命的, 指導的 役割을 하고 있는지, 現代建築思潮 속의 어떤 位置에서 作業하고 있는지를 통털어 말하고 있다. 이것을 進으로 말하면 大部分의 建築家들은 建築은 設計金額에 알맞게 適當히 處理하여 그려주는 構造物로 알고 있고 皮相의으로 模倣하는데 그치고 말든가, 自己商號를 宣傳하기 爲하여 奇矯한 表現을 無節制하게 詐하든가 하는 傾向이 우리 建築社會의 風潮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全世界의 建築의 混亂相은 韓國에까지 波及되고 있다. 그러나 世界的混亂相이라는 것은 近代建築初期의 巨匠들의 뒤를 이어받은 中堅建築家들의 多様な 表現이 비껴낸 結果인데 그것들은 그런대로 深奧한 哲學이 뒷받침하고 있으나 우리들것은 그렇지 못하다. 筆者는 이미 다른 論文에서 韓國의 建築思潮의 큰 조를 세 체로 셋으로 區分하여, 첫째는 國際主義建築樣式을 純粹하게 踏襲하여 建築工業化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는 部類와 韓國의 古典의 傳統을 直接間接으로 또는 寫實的으로나 抽象的으로 再現하려고 努力하는 部類와 sensual propagandism으로 外國의 여러가지 彫刻的인 踏動的인 作品을 模寫하려고드는 部類를 들었다. 이것은 모두 다 妥當한 길이라고 보겠으나 韓國社會의 後進性과 建築工業의 手工業의 方法和 經濟의 零細性등 여러가지 現實事情을 우리가 서있는 地盤이라고 하면 여기에 알맞는 韓國的 變貌가 이루어져야만 眞實한 建築行爲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모든 建築家는 우리 社會가 要求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正確하게 把握한 끝에 自己自身이 建築哲學을 세우고 이것을 出發點으로 모든 活動을 展開할 것이 要求된다.

全般的으로 建築生産方式에 對해서

1. 모듈制定에 適正을 期할것

이것과 關係되는 問題들은 廣範圍하게 다음과 같다. 제일 重要的한 것은 亦是 建築生産의 工業化이지만 다음으로 設計理論, 實際設計, 施工 뿐만 아니라 材料 部分品等의 生産에도 關係되고, 또 建築空間에 包含되는 家具나 機械類의 標準치수와도 關連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모듈의 起原은 그리스 時代부터 생긴 것으로 치수를 어떤 規準에서 고집어 내는 것은 建築같이 複雜한 組合으로 되는 곳에서는 必須條件이다. 모듈은 古

典建築에서는 아름다운 建築을 만드는데 必要하였지만 近代建築에서는 建築을 機能的으로, 合理的으로, 經濟的으로 多量生産하기 爲하여 必要하게된다. 그래서 ISO(國際標準機構)에서는 모듈라고 오디네이션의 主目的을 「建築産業의 合理化와 建設費의 引下」에 두고 있음을 보면 우리나라 같이 모든 方面의 建築需要가 急増되고 經濟的으로는 힘이 弱하며 生産方式은 아직 手工業의 程度인 條件에서는 適當히 要求된다.

이미 世界各國은 모듈制定이 끝난 段階이기 때문에 米터法을 基礎치수를 하는 다른나라의 모듈을 그대로 適用하던 無難할 것 같이 느껴지며, 특히 모든 生産이 國際化하여 가는 實情에 비추어서도 이러한 모듈 制定 方法은 妥當할 것 같다. 단지 모든 外國의 實施案을 우리나라의 地域의 特殊성과 對比하여 여러모로 檢討하여 多少의 伸縮性을 갖게하는 것은 不可避할 것 같다.

2. 建築生産의 工業化

建築生産의 工業化는 다음의 세 方法으로 이루어진다 즉 建築材料生産의 工業化, 建築工事의 機械化, 建築部品의 量産化이다. 위의 모든 方面이 韓國에서는 아직 遲遲不振한 形便이다.

建築生産의 工業化를 爲하여서는 優先當은 種類의 建築에 共通된 要素를 整理하여 體系化하는 作業과 從來現場에서 一體化하던 일을 分解하여 組立하는 方式所謂 프레파브리케이션의 作業이 必要하다.

建築生産을 部品化하여 多量生産하며 工事費의 引下를 目的으로하는 方法은 基本으로 다음의 세 方式이 있다.

Unit式은 一室 또는 適當한크기의 單位空間을 가진 箱子를 만들어 이것을 組合하는 方法.

Pancl式, 바닥, 기둥, 벽을 片體部品으로하여 工場生産한 것을 現場에서 組立하는 方式.

Unit skelton式, 뼈대를 部分部分이 工場生産하여 現場에서 組立하는 方法.

이러한 部品化을 行하는데 必要한 問題는 먼저 치수 測定의 統一 즉 모듈制定이 先行되어야하며, 基本이 되는 部品을 決定하여야 한다. 벽, 바닥, 기둥, 계단등 構成方式에 따라서 種類가 다르나 現代建築으로서는 人間의 動作치수의 直接關連된 部品の 크기가 重視되어야 한다.

이와 密接하게 關係되는 다음 題目이 別途로 提示된다.

3. 建築生産의 機械化 乃至 現代化

建物は 漸次로 高層化되어가고 平面的으로 擴大되어

가는데 生産方式은 如前이 手工業方式인 現狀이다. 나 무로된 비제에 박사와 콘크리트타워가 唯一한 方法이다 建築業者들의 質的向上은 그대로 生産되는 建築物의 質的向上이 된다. 重點級 크레인이나 스타링폼이나 뉴 마틱 콘크리트마신이나 레이콘등 發達된 施工機械의 早速한 導入으로 建築의 質과 速度와 原價問題를 解決해야 된다. 흔히 建築業界의 發達狀況을 建立된 建築物의 面積量만으로 따지고 있으나, 이 보다 더 重要한 것은 價이 얼마나 向上되었느냐, 速度가 몇 배 빨라졌느냐 얼마나 經濟的으로 低廉하게 되었느냐가 同時에 評價되어야 한다.

끝으로 建築技術問題에 限하여서는 거이 論議할 必要없이 上位水準이라고 보면 남은 問題는 建築政策上 問題로 住宅問題, 커뮤니티建設 나아가서는 都市再開發과 國土計劃樹立에 對한 問題들이다.

住宅問題는 이미 여러 角度로 檢討되어 綜合計劃이 樹立되고 있는 듯하다.

1961年 6月 유네브에서 採擇된 ILO總會에서의 「國家住宅政策의 目的」에 적혀있는 事項이 가장 適切하다 既存住宅 및 關聯社會 施設의 維持, 改善 그리고 近代化에 對한 特別한 考慮와 入住者 收入의 適當한 比例로되는 賃賃料 健全한 都市, 地域 및 地方計劃의 遂行과 步調를 같이하여야 할 것들이 그 重要한 事項이다. 우리나라 經濟開發 計劃에서 疑心스러운 點은 產

業을 어떠한 方向으로 伸張시키고 社會的인 生産力을 擴大시키느냐 하는 觀點이 重視되고 地域社會의 整備라는 都市計劃의 本來의 目的이든가 이것과 調和를 이룰수 있는 住宅需給關係와는 何等的 有機性을 띄이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또 地域社會 開發의 基本方向도 뒤떨어진 地域의 農業生産을 大消費地와 結付시켜서 大都市에 過剩集中한 工業을 後背地의 未開發 地域에 分散하는 過程을 통하여 後進地의 所得을 높이는 可能性을 찾아야 할 터인데 이 亦是 이러한 技術的 問題보다 더 政治的 作用이 強한 느낌이 없지않다.

서울市도 首都로서의 面貌를 갖추게 爲 再整備를 서두르고 있다. 그 成果도 놀랄만하다고 認定된다. 그러나 恒常 念慮 스러운것은 土地利用의 企業性만 追求하는 나머지 全體都市機能이 麻痺되지 않나하는 點이다 住宅園地나 工業園地의 造成은 都市活動의 一部를 既存 커뮤니티에서 分離하여 다른場所에 獨立한 閉鎖的 機能으로 純粹培養하는 것이기 때문에 比較的簡單하나 都市再開發은 좀더 複雜한 多次元의 構成으로 되어 있다. 모든 既存都市 施設의 언바란스, 交通機關의 平均치 못한 發展에 따르는 矛盾, 都市內 生活者의 職業分配의 不均衡에서 오는 經濟的 疲絀 그리고 또 都市景觀에 對한 無秩序는 露呈하는 矛盾이다. 앞으로 이 點 亦是 專門家들의 充分한 研究로 圓滑한 發展이 期待된다.

☆

☆

☆

(13페이지에서 계속)

施工上의 主의點은 蛭石을 充分히 흡수시켰다가 乾져 씨멘트나 석회와 혼합하여 소모두께로 바르면된다. 기 타는 一般올달의 施工방법과 同一하다.

※蛭石부력

蛭石부력이란 一般的으로 고층빌딩의 間벽용으로 사 용되며 保溫 保冷工事의 二重壁 内部用으로도 使用된다. 蛭石부력의 特性으로 輕量性이고 斷熱 耐火性을 지닌 特殊부력이다.

(1) 特性과 종류

品 種	規 格	무 重 (Kg)	압축강도 kg/cm ²	열관류율 kcal/m ² h°C
질석부력	8 \times 397 \times 194 \times 194	9	25	1.00
〃	6 \times 397 \times 194 \times 143	7	25	1.50
〃	4 \times 397 \times 194 \times 92	5	20	1.70
질석부력	210 \times 100 \times 60	1.5	20	0.60

蛭石電着塗裝

蛭石骨材를 電子發生機에 依하여 各粒子를 飛昇시켜

天井이나 壁體에 電着시키는 工法이다. 乾작도장은 다 음과 같은 特性을 지니고 있다.

- ① 防音 結露防止 耐火 放射線 차단 등의 效果.
- ② 어떠한 상태의 面에도 施工이 可能하다.
- ③ 施工期間을 매우 단축시킬수 있다.
- ④ 蛭石自體의 色體로서 不變의인 美를 가진다.

乾작도장의 吸音率

周波數	125	250	500	1000	2000	4000
吸音率	0.31	0.32	0.52	0.81	0.88	0.84

以上과 같이 蛭石이 建築材로서 利用되는 分野를 大別하여 說明하였으나 앞으로 蛭石을 利用한 많은 새로운 材料가 研究生産 될 것으로 보고 또 生産者로서 보 다 새로고 優秀한 材料를 生産 보급할것을 附言한다.

筆者 三安蛭石株式會社常務理事

日本六大特許品 <現品入荷 販賣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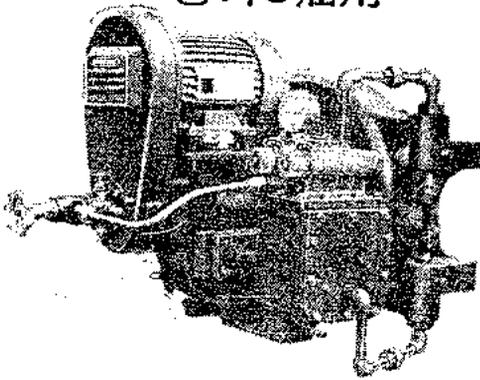
関西オйлバナ

用途:

石油——
——輕油——
——重油
방카C油用

高層建物大型보이러—
로—타를키른等一切
工業用各種보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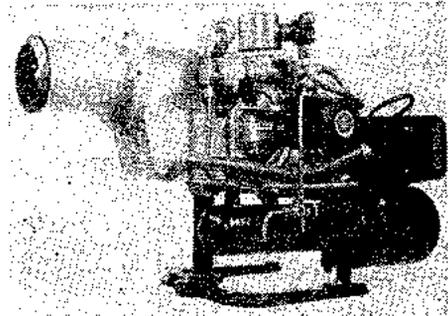
金屬爐 加熱爐 窯業爐



MR型 로—타리 바—나
燃油量: 5~800 l/Hr

<高麗石綿고무工業株式會社>

1日 4.5噸의 無煙炭이 1日 5.5드람의
방카C油로 對替되었다.



MG-RB. NB型
메카니칼 건바나
熱油量: 3~100 l/Hr

切半價의節約!

使用實績表

費目	無煙炭使用時	방카-C油轉換後	節約金額
燃料代	石炭 ₩2,600×4.5屯× 30日=₩351,000	C油 ₩1,100×5.5드람 ×30日=₩181,500	₩169,500
人件費	汽罐室人員 ₩10,000×5人 =₩50,000	₩10,000×2人 =₩20,000	₩30,000
炭灰處理費	₩115×130屯 =₩14,950		₩14,950
合計	415,950	201,500	214,450

日本六大特許品 <現品入荷 販賣中>

関西오일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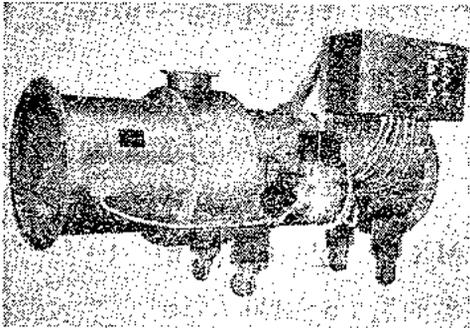
石油——
——輕油——
——重油
방카C油用

MG型 건타일바나

家庭用溫水보이러

小型스팀보이러

燃油量：1~60 l/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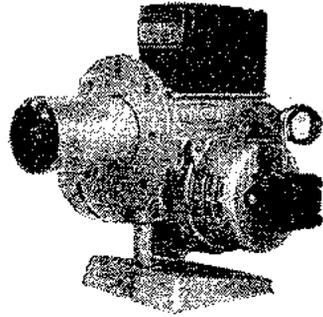


HFC型 熱風發生裝置

乾燥用……食品, 漁物, 煙草, 藥品 等 乾燥一切

暖房用……高級住宅, 營業場所 等 暖房

燃油量……1~20 l/Hr 暖房面積：300坪까지(1台로)



特
許
內
容

- 1……100%完全燃燒, 煤煙全無, 消費油量20%節減
- 2……二重安全裝置로 爆發等 不意의 事故防止
- 3……完全自動裝置로 調節正確, 無人運轉
- 4……騒音없이, 無脈動燃燒(燃燒狀態가 均一함)
- 5……故障全無, 壽命保障
- 6……取扱 簡便하여 婦女子도 取扱할 수 있음

特異點：노즐·펌프·리레이·사모스탯트等은 世界第一인 DANFOSS 會社製임

技術指導：六大特許의 考案者인 日本人 熱管理師가 諮問에 應하며 責任設計함
附屬도 계속 供給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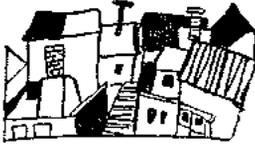
保障：設置後 1年間 無料 애후터·서비스함

輸入元 大有洋行 서울·中區小公洞21(三和빌딩509號)
22-2805·22-7331·53-9254

日本오일바나製造界元祖·六大特許權保有

製造元 日本 關西重油爐製作所

都市住宅 供給方案의 考察



大韓住宅公社 洪 思 天
建 築 理 事

1. 住生活의 意義

現代라는 世代에 存在하는 人間의 住宅觀念은 옛날의 그것과는 아주 다른 樣相을 나타내고 있음은 구비하여 여기 叙述하지 않아도 住宅에 對하여 關心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周知하고 있는 事實이다.

우리들은 지금 住宅에 對한 轉形期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社會를 發掘하려고 努力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人間은 天體의 하나인 地球의 表面 一部에 棲息하고 있는 動物이다. 우리들의 生活은 이 天文學의 環境의 支配를 받고 있다. 그것은 地球의 自轉과 地球의 太陽과 달, 다시 各 星體와의 關係속에서 生存하고 있는 것이다.

그 中에서도 特히 強하게 우리들의 生活에 作用하는 것은 그들 中에 있는 週期이다. 彗星이 나타나 우리들의 세계를 밝혀 주지 않는 限 自轉에서 일어나는 24時間, 달의 滿·朔·地球의 恒轉에서 일어나는 年輪인 것이다. 生理的으로도 男子는 年輪을 女子는 月을 週기로 하여 生存하고 있는 것들에 支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나이 죽임에 이르기까지의 一

生은 必然的으로 이러한 週期에 依하여 拘束되어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 男女老少 共히 特히 制約을 받는 것은 一日 24時間으로서 그 가운데 있는 낮과 밤인 것이다. 밤이 좋다거나 낮이 좋다거나 하는 斷片的인 個個人의 생각에 관계 없이 週期的으로 連結되는 이러한 自然的인 關係를 떠날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自然的인 確固不同한 條件속에서 또 다르게 發生되는 人爲的인 與件, 即, 政治, 社會, 經濟의 廣範圍한 問題 外에 個人의 性格, 個人의 身體的인 差異, 生存의 手段에 由 因 登揚한 生活根據地 또는 生活方式 時代的으로 變貌하는 思考 等に 따라 거기에 알맞게 計劃 되므로써 米로소 住宅은 그 참된 價値가 發揮되고 住宅本來가 지니는 機能을 다할수 있는 길이 될것이다.

勿論 生活自體도 重複되는 事項이 많다. 假令 人間이 生活을 營爲하는 狀態를 段階別로 分類한다면 一段階의 生活을 生理的인 生活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動物도 並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24時間中 分割되어 每日 返復 되고 있다.

다음에 생각 할수 있는 것은 보다 좋은 生活을 하고자 하는 慾望을 充足하는 問題이다. 生理的인 生活이 보다 充分하게 보다 安樂하게 이루어 지도록 생각한

生活의 分類

生 活 區 分		生 活 內 容	
第 一 生 活	休 養 採 食 排 泄 生 殖	就寢이나, 기대거나, 걸터 앉는다. 餓饑을 없앤다(飲食),嗜好, 哺乳 大小便, 洗面, 沐浴. 妊娠, 分娩	
第 二 生 活	家 生 生 交 消 費	炊事, 洗濯, 掃除, 整頓 育兒 消費材의 生産, 生産材의 生産 賣買, 運搬, 貯藏	
第 三 生 活	表 創 遊 戲 膜 想	言語, 書畫, 造形. 藝術, 科學 體育, 娛樂, 慰樂 哲學, 宗教.	

다른지 만들든지 하여 이 目的을 達成코저 한다. 이 合目的인 生活, 이것은 主로 物件을 相對로 한 生活인데 이것을 第二生活이라고 하자. 이 第二의 生活은 第一의 生活을 前提로 하여 存在하지만 第二生活中에는 第一의 生活이 關聯을 맺는 다고는 할 수 없다. “침식을 잇고 일한다”는 言語가 一端의 解說을 하고 있는 것이다. 第二生活은 第二生活만으로서 發展되어 가는 部面을 갖고있다. 所謂 이것은 經濟法則의 支配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人間에게는 위에 列擧한 第1,2生活과 같이 本能的이라든지, 合目的인 行爲뿐만 있는 것이 아니다.

第1,2의 生活은 第三生活을 爲한 基礎로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이 人間이 다른 動物과 다른 點이라고 할때, 人間이 起居하는 住宅이 갖는 使命은 浬것이더 이 三段階의 慾求를 充分히 滿足시켜 줄 수 있는 住居問題의 解決이 參與 住居問題의 解決이라고 前提하고 싶다.

그 집의 狀態야 어찌 하든지 한 世帶가 하나의 住宅을 가졌다고 住宅問題가 解決되었다고 생각하던 時期는 이미 지나갔다. 現代가 要求하는 住宅의 條件을 올바르게 分析하여 住宅의 需要를 供給하는것 만이 住宅問題를 完全解決하였다고 보는 것이 原則일 것이다.

2. 韓國의 住宅現況

우리나라는 第二次大戰 以後 世界 共通의으로 當面하고 있는 住宅問題中에서도 가장 深刻한 住宅 不足狀에 當面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여 우리 나라의 住宅은 量的인 不足과 質的인 不足을 同時에 겪고 있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量的인 面에서 본다면 1965年末 現在 全國人口數 28,667,782人에 對하여 家口數가 4,895,905로서 이 家口數가 住宅需要數로 되는데 全國의 現存住宅數는 3,868,107戶로서 不足住宅數는 1,272,140으로 나타나 不足率은 26%나 된다.

특히 都市部의 事情을 보면 서울이 需要數(家數) 676,511에 對하여 現存 住宅數 345,651戶로서 不足率은 59.36%이고 釜山이 需要數 257,730에 對하여 現存住宅數 157,301戶로서 59.50%의 不足率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 나라의 2大都市는 半數 以上이 無住宅者고 全國的으로는 4分之1의 家口가 無住宅者에서 生活하고 있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勿論 無住宅者中에는 住宅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창고, 폐차, 선상, 토굴, 방공호 등을 一時的인 生活地로 利用하고 있는 數萬家口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住宅을

所有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여러 일단은 前述한 住宅의 量的인 不足數를 두고 住宅의 質的인 充足을 計劃해야 될 것이다.

質的인 面에서 볼때 科學的인 뚜렷한 數值的 根據는 없으나마 都市部의 1.2坪이라는 居住面積과 農村部의 1.7坪이라는 居住面積은 狹少하기 이물데 있으며 農村住宅이나 都市部의 老朽古屋의 狀態를 우리는 直接的으로 觀察하고 있기 때문에 住宅質의 劣等에 對한 것은 關心있는 사람이면 짐작할 수 있는 狀態다. 벌써 6年前의 일이지만 1960年 人口 住宅 國勢調查에서 나타난 住宅의 樣相을 보면 沐浴室이 있는 집이 全國的으로 82,000戶 水洗式便所를 利用하고 있는 집이 全國的으로 4,000戶 밖에 되지 않는다는 數值이고 보면 얼마나 住宅生活의 水準이 낮은가 하는것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토록 우리나라의 住宅問題가 심각하로록 된 要因에 對한 것은 歷史的인 것을 背景으로 政治, 社會, 經濟的인 面 共히 不得已였던 問題들을 들 수 있지만 現實과 같은 極限狀況下에서 어떻게 하면 이 問題를 어느 程度의 段階에 까지 올려 놓는가 하는 問題는 政府를 爲始하여 이 方面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은 勿論이려니와 온 國民이 스스로 責任感을 갖고 努力하는 眞만이 解決의 키가 될 것이다.

3. 都市住宅의 供給方案

가. 問題點

人類가 現代의인 文明을 순식간에 抹殺할 수 있는 核爆發 可能性에 못지않게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을 人口爆發이라 하였고 人口의 爆發은 곧 都市人口의 爆發이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60년부터 1966年間 每年 全國的으로 平均 2.7%의 人口 增加 現象을 나타내었고 서울은 같은 期間동안 每年 平均 7.8%라는 人口增加 現象을 나타내었다고 1966年 人口調查結果를 發表하였다.

이러한 人口增加, 現象, 特히 都市部의 人口 社會增加로 惹起되는 여러가지 問題中에서도 住宅問題는 어느 다른 問題보다도 重要하게 다루어 지지 않으면 안되도록 된 것은 뚜렷한 現實問題이지만 住宅을 建設하기 爲하여는 一時에 巨大한 資本이 所要되고 附隨的으로 所要되는 住宅建設用地, 資材, 人力(特히 技能工) 등도 必須的으로 浬 마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볼때 住宅問題를 解決하기 爲해 動員되어야 할 이러한 與件들이 浬 받침이 되어야 하는 問題도 現時點에서는 檢討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1910年 以後 60餘年間 서울市는 여러차례에 걸쳐 市

域을擴張하였으나 現在의 人口密度는 1km²當 6,000名以上을 헤아리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人口의 急激한 增加가 豫想되므로서 이들을 收容할 住宅問題, 現在에도 不足한 住宅問題 이두가지의 解決에 所要되는 土地를 비롯한 住宅建築에 뛰어나야할 諸問題를 어떠한 方向으로 이끌어 나갈것인가가 큰 課題로 登場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交通問題, 上下水道, 電氣 等の 附帶施設問題만 해도 지금 當장 難問題로 提起되고 있는 판국인데 앞으로는 설사 住宅의 建築問題는 順調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대로 그냥 넘길수 없는 것은 都市의 內外廓에 잔식하여 갖가지 社會惡을 造成하고 있는 無許可 不良住宅群의 問題와 現在 치솟고 있는 高層建物群 그 中에서도 아파트 問題인 것이다.

不良住宅의 경우 1967年8月 現在 市所有地 100萬坪을 他人이 無斷占有하고 있다고 發表하였고 1967年의 選舉를 契機로 不良住宅 陽性化라는 것을 내세워 몇몇 地區에 對하여는 이미 行政措置를 했다고 들고 있다. 바로 이것이 부제인 것이다. 우선 陽性化고 陰性化를 論하기 前에 現在까지 無許可不良住宅이 散在한 地域은 都市健康上 必然의으로 있어야 할 公園, 風致地區가 大部分이다. 元來 計劃된 部分으로 딱쳐도 公園이 보자라서 숨막히는 都市生活을 해야하는 판인데 또다시 이런 지역을 住宅地로서 用途廢止해 버린다면 都市健康에 障害가 될 것은 뻔한 일이며 現在 形成된 不良住宅群은 지금 當장 陽性化 되므로서 새롭게 집을 단장하고 改築을하여 外觀上 불붙은 住宅이 된다고해도 各戶가 所有한 좁은 空地 地域內이 街路網은 原狀態 그대로 있어야 할 판이니 保安上의 問題는 全然 考慮되지 않았다고 해도 過當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다 지금 當장도 低地帶마저 上水道事情이 좋지 않아 조금만 가물면 갈증을 면치 못해 허덕이는데 高地帶까지 떨어 올라간 이 地域의 上水道施設은 어떻게 할것이며 또 下水道問題는 어떻게 處理할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그리고 不良住宅地區 住民에 對한 善處問題가 있다. 嚴格히 따진다면 市가 所有하고 있는 땅은 全市民의 땅이고 國家가 所有하고 있는 땅은 國家의 땅이다. 이러한 市有地나 國有地를 任意로 占據한 그 自體는 違法이다. 이러한 犯法行爲者에 對하여 國家가 犯法을 陽性化해 준다는 것은 考慮해볼 問題가 아닌가 한다. 勿論 政策的인 面을 考慮하여 行해지는 일이지는 하지만 尤도, 公的인 土地上에 不法으로 占有하여 自己의 緣故를 主張하는 사람에게만 住居問題를 解決해 주어야

한다는 慣例를 남겨서는 안될 일이 아닌가 한다. 同一한 收入으로 同一한 家族을 이끌고 살아가면서도 月賃집에 들어가 每月 賃料 물고 사는 無住宅者는 그대로 賃집에서 피나는 努力과 契約으로 住宅購得費를 數年에 걸쳐 장만하려고 애쓰고 같은 條件下에서도 눈치 빠른 사람은 公有地에 占據하여 陽性化의 惡澤으로 占有하고 있는 土地에 對한 緣故權을 認定받아 善良한 無住宅者들의 不平의 的이 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現在施行하고 있는 高層化問題에 對하여도 現行制度에 對한것을 檢討해 보지 않을수 없다.

먼저 不良住宅地區의 再開發을 爲한 高層化 問題이다. 이 問題는 앞에서 不良住宅地區 陽性化問題에서 言及한 것 以外에 또 다른 問題가 생겨 나는 것이다. 우선 이 地域의 原住民에게 緣故權을 認定해 주었을때 그 住民들의 入住金 負擔能力 問題를 생각 해야 한다. 多幸히 入住金을 負擔할 能力이 있어 그곳 住民들이 入任을 해 버린다면 問題는 없었지만 이것이 不可能할 경우 이들은 그 緣故權을 轉賣하고 다른 곳으로 移轉하여 새로운 不良住宅地區를 形成할 可能性이 多分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不良住宅 建設을 獎勵하는 結果가 될 우려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小型아파트나 商街아파트의 경우 지금 當장은 生活根據地問題나 密集된 都市의 住宅難 때문에 人氣가 좋다고 하여 滿距할 것은 못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住宅이란 半永久保存物이다. 지금 當장 눈앞에 나타난 問題의 解決을 爲하여 將來에 닥쳐올 狀態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永遠히 住宅問題의 解決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마지막 해에 가서는 國民所得이 倍增한다고 한다. 우리의 생활은 說明 經濟發展이나 所得의 向上 없이도 10年來에 그 樣相을 달리 할것은 뚜렷한 觀測이다. 지금 當장 다급하다 하여 마구 지어는 小規模의 아파트나 商街兼用 아파트가 어느 時機에 가서 어떻게 取扱될 것인가 하는 問題에 對하여 올바르게 自信있게 觀測하지 않는限 그때에 가서 새롭게 계획해야 하는 問題가 생길때 그 後世들에게 맡겨 버린다고 하는 無責任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10年前만 해도 아무렇게도 앉았던 15m의 간선도로가 이제 50m로 늘어 나야하고 온돌이 아니면 뚝사는 줄만 알았던 습관이 순식간에 변해져 가고 있고 장독속에서만 存在하던 김치가 통조림으로 되어 나온 것은 最近 1,2年 사이이다.

강박으로 불을 짚이고 연탄으로만 난방이 가능하다

고만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石油로 바뀌어 가고 瓦斯로 바뀌어 간다.

이러한 여러가지 問題들에 當面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나. 供給方案의 檢討

現時點에서 都市住宅問題의 解決은 앞서 말했듯이 너무나 많은 問題點들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都市의 住宅問題를 解決하는 方案이란 단한가지 뿐이다. "人間이 生活하는데 便利한 집을 많이만 建設하면 되는 것이다."

現在의 都市를 再整備하고 人口의 增加狀을 考慮하여 高層化하고 住宅建築에 所要되는 많은 資材를 生産하고 住宅建築에 必要한 人員을 養成하고 새로이 建設되는 住宅地域에 對하여 快適한 住居環境을 造成하여 주고 交通問題, 上下水道, 電氣等的 附帶設施을 政府에서 뒷받침 해 주어 一般이 住宅을 建設할수 있는 條件을 造成해 주는 것만이 住宅問題를 圓滿히 解決하는 方案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모든 問題의 解決方案에는 더 具體的인 研究가 있어 하나 하나 仔細하게 論及되어야 겠으나 本稿에서는 問題點과 方向만을 提示하는데 그치려 한다. 다만 우리들의 생활의 最後의 目的은 自己保存과 自己發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로 住居生活의 要求되는 空間을 살피 보기로 한다.

人間은 自己保存을 爲하여는 生命을 維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를 爲해서는 먹어야 한다. 먹기 爲해서 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마련 하기 위하여 일을 한다. 일을 하기 위하여는 건강해야 한다. 건강하기 위하여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우리의 생활에는 "...을 爲하여"라는 것이 연속되어 있다.

住生活에 있어서도 亦是 마찬가지로 "...을 爲하여"라고 하는 各種行爲가 행해져서 그行爲의 可能性을 모색하기 爲한 準備를 必要로 하고 있다.

24時間 返復되는 行爲의 연속작용이 이루어 지는 속에서 自己保存과 自己發展의 場所로 提供되어야 할 住宅이 目的을 爲한 行動의 準備를 爲하여 얼마만치 效果的으로 提供되어야 하는가에 따라 住宅問題 解決의 程度가 決定될 것이다.

住居란 찬 土地에서는 따뜻하게, 미오는 때는 乾燥되어 있게끔, 더운 때에는 서늘하게 해 주는 장소로써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되며 밥을 짓기 위해서는 위험 없이 불이 때어져야 하고 잠 자려는 편안히 쉴수 있는 장소로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들의 五感에 依하여 即, 손으로 만져서 말로 밟아서 눈으로 보아서 귀로 들어서 코로 냄새를 맡아서 알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直接的으로 住居에 必要한 要素인 경우도 있고 間接的으로 派生되어 생기는 要素인 경우도 있다. 우리들은 먼저 肉體的으로 生理的으로 이러한 것을 느끼고 또 필요로 한다.

우리들은 또 行動에 依하여 그 作用을 爲한 必要한 空間도 생각 할수있다. 옷을 벗을 때 필요한 장소 사람이 물건을 갖고 드나들 문이나 통로의 폭 그러한 物理的 尺度로서 測定되는 空間도 알수있다.

世代的 變遷에 따라 變化되는 人間의 生活樣相, 科學文明이 發展됨에 따라 많이 所要되는 休息의 場所, 娛樂의 場所 등도 우리는 일단 主眼계획을 하는데도 考慮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은 建築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與件이요 宿題다.

자금은 집이 없어도 새로이 집을 가질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一般의 要求가 무엇인지 建築을 하는 사람은 알아야한다. 이러한 要求를 充足시켜 줄수 있는 計劃된 住宅이 建築될때 都市의 住宅問題도 解決되는 것이다.

建築家의 責任은 더 새로운 角度에서 무거워진 것이다. 時代的 轉換點에 서서 方向을 正確히 分析하여 精進하는것 만이 成功하는 길일 것이다.

신제품 안내 기러기표

(푸라스타일 „S" (Vinyl Asbestos T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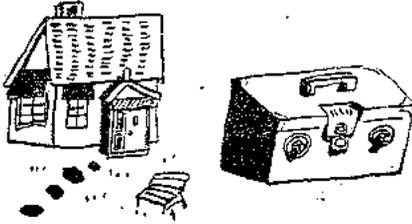
現在 歐美 各國 및 日本 等地의 建築界에서 Vinyl Asbestos Tile가 가장 優秀한 室內原材로서 널리 流行되고 있다.

이는 Vinyl Asbestos Tile가 原材로서 具備해야 할 鮮명한 色彩, 彈力性, 磨耗性, 耐水, 耐油, 耐酸性, 接着力 등이 從前의 아스팔트 타일에 비하여 越等히 優秀하기 때문이다.

和鴻푸라스타일工業社는 現代潮에 呼應하여 優秀한 國產原材를 生産供給모져 日本 三星푸라스타일 Co. 와 技術 提携(66.10.)하여 最新式 機械를 導入 國內 第一의 最新式施設을 完備하고 優秀한 幹部 技術陣이 來韓하여 一年餘 技術指導하여 왔으며 또한 同社 技術陣이 數次 渡日하여 完全한 技術을 習得하여 現在 外國製品에 比하여 優秀한 物品을 生産하고 있다. 特別 今般 生産되는 푸라스타일 „S" 는 새로운 Colour에 強度를 豊富히 調節하여 鮮明하고도 부드러운 現代의인 感覺을 滿足시켜 준다

住宅金庫를 통해서

당신도 집을 가질 수 있다



1. 住宅金庫의 設立目的과 性格

注意히 本論의인 營業內容의 紹介에 들어가기 앞서 住宅金庫의 設立動機와 아울러 그 設立目的과 性格을 인취두는 것이 理解를 돕구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우리나라 現在의 住宅事情은 住宅需要와 供給間의 顯著的 蹉跎로 말미암아 심각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1965年度末 現在 우리나라 住宅不足數는 127萬餘戶이고 每年 新規所要 住宅만도 16萬5千戶에 達하며 住宅不足率은 25.9%를 記錄하고 있는 實情이다. 第1次 5個年計劃期間中에 우리나라의 年平均 住宅投資率은 1.7%로서 外國의 例에 比하여 相當히 低調한 記錄을 示顯하고 있고 이 記錄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住宅需要와 供給間의 不均衡과 住宅投資의 不振 程度를 立證하여 주고 있다.

政府는 이와같은 住宅難의 解消를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1957年頃부터 住宅建設과 改良 및 住宅建設用 資材生産에 所要되는 資金供給을 目的으로 產業銀行을 通하여 住宅融資를 開始하였다. 融資에 所要되는 財源은 産業復興國庫 歸屬財產處理積立金 對充資金 및 一般財政資金으로 充當되었으나 住宅資金의 管理의 運用은 明確한 法的根據에 의하여 行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政府의 住宅事業計劃書와 韓美間의 PROAG (Projected Agreement) 內容에 따라 決定된 것을 產業銀行이 取扱한데 不週하다. 따라서 住宅資金 管理에 根據를 마련하여 주는 法定이 必要하게 되어 1963年 12月 7日에 住宅資金運用法이 制定되고 同施行令이 1966年 7月 11日에 公布되어 住宅資金 融資와 管理에 관한 法的 整備를 보게 되었고 住宅資金運用法施行令에

의하여 產業銀行이 住宅資金 融資業務를 取扱할 수 있는 法的根據가 비로소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產業銀行이 政府로부터 貸下받은 住宅資金의 管理業務는 政府(建設部長官)의 代行業務로서의 性格을 지녔고 그 業務는 融資와 管理代行에만 限定되었었다. 뿐만 아니라 住宅資金의 調達은 全的으로 政府의 貸下資金에 依存하는 形便이 있고 住宅難 解消를 위한 所要資金에 比하여 融資의 規模가 微弱했다. 產業銀行이 住宅融資를 開始한 以後 1966年度末 現在까지 10年間의 住宅資金貸出 累計額은 54億 8千萬원이고 이에 의하여 建設된 住宅戶數는 48,698戶에 不週하다.

이 程度의 資金規模와 住宅建設 實績으로는 每年 增加의 趨勢를 보이는 住宅需要를 供給하는데 寄與하는 바가 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住宅金融體制로는 產業銀行에 의한 自律的인 住宅資金 造成을 위한 計劃의 樹立과 實踐을 期할 수가 없다. 따라서 住宅建設 所要資金의 調達과 積極的인 住宅投資를 期待하기가 힘들것으로 豫想되고 第2次 5個年計劃에 計上된 83萬戶의 住宅建設과 住宅投資資金 345億원의 造成을 積極 支援하기가 困難할 것임은 明若燭火한 일이다.

그러므로 政府當局은 住宅資金의 造成과 資金의 效率의 管理와 運用을 目的으로 住宅金融機關으로서 住宅金庫의 設置를 構想하고 그 法定을 推進하여 오던 중 今年 3月 30日에 法律第1940號로 公布를 보게 되었다. 住宅金庫法의 施行에 따라 從前까지 住宅資金 運用에 대하여 規制하여 오던 住宅資金運用法은 廢棄되었고 產業銀行에 貸下된 住宅資金은 政府出資金으로 住宅金庫의 設立과 同時에 住宅金庫에 移替拂入하게 되고 住宅에 관한 事務도 住宅金庫가 이를 繼承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7月 10日에 開業式과 더불어 歷史的인 第一步를 내딛게된 住宅金庫의 設置目的은 「庶民住宅(아파트를 包含) 資金의 自助的造成을 뒷받침 하고 「住宅資金의 供給과 管理의 效率化」를 期하는데 있다. 달리말해서 住宅金庫는 民間資本動員에 依한 資金調達과 住宅基金回轉에 의한 資金 등으로 住宅資金을 自助的으로 造成擴大하고 自律的인 經營에 의한 庶民住宅金融의

効率의運用을 그目的으로 하고 있다.

住宅金庫는 庶民住宅 建設을 위한 住宅金融體系의 確立을 目的으로 特別法에 의하여 特殊法人形態로 設立되었기 때문에 公益事業의 性格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住宅金庫는 住宅資金의 調達을 目的으로 一般民衆으로부터 住宅賦金 및 預金の 受入과 住宅事業에 關聯된 貸出, 住宅債券 및 福券의 發行등 一般金融機關의 業務와 實質의 內容의 業務를 取扱하고 있다. 그러므로 住宅金庫는 그 名稱 如何에도 不拘하고 銀行法 第3條上의 金融機關인 것이다. 다만 一般 私法上의 金融機關과는 달리 營利追求는 第2次的인 目的으로 되어 있고 貸出의 目的範圍가 住宅建設部面에 限定되어 있는 點에서 그 特性이 나타나고 있다.

2. 住宅金庫의 主要業務

住宅金庫는 住宅事業에 必要한 資金의 調達과 供給을 目的으로 하므로 住宅金庫의 業務는 크게 「資金融資와 管理業務」「資金調達業務」「附帶業務」로 區分되고 性格上 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고 資本金의 過半數以上을 政府가 出資함으로써 法令上 金庫業務의 計劃과 그 執行에 關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要하는 경우가 많다.

業務範圍를 말하면 住宅金庫는 一般金融機關과는 달리 資金貸出은 住宅事業部面에 限定되어 있고 住宅資金의 融資의 管理를 主된 業務로 하고 있다.

住宅金庫가 融資와 管理를 할 수 있는 資金은

1) 住宅의 建設 新造住宅의 購入 및 空地造成에 關한 資金.

2) 標準設計로 된 小規模住宅 建設用機資材의 生産과 運用을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의 地方 中小企業者에 대하여 그 生産과 運用에 필요한 資金에 限定되어 있다.

住宅金庫는 住宅建設事業에 所要되는 資金調達을 目的으로

1) 住宅賦金 및 預金の 受入

2) 住宅債券의 發行

3) 住宅福券의 發行

業務를 取扱하고 있다.

住宅金庫는 法이 規定한 바에 따라 住宅資金融資에 關하여 「融資方法 利率期限과 元利金の 回收方法」과 「住宅賦金」 및 「預金受入에 關한 方法」등을 記載한 業務方法書를 作成하여 運營委員會(金庫의 住宅事業에 關하여 政策決定과 指示監督機關의 性格을 지닌 最高 議決機關으로서 9人的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의 議

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이를 實施하도록 되어 있다.

3. 融資를 받으려면

1) 融資對象者

住宅金庫의 融資대상자는 融資의 內容에 따라 公營住宅, 民營住宅, 空地造成, 機材生産의 四種으로 大別된다. 좀더 詳說하면

公營住宅은 公營住宅法에 依據 大韓住宅公社가 債務者가 되는 第一種 公營住宅資金融資와 地方自治團體가 債務者가 되는 第二種 公營資金融資로 分類된다.

民營住宅은 住宅債券買入者融資 住宅賦金加入者融資 一般個人 또는 組合融宅 建設業者融資로 分類되며

空地造成은 住宅을 新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供給함을 目的으로 1畧地 12,000平方미터(약 3,600坪)以上의 土地를 住宅建築에 適合하게 造成하는 경우에 融資하는데 融資對象者에 따라 公營과 民營으로 區分된다.

機材生産은 施設資金需要者와 運營資金需要者로 나누어 진다.

2) 住宅基準과 融資適格要件

住宅의 建設(住宅의 新築과 改良을 包含한다) 또는 購入資金을 融資함에 있어서 當該 住宅의 構造와 規模는 다음과 같이 制限된 範圍內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 建設할 住宅은 1戶當 또는 1家口當 建築面積이 66平方미터(20坪)以下이어야 한다.

나. 購入한 住宅은 防火構造 또는 耐火構造로서 1戶當 또는 1家口當 建築面積이 66平方미터(20坪)以下 空地面積이 230平方미터(70坪) 以下로서 建築된 後 1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住宅을 當該住宅建設者로부터 最初로 無住宅者가 購入하는 경우에 限한다.

公營住宅은 建設部長官의 融資推薦이 있어야 함으로 同推薦內容에 좃아 基準으로 삼는다.

融資對象者로서의 適格要件으로는

첫째 無住宅者이어야 하고

둘째 自己資金負擔能力 및 割賦金償還能力의 保有者이어야 한다. 즉 住居費로서 月收入의 約 25% 支出이 可能해야 한다.

셋째 當該住宅建設用 空지를 所有한 者이어야 한다.

넷째 住宅建設業者는 竣工時까지 必要한 財力 技術 經驗의 保有者로서 建設後 無住宅者에게 當該住宅을 供給할 經營組織과 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이어야 한다.

다섯째 職場別社宅 建設資金은 主要生産 業體 教育 및 福祉機關 軍容接應對象者 公認團體로서 從業員數가 100人 以上인 團體이어야 한다.

여섯째 垆地造成資金은 1圓地가 12,000平方미터(3.6 00坪) 以上 이어야 하고 住宅建設用垆地에 適合한 垆地의 所有者 이어야 한다.

일곱째 建設用機資材 生産資金 融資對象者는 標準設計로 된 小規模住宅建設用 機資材를 生産 또는 運用하는 者 이어야 하고 生産된 機資材는 다른 製品보다 低廉하고 그 効用度가 越等 하셔야 하며 財力과 經營能力에 비추어 元金을 償還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者이어야 한다. 對象에는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도 包含된다. 그런데 住宅金庫의 今年度 業務計劃에는 이에 대한 融資가 計上되어 있지 않다.

3) 融資限度

公營住宅은 第一種(住宅公社) 및 第二種(地方自治團體) 共히 公營住宅法에 依하여 建設部長官이 融資 推薦한 金額의 範圍內에서 住宅金庫가 이를 決定한다.

住宅債券買入者에 대한 融資는 住宅債券 發行 條件에 따라 決定하기로 되어있다.

住宅賦金加入者에 對한 融資는 住宅賦金約款에 따라 定해 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즉 住宅賦金の 契約期間이 一年制인 경우에는 賦金契約金額과 同額의 融資 一年半期인 경우에는 1.5倍, 二年制인 경우에는 2倍의 融資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現行 住宅賦金の 種類는 5萬圓 10萬圓 20萬圓 30萬圓의 4種이 있다. 그리고 今年度の 住宅標準設計 建築單價가 約 35,000圓 程度이므로 20坪住宅을 建築할려면 附帶費(울담 大門 장독대를 兼한 倉庫等) 까지 合쳐 80萬圓은 필터이니 그것의 80%이면 64萬圓임으로 1戶當 60萬圓(住宅賦金 30萬圓 加入者) 이 最高融資額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住宅賦金加入者에 대하여 優先的으로 融資하고 있을 뿐 아니라 賦金契約期間滿了者에게는 約款에 義務的(確定的)으로 融資하도록 되어 있다. 住宅金庫의 資金事情에 따라 賦金契約期間滿了前에도 融資하기로 되어있어 方今 殺到한 同融資申請을 接受處理中에 있다. 다만 賦金契約期間滿了後 融資者에 對하여는 優待하는 뜻에서 年 10%의 低金利를 適用하지만 前融資者에 對하여는 賦金契約期間滿了時 또는 最終回賦金拂入日後 1個月까지 年 20%의 金利를 適用토록 되어 있다.

住宅賦金月賦金 및 融資金表

契約期間	契約金額 區分				
	5萬圓	10萬圓	20萬圓	30萬圓	
1 年制	月賦金	3,895	7,790	15,580	23,370
	融資金	50,000	100,000	200,000	300,000
1 年半制	月賦金	2,510	5,020	1,040	15,060
	融資金	75,000	150,000	300,000	450,000
2 年制	月賦金	1,820	3,640	7,280	10,920
	融資金	100,000	200,000	400,000	600,000

위 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每月 10,920圓의 月賦金을 2年동안 꾸준히 부어나가면 融資金 60萬圓과 住宅賦金 契約金 30萬圓을 合쳐 90萬圓을 住宅建築資金에 充當할 수가 있다.

一般個人 또는 組合에 대한 融資는 1戶當 標準新築費 또는 總所要資金査定額의 80% 以內에서 決定한다.

建設業者에 대한 融資도 1戶當 標準新築費 또는 總所要資金査定額의 80% 以內이다.

垆地造成資金融資는 垆地의 整地工事に 所要될 査定所要資金의 範圍內에서 決定한다.

機資材生産資金融資는 住宅建設用 機資材生産을 위한 施設 또는 運營의 實際所要資金 및 一回轉所要資金査定額의 70% 以內에서 決定한다.

4) 融資期間 및 利率

公營住宅... 融資期間 15年 利率은 年 8%

住宅債券買入者... 融資期間 15年 利率은 年 10%

住宅賦金加入者... 融資期間 15年 利率은 滿期後融資에 對하여는 年 10%이나 滿期前 融資에 對하여는 滿期日 또는 最終回賦金拂入後 1個月까지는 年 20% 그以後는 年 10%를 適用키로 되어 있다.

一般個人 또는 組合... 融資期間 15年 利率은 年 10%

建築業者... 融資期間 3年以內 利率은 年 26%

垆地造成... 融資期間 2年以內 利率은 公營에 對하여는 年 10% 民營은 年 26%이다.

機資材生産... 施設資金은 融資期間 5年以內 利率 年 15%이고 勤營資金은 融資期間 2年以內 利率 年 26%이다.

5) 融資 및 償還方法

가. 融資形成

住宅資金融資... 割賦償還證書貸出

機資材施設資金融資... 同上

垆地造成資金融資... 定期償還證書貸出 또는 어음 貸出

機資材生産(運營)資金融資…同 上

建築業者資金融資…同 上

나. 償還方法

割賦貸出은 一個月拂 二個月拂 三個月拂 元利均等償還으로 되어있다.

三個月拂割賦金表

償還期間 15年(据置 9個月)基準

利率	200,000 원	300,000 원	400,000 원	500,000 원	600,000 원
年10%	6,620	9,931	13,241	16,551	19,861
年26%	13,369	20,054	26,738	33,423	40,107

그러면 住宅賦金加入者로서 賦金契約期間滿了前融資에 대한 拂入金額은 얼마가 될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上述한 바와 같이 年 20%를 適用키로 되어 있으므로 上掲表의 年 10% 該當 割賦金以外에 殘元金에 대한 年 10% 利子를 追加하면 된다. 例示하건대 30萬원 融資의 3個月拂인 경우에는 3個月의 割賦金(元利金) 9,931원이다. 10% 該當利子 7,500원(300,000원×10%×3/12)을 合쳐 17,431원을 負擔해야 한다. 거기에서 加入한 住宅賦金의 月賦金도 포락포락 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滿期前融資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相當한 收入 바꿔말해서 負擔能力이 커야한다는 것을 留意해야 할것이다.

5) 民營住宅資金の 垆地選定基準

가. 立地條件

住宅垆地로서의 需要성이 旺盛하며 擔保價値가 充分하고 市行政區域內에 位置하여 交通이 便利하고 高壓線 地下케-블線, 火藥庫등이 없는 場所이어야 한다.

나. 垆地條件

道路計劃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垆地의 形態가 造成에 용이하며 建設의 經濟性에 適合해야 한다. 그리고 水道排水 電氣架設이 容易해야 한다.

다. 垆地面積

一戶當 最少垆地面積은 25坪以上 또는 建築面積의 2.5倍以上이어야 한다.

6) 資融金管理

融資金의 效率的인 使用管理를 위하여 住宅金庫法 施行令 第16條에 依據 申請者가 負擔하여야 할 自己資金과 合쳐 融資金은 申請者名義의 與信管理資金 計座를 設置하여 이를 移管하고 所定工事의 既成高檢査(工程을 6단계로 나누어 3回以上 分割支出)에 따라 引出할 수 있도록 制限되어 있다. 이制度는 더할할 나위도 없

이 融資金이 約定된 資金用途에만 充當되게 함으로써 所定의 住宅工事を 원활하고도 신속히 完成케 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7) 融資節次

먼저 融資申請者가 「住宅建設垆地調查申請書」(金庫의 制定書式)를 住宅金庫의 營業部나 地方의 代理店에 提出한다. 同 申請書에는 敷地證明書 一通 垆地位置案內圖 一通을 첨부해야 한다.

垆地調査에 合格된 申請者는 「民營住宅建設資金融資申請書」(金庫의 制定書式)를 提出해야 하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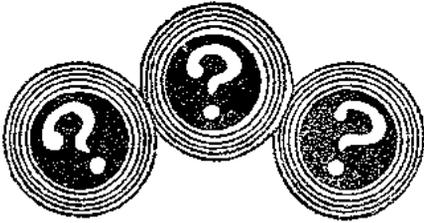
添 附 書 類	個人	組合	社宅
住民登錄票謄本	○	○	
所得稅納付證明 또는 在職證明書	○	○	
無住宅誓約書(所定樣式) 또는 無住宅證明書	○	○	
土地登記簿謄本	○	○	○
組合創立會會議錄		○	
組合規約(所定樣式)		○	
地籍略寫圖	○	○	○
土地台帳謄本(分割로 因하여 變動이 있는에 限함)	○	○	○
附近案內圖	○	○	○
會社登記簿謄本			○
會社定款			○
財務諸表(所定樣式)			○
起債決議書			○

上記 融資申請書를 接受한 住宅金庫에서는 垆地 評價鑑定을 實施하는 同時에 金庫의 標準設計 또는 申請者의 設計에 의한 構造를 技術檢討하고 正確한 所要資金을 査定한다.

金庫에서는 建物 및 附帶施設의 後取擔保豫想價格은 所要資金査定額으로 하고 있다.

融資申請書를 審査한 後 融資承認이 내리면 先取擔保(垆地)의 債權保全節次(融資金의 150% 該當額을 最高額으로한 第1順位 根抵當權設定)를 畢한 後 비로소 起票하고 申請者가 負擔할 所定의 自己資金과 合쳐 同 融資金은 申請者名義의 管理計座에 預置하게 된다. 建物이 竣工되면 即時 後取擔保로서 追加設定해야 한다. 그리고 組合에 있어서는 垆地를 組合員個人別로 分割登記해서 個人別貸出金에 따라 根抵當權을 設定토록 되어 있다.

質 疑 應 答



〈문 1〉 建築行政에 關한 質疑(경남도시 444. 1-1101. 66. 9. 23)

建築許可 事務取扱上 다음과 같은 疑問點이 있어 質疑하오니 조속 回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建築法 第8條 및 同 施行令 第7條의 公用建築物에 對한 特例에 依하면 國家 또는 公共團體라 하였는데 國家機關 또는 行政機關인 地方自治團體 이외 農協, 土地改良組合, 山林組合, 漁業組合, 畜産組合, 私立中高等學校, 教會 등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2. 建築士法 第5條에 依하면 設計 또는 工事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規定되어 있는데 國民學校 및 高等學校(公立)校舍를 新築하는데 있어서 營繕技士가 製作한 設計圖書로서 工事監理 및 建築法 第8條에 의거 處理할수 있는지 여부.

〈답 1〉 建築行政에 關한 質疑回示(건국시 444. 1-635 66. 10. 15)

慶南道市 444. 1-1101(66. 9. 23)로 質疑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回示하오니 양지 하시압.

1. 建築法 第8條 및 同法 施行令 第7條의 規定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者에게 適用 할 수 없음.

2. 建築法 第8條에 規定한 公共建築物이라 할지라도 建築士法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建築物일 경우에는 建築士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의 免許를 받은 者가 아니면 設計 및 工事監理를 할수 없는 것임.

〈문 2〉 建築士法에 對한 質疑(文企劃 810-790 66. 8. 31)

建築士가 아닌 建築職 公務員이 建築士法 第4條, 第5條의 建築工事의 設計 및 工事監理를 行

함이 關係法規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위배된다면 기왕에 行한 설계 및 工事監理 및 完成된 建造物(工事代金支拂 포함)등이 法律的으로 여하한 影響을 받는것인지를 質疑하오니 조속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當部意見(文教部)

建築士가 아닌 건축직 공무원이 設計 및 工事監理를 行함은 建築士法 第4條 第5條에 對한 例外規定이나 經過規定이 없는 現行法 體制下에서는 위법이라고 사료하며 기왕의 設計, 工事監理 및 이를 基礎로한 工事代金支拂등은 設計 및 工事監理가 事實行爲이므로 法律的 效力에는 影響이 없다고 봅니다.

〈답 2〉 建築士法에 對한 質疑 回信(건국시 44 4. 1-507 66. 9. 13)

문기회 810-790(66. 8. 31)로 質疑 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回示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貴部 意見과 같음.

〈문 3〉 建築士法 및 建築法 運用質疑(강원지역 444. 1-1275, 66. 7. 27)

건국시 444. 1-1171(66. 3. 21)의 關聯으로 다음과 같이 質疑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回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國家가 採用한(建築士가 아닌) 建築職 公務員이 建築法 第7條에 의거 同法 第8條에 依한 公共建築物 또 其他 建築物의 준공 檢사를 할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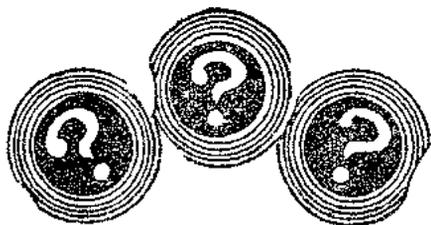
2. 國家가 採用한(建築士가 아닌者) 建築職 公務員 建築技士, 建築技佐는 建築士法 第7條의 規定을 불구하고 建築士法 第4條 및 第5條에 規定한 建築物이라도 設計 또는 工事監理할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여하.

〈답 3〉 建築士法 및 建築法 運用質疑回信(건국시 444. 1-341. 66. 8. 10)

강원지역 444. 1-1275(66. 7. 27)로 質疑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回示함.

建築法 第3條에 規定한 公用建築物이라도 建

質 疑 應 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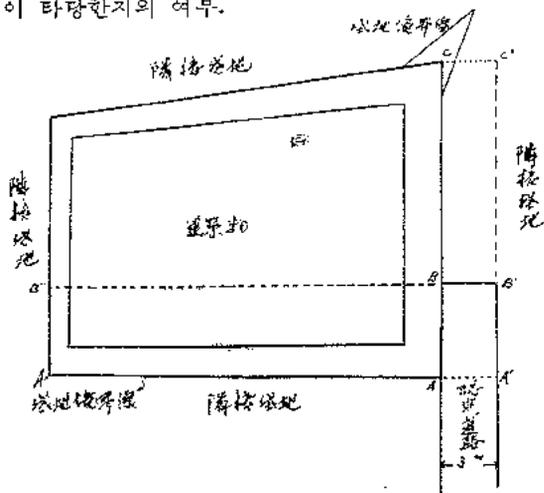


築士法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가 아니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할수 없는 것임.

〈문 4〉 建築法 運用에 對한 質疑(서도건810-12 65 66. 6. 18)

1. 建築法 第41條 도로쪽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質疑하오니 回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建築法 第41條 第1項 및 第2項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도면표시와 같이 3면이 인접대지에 둘러 쌓여 있고, 다른 1면 만이 막다른 道路에 접하였을 경우 도로쪽에 의한 建築物의 各部分의 높이 制限은 아래 1, 2, 3項 中 어느 項을 적용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1) A, A'~B, B'點 區間만을 前面道路로 보고 이에 接하는 建築物 部分에 限하여 建築物의 높이 制限이 適用되는지?

(2) A, A'~C, C'點까지를 延長하여 前面道路로 看做하여 建築物의 높이 制限을 適用할 것인지?

(3) A, A'~B, B'點까지 延長한것을 前面道路의 쪽으로 看做하여 建築物의 높이를 制限할 것인지?

〈답 4〉 建築法 運用에 對한 質疑回信(건국시 444. 1~226. 66. 6. 25)

서도건 810~1265(66. 6. 18)로 質疑한데 대하여는 現存道路(길의 2향 A, A'~CC')의 쪽에 의하여 建築物의 높이를 制限함이 가함.

〈문 5〉 建築許可에 對한 質疑(光州市사동 고성氏 66. 6. 25)

위의 件에 關하여 光州市의 建築行政에 對한 法解釋에 意見의 差異가 있어 質疑하오니 回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教育區內에 있어 建築法 施行令 第114條 第5項에 該當치 않는 도서관을 新築코져 建築許可를 申請 하였든바 光州市는 지금까지 市 조례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아래와 같이 보완 요구하여 法 解釋에 도저히 남득이 가지 않아 길의 하나이다.

〈참조〉 수신 광주시 사동 101 고성 : 제목 建築許可 申請書 보완요구(광주 건설 444. 1-민 1651 66. 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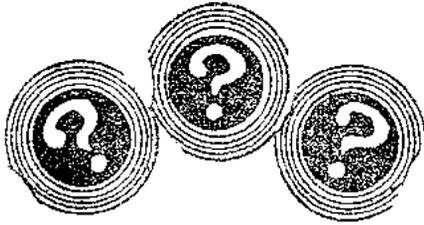
귀하로부터 제출된 建築許可 申請書를 심사한바 출원지점이 教育地區로 고시된 地域이므로 建築法 第33條 同 施行令 第114條 第5項 및 道市 計劃法 第13條에 저촉되는 것이니 조건대학교의 同意書를 6. 21까지 보완 제출토록 통지한바 있으나 상급까지 제출치 아니하여 사무처리에 지장이 있으니 6. 27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5〉 建築許可에 對한 質疑 回信(건국시 44 4. 1. 66. 7. 7)

貴下가 66. 6. 25자로 質疑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回示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1. 貴下가 建築코져 하는 建築物은 建築法 第33條 및 同 施行令 第114 第5項의 規定에는 저촉되지 아니하며 그이의 建築物의 建築 制限에 대하여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조례로서 정하여 統制하게 되어 있으며 教育地區를 設定하

質 疑 應 答



어 本地區內에서의 建築統制를 받은 敎育에 유해한 施設을 防止함이 目的인바 이의 有害 有無의 판단은 當該 市長이 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都市計劃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墾掘 변경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는 市長, 郡守의 許可 사항 임을 회신합니다.

〈문 6〉 建築法 및 都市計劃法 質疑(光州市 光山洞 60.66.6.14 박영희)

1. 光州市에서는 시 邊방에 都市計劃이 고사되고 있지 않은 곳인데 建築許可가 不許되는 일이 있어서 귀하에게 질의 합니다.
2. 미고시 지구의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대지에 建築할수 있는지의 여부.
3. 法에 依하지 않고 內規도 없는데 許可 主務官廳의 裁량으로 不許할수 있는지의 여부.

〈답 6〉 建築法 및 都市計劃法 質疑(건국시 44.1.66.6.29)

귀하가 66.6.14일자로 質疑한데 對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區域內에 위치하고 있으나 세부시설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곳에서의 建築物의 建築은 建築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대지로 本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線 指定에 따라 할수 있는 것임.

〈문 7〉 建築物 制限에 대한 質疑(강원 444.1-7430, 66.6.1)

建築法 第41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物의 최고 또는 최저의 구역을 지정 하고자 하나 都市計劃法 第46條에 의한 人口 20만 이하 도시에 是는 地方都計劃委員會가 없는바 區域 設定時 어떠한 절차에 의할것인지 回示하여 주시기 바람.

〈답 7〉 建築物 制限에 대한 質疑(건국시 444.1 109.66.7.6)

1. 建築法 第41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 限度 지정에 있어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없는 人口 20만 이하의 도시에 是는 지방장관이 定하여 當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그러나 최고 또는 최저限度의 區域을 指定 하기 前에 都市計劃法施行令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고도지구에 대한 都市計劃의 決定의 선행되어야 할것임.

〈문 8〉 外資導入 促進의에 관한 質疑(강원 건사 협제 96.66.10.22)

1. 외자도입촉진법 第26條 (公共施設利用等에 關한 無差別 原則)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質疑 하오니 回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자도입촉진법에 依하여 공장 건축물을 신축코저 할때 建築法 第5條規定의 許可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서 공장을 新축할수 있는지의 여부.

나. 외자도입촉진법에 依하여 공장을 新축코저 할때 建築法을 적용치 않고 許可 할수 있는 지 여부.

다. 建築法 施行令 第7條에 規定되어 있는 公用 建築物의 범위와 한계의 구체적인 계시를 요 당 합니다.

라. 외자도입 촉진법에 依한 建築設計에 있어 是는 建築士法 第4條 規定의 制限을 받지 아니 하는지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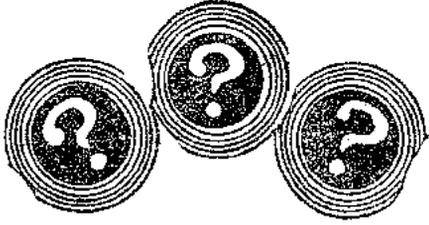
〈답 8〉 外자도입 촉진법에 關한 질의 回信(건 국시 444.1-761.66.11.8)

대한 건축사 협회 강원도 지부장으로 부터 위 와 같은 질의가 있어 回示하오니 추후로는 지부 에서 協會 本部를 經由하지 아니하고 직접 質疑 하는 事例가 없도록 各 道支部에 주지 시켜기 바 랍니다.

가, 나, 합답

外資導入 促進法에 依한 工場建築物을 新築코저 할때는 本法 第26條에 規定한 無差別 原則에 依

質 疑 應 答



하여 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함.

다. 할

建築法 施行令 第7條에 規定되어 있는 公用 建築物이란 國家 또는 地方 自治團體가 建築하는 建築物만을 말함.

라 할

外資導入促進法에 의한 建築物의 設計用役에 있어서도 建築士法 第4條, 第5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建築物일 경우에는 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의 免許를 받은者가 아니면 設計를 할 수 없는 것임.

〈問 9〉 建築法 適用에 對한 質疑(서도건 444. 1-37137 66. 12. 5)

1. 建築許可 取扱上 다음 事項에 對하여 質疑 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建築法 第39條 建築面積의 壘地面積에 對한 比率을 適用함에 있어 기존 建築物의 대수선 행위에는 適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되는바 이에 대한 見解 여하.

나. 既存 建築物 修繕 行爲에 있어서는 同法의 適用을 받지 않을 경우 同 建築物 上部層(2層 또는 3層)의 增築이나 改築行爲에 있어서도 역시 既存 建築物이 存續하는 時限까지 同法의 適用을 벗어나 許可 할수 있는 것으로 思料 되는바 이에 對한 見解 여하.

다. 同法이 既存 建築物 修繕에는 適用되지 않고 上部層의 增築이나, 改築 面積에 있어서만 적용된다면 기존 1層 建築物이 기러 同法 規定에 違背 됨으로서 同法 취지에 違背되고 있는한 上部層의 增築이나 改築을 制限한다 하여도 하등의 效果가 없는 것으로 思料 되는바 이에 對한 完化책에 대한 高見 如何.

〈答 9〉 建築法 適用에 對한 質疑回信(건국시 444. 1-5 67. 1. 5)

1. 서도건 444. 1-37137(66. 12. 5)로 質疑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回示하니 양지하시 압.

가. 本法施行 當時 증진의 法令에 依하여 許可된 建築物이 本法施行으로 建築法 第39條의 規定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수선의 許可가 原則적으로 不可하나 다만 修繕은 既存建築物의 現狀維持에 不過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積의 處理바람.

나. 建築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面積의 壘地面積에 對한 比率을 違反하여 增築許可는 할수 없는 것임.

古今建築設計事務所

一級建築士 朴 永 晚

서울特別市 城東區 新堂洞 333의 303 (53)번

本會記事

理事會

第24回 理事會 1967. 5. 25 15.00 協會 事務室에서 理事 全員 參席裡에 開催

報告事項

1) 建築技術講習會의 結果報告가 있었음.

決議事項

1) 事務所 規制案 保留.

2) 業務의 不敷實 및 兪將貸與者 臨時措置方案은 前番 理事會에서 議決한대로 곧 實踐하도록 各支部에 示達하도록 할것.

3) 設計用役에 對한 會員 추천 지양; 企劃委員會에서 會員추천을 抑하는 方向으로 決議된데 對하여 추천 抑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必要 不可避할 時에만 理事 全員이 參席하여 單장일치로 추천하도록 加결 된 것 에 對하여 추천하자는 提案을 單장일치로 加결.

4) 倫理委員會委員을 서울 6名 釜山 1名으로 改竊키로 決議된데 對하여는 會員으로만 構成할 경우는 公正한 判결을 얻기 어려울 뿐더러 他團體의 例에도 없는 일이나 企劃委員會와 總務理事와 姜奉辰理事가 會同하여서 選出改竊하도록 一任하기로 加결함.

5) 稅率對策에 關한 件

稅務當局에 早速한 期日內에 稅率引下 建議書를 提出하도록 하고 對策委員中 張起仁 會長을 姜奉辰理事로 對策委員을 교체키로 可決.

第25回 理事會 1967. 6. 2. 14.30 協會 事務室에서 多數理事 參席裡에 開催

決議事項

1) 事務長會議을 6월 11일에 開催키로 함.

2) 日本人建築學會一行 來韓에 關한 件에 있어서 日本建築學會 一行이 訪問時 예불교환에 있어서 韓國의 物品(土産物)을 贈呈키로함.

第26回 理事會 1967. 6. 7. 18.30 協會 事務室에서 理事 多數 參席裡에 開催

決議事項

1) 倫理委員會를 다음과 같이 改選함. 金東珪, 金鳳善 裴基滢, 李明煥, 李喜泰, 康廣參, 林日善 等 7名

2) 工事監理 및 建築士 地位向上 및 法 改正을 爲하여 第2回 企劃委員會에서 討議하여 決議된 案을 李鍾泰理事로부터 보고 받고 草案作成委員으로 金源安, 李明

族, 李奉魯氏 等 3名에게 委屬하여 草案을 作成토록 함.

第27回 理事會 1967. 6. 12. 15:00 協會 事務室에서 多數 理事 參席裡에 開催

報告事項: 會誌 6月號 出版 에 關한 件으로 6月末까지 出版 예정임을 報告.

決議事項

1) 釜山市 所在 建物の 時價鑑定依頼는 釜山市支部에서 鑑定하도록 移讓하고 釜山市長에 移讓事實을 通知할 것.

2) 今年度會期內에 各支部 監查를 實施토록하고 理事 1名과 職員 1名이 1組가 되어 監事하도록 計劃을 作成할 것.

3) 建築士業務報副基準의 改正案을 修正하여 建設部에 改正案을 提出토록함.

第28回 理事會 1967. 6. 21. 11. 30 協會 事務室에서 多數 理事參席裡에 開催

決議事項:

大邱地方檢察廳으로부터 大邱市 所在 靑丘大學 本館 倒壞事件 原因鑑定 依頼의 件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決議 됨.

① 鑑定員 代表는 張起仁 會長으로 하고 鑑定員으로 安仁模, 裴基滢으로 決定.

② 調査檢討委員 成性權, 尹張燮 2名 委屬함.

第29回 理事會 1967. 6. 27. 18:00 協會 事務室에서 理事 全員 參席裡에 開催.

討議事項

1) 慶北支部長이 稟請한 金淳赫, 趙子府에 對한 懲戒措置解除의 件은 充分한 調査後 再論키로 함.

決議事項

2) 江原道支部長으로부터 休業中인 黃基禎會員의 會費未納으로 定款 第11條에 依하여 處理할 것을 稟請한 것에 對하여 休業中이라도 會員資格이 상실된 것이 아니므로 會費를 納付치 않은은 定款 第11條에 依하여 處理되어야 하므로 會員資格停止(6個月)를 決議

2) 慶南支部 曹台和會員은 1966年 3월에 加入 後 건히 會費를 納付치 않으므로 定款 第11條 規定을 適用 除名을 決議함.

3) 靑丘大學本館 倒壞事件에 關聯된 監理總會員은 無 兪許者인 金仁鎬가 作成한 設計圖籍을 自己가 作成한 것 처럼하여 許可書類를 作成함으로써 慶北知事로부터 登錄取消가 되었으므로 除名키로 함.

4) 會誌의 印刷는 編輯完了 後 理事會에 報告承認을 받도록 함.

5) 會員名簿 8月中에 發行토록함.

6) 6月分 收支決算 및 7月分 豫算書를 채택함.

7) 稅率對策에 關해서 建議書를 關係處에 提出하도록 하되 建議書의 草案作成을 朴永晚理事, 車景淳理事 姜奉辰理事에게 一任함

8) 建築士業務報酬基準 改正案을 討議하고 再議토록 함.

第30回 理事會 1967. 7. 16. 15:00 協會 事務室에서 理事 多數 參席裡에 開催

決議事項

1) 靑丘大學 倒壞原因 鑑定에 對하여 大邱地方檢察廳의 回信내용을 보고 받고 早速히 鑑定을 完了토록함

2) 第29回 理事會에서 넘어온 建築士業務 報酬基準 改正案을 심의, 設計料率表中 各種別의 高額工事費의 料率이 너무저게 되어 있으므로 修正토록함.

第31回 理事會 1967. 7. 20 17:00 協會 事務室에서 理事 全員 參席裡에 開催

報告事項

1) 展示會 出品資材 施賞準備에 關해서 大統領賞, 國務總理賞, 建設部長官賞 만이 賞狀 이 안나오고 其他部處의 賞狀은 全部 받아 놓았다는 李尙薰 事務處長의 報告가 있었음.

2) 支部業務實態調査에 關하여 忠南北 兩支部는 事務 整理가 大體로 良好하며 提川에서는 會員을 접촉하지 못하였다는 朴永晚理事의 報告가 있었으며 全南北 支部와 京畿道, 江原道 支部에 對한 報告가 있었음.

決議事項

1) 會員名簿을 8月中旬에 60,000원 한도 내에서 出版하도록 決議

2) 金淳赫의 懲戒件에 關해서 本人으로부터 懲戒解除에 關한 請願書가 提出된 있는데 請願事實의 眞否를 調査 처리키로함

3) 1968年度 豫算에 關하여 擔當理事 別로 具體的인 豫算案을 作成하여 企劃委員會에서 一次 討議토록 결의.

4) 서울市支部 業務實態調査를 理事 3名, 事務處長과 總務部長이 擔當하여 實施토록 함.

企劃委員會

第2回 企劃委員會가 1967年 6月 2日(金) 16:00時에 協會 事務室에서 委員長 李鍾泰理事 委員 金東珪, 曺基滌, 李明煥, 宋寬植, 柳光澤, 李圭福, 李春相, 崔昌奎, 申茲壽, 李宰魯氏 등이 出席하고 張起仁會長 姜奉辰, 安仁模 兩理事가 參席하고 案件으로 建築士의 法的地位 問題와 工事監理의 二件을 다루었다.

1) 建築士의 法的地位에 關한件

委員長 李鍾泰理事: 建築士와 建設技術者間에 關한 것으로서 建設業法에 依하면 他法令에 의거 合格된 者

는 建設技術者의 試驗에 一部 또는 全部를 免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一級建築士는 建設技術者의 甲類免許를 自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터인데 建設部의 技術用役 1位代價表의 1級建築士의 日當單價를 乙類建築技術者와 同一하게 策定됨으로서 이러한 모순점은 正하도록 하는 方法을 討議하여 주십시오.

姜奉辰理事: 이문제는 理事會에서도 數次論議된 바 있습니다. 建設部에서 策定한 日當單價는 國土調査用役의 대개가 土木工事로서 土木技術者를 相對로 策定된 것같은데 最小限 甲類建設技術者와 同等하게 하기 위해서 對策을 모색해야겠음.

李圭福委員: 甲類建設技術者 免許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優秀한 建築物이 設計없이 나올수 없으며 技術向上은 될수 있다. 問題는 슴心하여 좋은 案을 만드려 밀고 나가야 함이 좋겠음(여러 委員들의 方案 提示가 있었음)

決議: 建議書를 제출하되 建築士는 建築分野에 있어서 最高技術者이며 工事監理로서 甲類建設技術者를 指示監督함으로써 甲類建設技術者 免許를 建設業法第1條 3項에 依據 받아야 한다는 內容으로 提出하자는 內容으로 推進委員會를 選定 모든 支援을 하도록 함.

2) 工事監理

建築士는 設計만으로 끝남으로서 質的低下와 建築士의 收入을 增加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建築士가 工事監理를 할수 있게하여 建物の 質的向上을 圖謀하고 建築士의 權益을 옹호하자는 것으로 建築士가 設計한 建물을 工事監理를 할수 있도록 하느냐 안하느냐의 問題點을 論議야 겠음니다.

金東珪委員: 自己가 設計한 것을 監理하는 것을 原則적으로 提案하며 建築主가 委囑을 안 하니가 서울市廳과 協議하여 建築士의 部署가 없는것은 竣工檢査를 못하도록하는 方法을 강구해야겠음.

李明煥委員: 建築을 專攻함은 設計를 하여 社會에 기여함이 되어야 함으로 誠實히 設計를 하고 監理하여 忠實히 設計대로 이행하면 社會的 責任을 다한 것이다, 委員長: 監理를 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李宰魯委員: 建物の 大小를 區分함이 없이 全體를 監理하고 그러므로서 設計事務所도 企業化 할수 있게하고 의국과의 技術交流와 自體技術 發展을 기할수 있음.

姜理事: 設計를 한 本人이 監理를 한대로 決定합니다. 그리고 對策委員會를 選任 委任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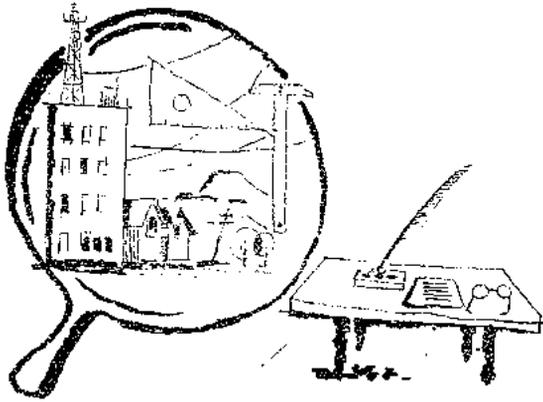
委員長: 그럼 姜理事의 提案를 理事會에 提出하기로 하겠습니다.

3) 其他

倫理委員會의 機能 強化토록 方案을 강구 함.

1967년도

支部實態調查報告



今般 本協會에서는 7月5일부터 8月25일까지 各支部의 業務實態調查를 實施했다.

이는 本協會가 1965年12月 9日 業務를 開始한 以來 처음 實施된 實態調查로서 各支部의 一元化되어 있지 않은 業務實態를 把握하여 支部 運營의 一元化와 各種 會費의 徵收不進으로 因한 支部 及 分所의 運營難解決과 會員實態를 파악하여 1968年度 豫算編成과 事業計劃수립을 뒷받침하고자 實施한 것으로 이번 支部業務實態調查는 그意義가 자못 컸다고 思料되는 바이다.

파상적이거나 대체적으로 나타난 各支部의 運營相을 要約하면,

1. 定款規定에 依한 月額 正會員 會費의 徵收不進으로 一部 支部에서는 支部의 運營費로 策定된 業務實績에 依한 會費徵收 金額에서 支部長

이 未納會員의 上記 月正會員 會費를 代納 하므로서 支部의 運營難을 招來하고 있으며 또한 業務實績會費 未收金額이 相當額에 達하여 支部運營 및 協會 事業計劃 遂行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2. 各種 名簿 臺帳 等 樣式이 一元化되어 있지 않다.

3. 一部分所에서는 定期的으로 報告하여야 할 圖書登錄事項 및 其他報告를 履行하지 않는 有名無實한 分所가 있는 實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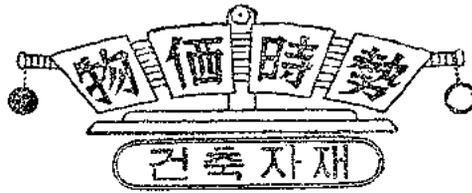
위와 같은 各支部의 實態는 早速히 是正할 事項으로 各支部의 運營方針을 修正하여 支部 事務體系를 確立하고 合理的인 運營을 促하므로서 協會가 正常的인 事業 計劃을 推進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結果를 볼때 各支部의 業務實態調查는 每年 1回 以上 實施되어야 支部業務가 發展 向上 될수 있으며 모순 點을 早期 發見 하므로써 合理的인 事業 計劃 및 豫算이 樹立 될수 있으며 協會가 發展할수 있으리라 믿는다.

특히 各樣 各色인 支部 行政의 一元化를 爲해서는 定期的으로써 事務長 會議를 가짐으로써 早速히 是正될 것이며 또한 本部의 意圖와 支部의 애로 事項 등이 正確히 傳達되어 地域的 距離가 단축 名實 共히 혼연일체가 되어 協會의 目的 達成에 全力을 期하므로써 會員을 爲한 完全 無缺한 協會로 발전되리라 確信하는 바이다.

哀 悼 서울 特別市 支部會員 陳哲勳 同志 逝去

這般 1967年 9月 13日 本協會 서울特別市 支部會員 陳哲勳氏는 不意의 急逝를 하셔서 여기 大韓建築士協會 全會員은 敬虔히 故人의 冥福을 비오며 弔意를 表합니다.



서울 建築資材時勢調査表 (單位=원) <木 材 類>

△ 上 昇 ▼ 下 落
1968年8月15日

品 名	品 位	規 格	單 位	鄉 價	備 考
原 木	陸 松	末口 8寸以上6~12尺	才	▼ 43	
〃	〃	5寸 〃 6~12	〃	▼ 39	
〃	落 葉 松	4寸 〃 9~12	〃	▼ 39	
〃	질 련 三 松	4寸 〃 13~39	〃	—	
〃	羅 美 王 松		〃	34	
〃	美 松		〃	43	
저 보 드 材(통나무)		末口 3寸 6尺	本	▼ 170	
〃		〃 3寸 9尺	〃	330	
〃		〃 3寸12尺	〃	430	
비 계 木 製 材 木	國 產	24尺	〃	800	
〃	陸 松 板 材(正味)	3分~5分	才	70	
〃	陸 松 角 材(〃)	12尺	〃	70	
〃	美 松 角 材(〃)	6尺~12尺	〃	70	
〃	〃 板 材(〃)	3分~4分	〃	75	
〃	뉴질랜드 三 松 角 材(〃)	13尺以上	〃	70	
〃	〃 板 材(〃)	3分~5分	〃	70	
〃	나 왕 板 材(東洋)	3分~4分	〃	△ 100	
〃	〃 (〃)	5~7	〃	△ 95	
〃	〃 (〃)	挽角	〃	△ 85	
〃	小 割 材	12尺以上	〃	80	
전 조 나 왕 베 니 야 합 板	小 割 材	定尺, 不定尺	〃	△ 100	
〃	91cm×182cm	3 m/m(1分)	枚	190	
〃	〃	6 〃 (2分)	〃	350	
〃	〃	9 〃 (3〃)	〃	550	
〃	〃	12 〃 (4〃)	〃	690	
〃	〃	15 〃 (5〃)	〃	880	
〃	121cm×242cm	6 〃 (2〃)	〃	570	
〃	〃	9 〃 (3〃)	〃	950	
〃	〃	12 〃 (4〃)	〃	1,160	
〃	〃	15 〃 (5〃)	〃	1,510	
〃	〃	18 〃 (6〃)	〃	1,730	
프 린 트 합 板	國 產 多 色(盛昌)	1.5分2尺×8尺	〃	550	
〃	〃	1.5〃3×8	〃	840	
베 오 베 라 민 화 장 관	〃	4尺×8尺	〃	2,500	
하 드 보 드	國 產(三榮)	1分4尺×9尺	〃	△ 700	
〃	〃	2〃4尺×9尺	〃	△ 1,240	
칩 보 드	國 產(大成)	2分4尺×8尺	枚	450	
〃	〃	3分4尺×8尺	〃	690	
페 스 보 드	國 產(三榮)	3分4尺×9尺	〃	△ 960	
엠 보 스	仁 川 產	3分×6尺	本	9	

〈美 工 材 料 類〉

品 名	品 位	規 格	單 位	部 賣	備 考
시멘트 白色시멘트	驛渡(税金, 上車費包含) 國 產(유니온)	42kg 42〃	袋	233, 12(協定價)	260원(賣去來價)
레미콘(계비표)	〃	〃	〃	900	〃
〃	〃	〃	〃	△ 3,740	6K以內工事現
〃	〃	〃	〃	△ 3,590	場渡 〃
〃	〃	〃	〃	△ 3,060	〃
石 灰 土	論 山(特品驛渡)	18kg	袋	100	〃
마쿠베사	坡 州 產	50〃	噸	90	〃
人造石	坡 州 產(上品驛渡)	18kg	袋	100	〃
〃	〃 產(綠色)	約13kg	〃	70	〃
〃	〃 產(桃色)	〃	〃	80	〃
〃	〃 產(黑色)	〃	〃	55	〃
〃	〃 產(白色)	〃	〃	△ 52	〃
赤 煉 瓦	燒 場 (工場渡)	6×10×21Cm	個	5	〃
〃	並 上 品(〃)	〃	〃	4	〃
〃	變 色(〃)	〃	〃	5.50	〃
〃	待 燒 見 出(〃)	〃	〃	6.30	〃
化粧 土	燒 場 1 級(〃)	〃	〃	19	〃
〃	燒 場	3寸×2尺	個	65	〃
〃	〃	6〃×2尺	〃	135	〃
〃	〃	8〃×2尺	〃	200	〃
〃	〃	1尺×2尺	〃	450	〃
선라이트	國 產(小 波)	2, 2尺×6尺	枚	▼ 330	〃
〃	石 綿 大 波	2, 4尺×6尺	〃	1, 200	〃
세미보드	國 產	2分×4尺×9尺	〃	700	〃
外部用 타일	磁 器 青 班	60×60m/m(坪當720枚)	〃	▼ 1, 50	〃
〃	陶 器	60×225(坪當200枚)	〃	△ 1, 60	〃
內部用 타일	〃 (白色)	2寸5分角(480枚)	〃	▼ 1, 30	〃
모자이크 타이루	2 丁 亂 張	30×30cm(6分3寸角)	〃	▼ 1, 30	〃
〃	內 外 部 用	24×24(8分角 36枚)	〃	2, 30	〃
비닐 타이루	國 產(릭키)	3m/m×30×30cm	坪	2, 800	〃
아스타이루	國 產(大陸)	2, 5m/m×300m/m	〃	1, 800	〃
〃	〃 (〃)	3m/m×300m/m	〃	2, 200	〃
푸라스타일	國 產(기러기표)	2, 5m/m×300m/m	〃	1, 800	〃
〃	〃	3m/m×300m/m	〃	2, 200	〃
크랑카 타이루	〃	6寸角	〃	△ 2, 500	〃
竹 割 板	白 色	3寸6分	個	8	〃
클크 吸 音 板	白 色	6分×尺角	坪	1, 900	〃
〃	黑 色	〃	〃	1, 850	〃
대한질석	단열, 흡음, 미장제	立 方 尺	袋	100	〃
三安질석	等 級 品	〃	〃	140	〃
아코스텍스	國 產	3分×尺角	坪	△1, 250	〃
〃	〃	4分×尺角	〃	1, 450	〃
호마이카	國 產	3尺×6尺	枚	1, 900	〃
〃	〃	4×8	〃	3, 600	〃
板 유 리	國 產(100坪箱子)	2m/m×2尺×3尺	箱子	2, 700	〃

〃	〃	3×4×6	〃	8,100
〃	〃	5×4×8	〃	25,000
〃	〃	5×4×6	〃	16,300
모루유리	〃	2m/m×2尺×3尺	箱子	3,600
페아그레스	二重유리(大榮)	12m/m	平方尺	600
페아그레스	二重유리(大榮)	16m/m	平方尺	800
耐火粘土	國產	#32 50kg	袋	250
〃	〃	#34	〃	300
耐火煉瓦	並型	#32	個	24
〃	〃	#34	〃	28
인슈레이손	日製(코라스울)	25m/m×120cm	坪	1,000
〃	〃	13×120	〃	600
石綿	給水用(13級)	50kg	噸	300
色素(顏料)	시멘트着色劑		kg	300
베니산카벤	色物	30cm(尺角)	坪	130
海草	原草(上品)	60kg	袋	6,000
〃	〃(中品)	〃	〃	4,000
陸藻土	〃	15kg	〃	150
文化壁	色物(上品)	1坪	봉지	300

〈防 水 材〉

品名	品位	規 格	單位	部 價	備 考
高粘度防水液	鮮滿(特許品)	18 l	罐	1,500	四坪處理
防水用공동	〃(特製)	90cm×37m(10坪)	卷	4,000	
防水液	國產(急結液)	36~40度	드람	8,000	
〃	〃(A品)	30~35度	〃	6,500	
오리배防水液	美製輸人品	3.6 l	l	1,750	
아스팔트	國產(鋪裝用)	MC-3 200kg	드람	4,000	
〃	國產(〃)	AP-3 200kg	〃	2,800	
로리스	國產(三和)	15kg	袋	260	
부롱아스팔트	國產(防水用)	40kg	〃	650	
第一防水시멘트	國產	30kg	袋	950	
第一리신	〃	〃	〃	1,600	
第一샘	接 着 劑 包 含	〃	〃	3,500	
마노루	特許品(中一化學)	40%	5G/L	1,500	
구레오소드	國產(防腐劑)	60%	드람	7,000	
구모일형	國產(〃)	60%	〃	5,500	
코킹폼다운드	國產	18 l	罐	4,280	
다헬트	國產(一新)	6號	卷	▼ 38	(工場部價)
油	〃(一新)	8坪	〃	180	〃
아스팔트헬트	〃(一新)	12坪 20kg	〃	▼ 510	〃
〃	〃(一新)	〃 25	〃	▼ 610	〃
〃	〃(一新)	〃 30	〃	▼ 710	〃
루핑	〃(一新)	6坪 15kg	〃	▼ 350	〃
〃	〃(一新)	〃 20	〃	▼ 450	〃
〃	〃(一新)	〃 25	〃	▼ 580	〃
〃	〃(一新)	〃 30	〃	▼ 680	〃

〈石 材 類〉

品 名	品 位	規 格	單 位	郷 賣 價	備 考
間 犬 柱	石 山 渡 價		個	25	
齒 礎	〃		〃	45	
〃	〃	45cm(1尺5寸)	〃	200	
〃	〃	30cm(1尺)	〃	150	
建 温 長 雜 碎 碎 自	石 〃	9×30×45cm	〃	65	
〃	〃		枚	45	
〃	〃		切當	200	
〃	〃		m ³	350	
〃	一 般 用(石山渡)	3cm	〃	500	
〃	舖 裝 用	10m/m~#16	〃	1,100	
〃	漢 江 積 載 渡 價	18m/m (6分)	〃	800	
〃	〃	25m/m (8分)	〃	600	
川 大	砂 6k以內選撥發包含	G.M.(4.5m ³)	車當	1,500	
〃	灰 雲 龍	25m/m 두께	平方米	12,400	
〃	白 雲 石	시멘트川砂除外	施工費包含	10,000	
〃	文 義 石	〃	〃	6,700	
〃	瑞 雲 石	〃	〃	14,300	
〃	全 州 石 長 水 白 色	〃	〃	11,000	
〃	白 色(大田産)	〃	〃	7,000	
花 崗 石(水磨)	서 울 産	〃	〃	18,750	
〃	黃 登 産	〃	〃	20,600	
테 라 쇼(부릭)	平 物	25m/m	〃	3,500	
〃	甲 板	36m/m	〃	4,000	
〃	便 所 스 크 링	30m/m	〃	3,300	
〃	花 崗 石 테 라 쇼	30m/m	〃	4,080	

※ 大理石 두께 6m/m 마다 本單價表 價格의 5%를 加算하고 笠石等 特殊製品은 別途價格에 準함

〈시 멘 트 加 工 製 品〉

品 名	品 位	規 格	單 位	郷 賣 價	備 考
시 트 멘 蓋 豆	黑 色(中央)	288×388m/m	個	11	
〃	赤 色(〃)	〃	〃	12	
〃	黑 色(東昌)	280×270	〃	11	
시 멘 트 벽 돌	〃	5.8×9.8×20cm	〃	2.60	
亞 成 벽 돌	特 許 品 A 型	21×10×9cm	〃	3	
〃	〃 B〃	21×15×9	〃	4.50	
삼 안 질 석 부 립	B-8	40×20×20cm	〃	50	
시 멘 트 土 管	上 品	12×60cm	〃	40	
〃	〃	24×60	〃	100	
〃	〃	60×90	〃	450	
〃	〃	90×90	〃	1,000	
시 멘 트 부 립	B-4	10cm×20cm×40cm	〃	20	
〃	B-6	15×20×40	〃	26	
〃	SB-10	25×20×40	〃	50	

◇	SB-12	30×20×40	◇	58
◇	HB-4	10×20×20	◇	12
◇	HB-6	15×20×2	◇	16
◇	LB-8	20×20×20	◇	23
◇	LB-16	20×20×40	◇	50
◇	B-10	25×20×40	◇	41
◇	B-12	30×20×40	◇	44
◇	HB-10	25×20×20	◇	24
◇	HB-12	30×20×20	◇	28
큰 크리트 파 일	國 產 K.S 規格	6m(長) 250mm(徑)	◇	4,900
◇	◇	7 " "	◇	5,800
◇	◇	8 " 300mm	◇	8,900
◇	◇	9 " " "	◇	10,300
◇	◇	10 " " "	◇	12,000
◇	◇	11 " 350m/m	◇	16,300
◇	◇	12 " " "	◇	18,500
◇	◇	13 " 350 "	◇	21,300
大 골스베이트	自 然 色 K.S 規格	70cm×182cm	枚	330
◇	◇	70×212	◇	390
小 골스베이트	◇	72×182	◇	330
◇	◇	72×212	◇	390
平 스베이트	◇	6m/m 91cm×182cm	◇	370
다이아몬드스베이트	色 彩	40×40cm	◇	38
용마루스베이트	自 然 色	#3	個	100
石綿 파이프	◇	6×89×182m/m	◇	150
◇	◇	7×100×182	◇	160
◇	◇	8×114×182	◇	200

〈鐵 材 類〉

品 名	品 位	規 格	單 位	鄉 賣	備 考
鐵 板	輪 入 品	4.5m/m×4尺×8尺	屯	44,000	
◇	◇	6.9×16m/m(以上)	◇	44,000	
◇	國 產	3.2×4×8	枚	4,200	
◇	◇	1.6×4×8	◇	2,100	
鐵 筋	◇	9m/m	屯	34,000	
◇	◇	16~25m/m	◇	33,000	
◇	吳 三 線	6m/m	◇	42,000	
工 業 用 丸 鋼	◇	9m/m	◇	39,000	
鐵 條 鋼	正 味	30kg(250m)	卷	2,050	
鐵 線 亞	鉛 引	#8(4.0m/m)	kg	58	
◇	◇	◇10(3.2)	◇	60	
◇	◇	◇12(2.6)	◇	62	
◇	黑	◇8(4.0)	◇	54	
◇	◇	◇10(3.2)	◇	56	
◇	◇	◇12(2.6)	◇	58	
◇	◇	◇14(2.0)	◇	61	
亞 鉛 鋼 鐵 板	國 產 #25	0.5m/m×3×6	枚	550	
◇	◇ #28	0.4 " "	◇	450	

亞鉛銅鐵板	〃	〃31	0.3	〃	▼	300	
黑鐵板	〃	〃16	1.6×3×6	〃	〃	1,070	
	〃	〃18	1.2	〃	〃	850	
	〃	〃24	0.6	〃	〃	440	
	〃	〃26	0.5	〃	〃	400	
	〃	〃28	0.4	〃	〃	320	
鐵鉛板			1~3m/m	貫	▼	1,850	
알미늄			3尺×6尺	〃	〃	580	
스틸			0.8m/m 3×6尺	枚	△	1,200	
엥			1.0m/m 〃	〃	〃	4,200	
	國	產	25m/m×3.2m/m	屯	△	47,000	
			32×3.2	〃	△	45,000	
			40×3.2	〃	△	44,000	
			50×4.5	〃	△	43,000	
			65×6m/m	〃	△	39,000	
互斯管	國	產(白) KS.A規格	15mm	米		95	
		〃	20	〃		121	
		〃	25	〃		190	
		〃	32	〃		243	
		〃	40	〃		278	
		〃	50	〃		390	
	國	產(白) KS.A規格	65mm	〃		486	
		〃	80	〃		644	
	國	產(黑) KS.A規格	15	〃		68	
		〃	20	〃		86	
		〃	25	〃		136	
		〃	32	〃		176	
		〃	40	〃		202	
		〃	50	〃		283	
		〃	65	〃		356	
		〃	80	〃		473	
		〃	100	〃		629	
鐵管(韓國)	直	管(上水道用)	75~700m/m	톤		60,200	釜山工場渡
〃(서울)	掃	類(K.S)	75~500m/m	〃		151,000	(57,000)

〈工 器 具 類〉

品名	品位	規 格	單位	鄉 價	備 考
兩 鐮 刀	國 產 (A)	30cm(尺)	個	450	
와 이 야 메 슈	본 크 리 트 用 (黑)	4m/m×15cm×180cm	坪	360	
〃	〃	4×10×180	〃	500	
크 립 프 綱	3分目	1.2m/m3尺×50尺	卷	2,300	
〃	1吋	50kg	噸	△ 3,150	
〃	2〃	〃	〃	△ 2,860	
〃	3〃	〃	〃	△ 2,730	
〃	1 ¹ / ₂	〃	〃	△ 2,950	
〃	4.5.6	〃	〃	△ 2,300	
흙 바	上 品		個	80	

〈 塗 裝 類 〉

品 名	品 位	規 格	單 位	都 賣	備 考
아 가 옥	교 잉 스	國 產 (上品) 仁 川 產	3.75kg 20kg	貫 袋	1,300 200
아 카 시 코	스	國 產 (中品)		18 l	6,700
비 니 렉 스	特 殊 水 性 (鐵道用)			〃	1,980
〃	特 殊 水 性 A			〃	4,500
〃	〃 B			〃	3,500
〃	外 部 用			〃	5,800
T. R	솔 트	鐵 材 用 (特許品)		〃	14,500
調 合 페 인 트	白 色 特 A (三成 페 인 트)			〃	7,900
〃	〃 特			〃	7,000
〃	〃 A			〃	6,000
〃	704 白 色			〃	4,800
〃	紺 色 A			〃	5,900
〃	綠 色 A			〃	6,050
〃	赤 色 A			〃	5,600
〃	黑 色 A			〃	7,050
〃	赤 色 A			〃	4,850
〃	紫 色			〃	5,850
防 錆 페 인 트	光 明 丹 A			〃	7,650
〃	704 光 明 丹			〃	5,850
〃	赤 錆 A			〃	5,300
보 알	油	A		〃	5,000
스 파 외 니 스	A			〃	4,700
溫 突 텍 기 스	A			〃	4,400
水 性 페 인 트	外 部 用 白 色 A			〃	6,350
〃	內 部 用			〃	3,850
無 光 페 인 트	白 色 A			〃	3,950
透 明 락 카				〃	6,400
락 카 신 나	A			〃	3,850
實 用 에 나 멜	外 部 用 白 色			〃	4,850
〃	〃 赤 色			〃	6,150
〃	〃 紺 色			〃	5,000
〃	〃 特 綠 色			〃	7,450
〃	〃 特 紺 色			〃	6,750
에 나 멜 신 나				〃	1,550
리 노 림	國 產	2m/m	坪		4,950
銀 粉 페 인 트	실 바 문	DR-400	18 l		12,880
揮 發 油	注 油 所 價 格	200 l	드람		4,090
輕 油	〃	〃	〃		2,690
모 필 油	國 產	#30	l		65
구 리 스	美 製	18 l (35파운드)	罐		△ 3,500

〈火藥材料代〉

品名	品位	規 格	單位	部 質	備 考
酸 素	工 業 用(工場渡)	6,000 l (150 氣壓)	瓶	570 (工場渡)	800(市中價)
아 세 지 링	〃	10 L/B	〃	900	瓶除外
제라징다이 나미트	서울 韓國火藥倉庫渡	22.5kg 200 本入	箱子	4,000	
카 바 이 트	大 塊 (A 級)		kg	45	

〈重 裝 備 賃 賃 料〉

重 機 名	規 格	市 中 價 格	賃 賃 料	
			日 當	月 賃
불 도 — 지	D-7	3,000,000	1,000 時間當	—
〃	D-8	2,300,000	1,200 〃	—
크 레 임(트 맥)	10噸	3,000,000	10,000	200,000
〃	20 〃	4,000,000	12,000	240,000
〃	30 〃	5,000,000	13,000	260,000
〃 (다이아)	10 〃	3,500,000	12,000	240,000
〃	20 〃	6,000,000	15,000	300,000
컴 푸 렛 서(카소링)	210CFM	500,000	4,000	80,000
〃 (더 겐)	〃	900,000	6,000	120,000
〃	315	1,300,000	7,500	150,000
〃	500	1,700,000	9,000	180,000
크 랫 서	50톤	3,000,000	13,000	260,000
〃 (세콘다리)	25 〃	2,000,000	10,000	200,000
〃 (푸라이마리)	25	1,800,000	7,000	140,000
그 레 이 다		1,000,000	6,000	120,000
롤 러(단 령)		600,000	3,000	60,000
〃 (마카담)	6톤	900,000	5,000	100,000
덤 부 추 력(新 型)	G. M. C	1,500,000	11,000	150,000
〃 (舊 型)	〃	1,100,000	9,000	120,000
〃 (INTER)	〃	1,800,000	13,000	180,000
〃 (日 製)	5噸	1,700,000	12,000	170,000
機 關 車(더 겐)	8 〃	1,300,000	5,000	100,000
〃 (캐소린)	5 〃	800,000	3,500	70,000
더 겐 령 머	〃	1,500,000	10,000	200,000
에 스 벨 트 튀 니 서	5噸	1,500,000	8,000	160,000
〃 디 스텔리 튀 유 다	750G/A	1,800,000	10,000	200,000
콘 크 리 트 믹 서	8才	150,000	2,000	40,000
〃	14 〃	430,000	3,500	7,000
〃	16 〃	500,000	4,000	80,000
自 動 車(貨 物)		1,000,000	7,000	140,000

※ (1) 本重裝備 賃賃料은 1日 8時間稼動을 基準한 것이며 油類는 使用者 負擔임.
 (2) 本重裝備 市中價格은 中古品으로 性能 이 優秀한 것을 基準한 것임.

〈衛生暖房材料類〉

品名	品位	規格	單位	都 價	備 考
鉛		99%	kg	120	
非水洗式大便器	國 產	C-1	個	1,000	
〃 小便器	〃	U-21	〃	1,000	
水洗式大便器	〃 (附屬除外)	C-8	〃	3,700	
〃 小便器	〃 (附屬付)	U-25	組	2,800	
二層用大便器	附 屬 除 外	C-5	個	2,000	
洗面器	附 屬 除 外(圓 型)	L-103	〃	900	
〃	〃 (小 型)	L-105	〃	2,300	
洗面器	附 屬 除 外(中 型)	L-106	〃	2,700	
〃	〃 (大 型)	L-110	〃	3,300	
〃	〃 (特大型)	L~112	〃	3,500	
S 트 탕	洗 面 用		〃	800	
P 〃 가	小 便 理(眞 鍍)		〃	800	
다 테 가 탕	洗 面 用	13m/m	〃	630	
가 시 스 탕	〃	〃	〃	500	
보 일 러	國 產(鑄 物)	4가름	〃	1,700	
〃	低 壓 用 組 立 包 舍	No. 1號 10張	組	381,000	
〃	〃	No. 2號 〃	〃	469,000	
〃	〃	No. 3號 〃	〃	700,000	
〃	〃	No. 4號 〃	〃	934,000	
〃	〃	No. 5號 〃	〃	1,262,000	
〃	〃	特 大 號 〃	〃	2,010,000	
放 熱 器	五 細 柱	500m/m	枚	690	
〃	〃	650 〃	〃	740	
우 오 早 放 熱 器	壁 掛 用	우오-早型	〃	1,860	
〃	〃	7 B 型	〃	1,980	
〃	〃	9 B 型	〃	2,700	
I M G			個	2,760	
콘 백 타		12×50×180m/m106枚	m	2,850	
〃		0.7 〃 〃	〃	2,240	
眞 空 暖 房 펌 프	複式(모-타) DT-40	1,700m ² (3馬力)	臺	318,600	
〃	〃 〃 DT-60	2,400 〃	〃	357,700	
콘 텐 세 이 손 펌 프	單式 〃 DS-10	500 (2馬力)	〃	97,800	
〃	複式 〃 DT-50	1,800 (2 〃)	〃	210,500	
新 型 콘 텐 세 이 손 펌 프	單式 〃 DS-30	〃	〃	121,900	
엘 보	可 鍛 薄 鐵 KS (黑)	25m/m (1吋)	〃	52	
유 니 온	〃	25m/m (1吋)	〃	156	
리	〃	25m/m (1吋)	〃	52	
붓 닷 심	〃	25m/m×15m/m	〃	32	
소 플 트	〃	25m/m (1吋)	〃	45	
스 켈 트	〃	25 〃	〃	40	
앵 발 브	鉋 金 製	25m/m	個	640	
안 발 브	〃 (放 熱 用)	〃	〃	810	
안 발 브	〃	〃	〃	1,120	
안 발 지	〃	50m/m	〃	140	

〈電氣工事材類〉

品名	品位	規格	單位	部賣	備考
裸硬銅線	撚線(1m=0.907.6kg)	2.6m/m×19	kg	751	
〃	〃 (0.710.3)	2.3×19	〃	752	
〃	〃 (0.537.0)	2.0×19	〃	757	
〃	〃 (0.435.1)	1.8×19	〃	762	
〃	〃 (0.334.4)	2.7×7	〃	767	
〃	〃 (0.261.7)	2.3×7	〃	772	
〃	〃 (0.195.9)	2.0×7	〃	777	
〃	撚線(0.126.7)	1.6×7	〃	782	
〃	單線	2.0m/m	〃	752	
〃	〃	2.6	〃	746	
〃	〃	3.2	〃	744	
〃	〃	4.0	〃	742	
〃	〃	5.0	〃	742	
第四種電線	撚線	2.6m/m×19	〃	880	
〃	〃	2.3×19	米	665	
〃	〃	2.0×19	〃	501	
〃	〃	1.8×19	〃	419	
〃	〃	2.6×7	〃	327	
〃	〃	2.3×7	〃	248	
〃	〃	2.0×7	〃	205	
〃	〃	1.6×7	〃	133	
〃	〃	1.2×7	〃	74	
〃	〃	1.0×7	〃	56	
〃	單線	2.6m/m	〃	54	
〃	〃	2.0	〃	30	
〃	〃	1.6	〃	23	
電線管	厚肉銅管	16m/m	〃	86	
〃	〃	22 〃	〃	122	
〃	〃	28	〃	175	
〃	〃	36	〃	208	
〃	〃	42	〃	264	
〃	〃	54	〃	314	
〃	〃	70	〃	495	
〃	〃	82	〃	594	
〃	〃	100	〃	825	
〃	薄肉銅管	15m/m	〃	50	
〃	〃	19 〃	〃	66	
〃	〃	25	〃	92	
〃	〃	31	〃	109	
〃	〃	39	〃	125	
〃	〃	51	〃	182	

(一日八時間基準)

建築勞賃時價表

△ 上昇 ▼ 下落
1967年6月16日現在

職 種	短 期	長 期	職 種	短 期	長 期
特殊人夫	350	300	수도工	500	400
普通人夫	300	250	什長	550	450
女子人夫	200	150	潜水夫(1組4人)	5,500	5,000
鐵管工	650	550	牛馬車(馬夫包含)	1,500	1,300
리벳팅工	700	600	造園工	800	700
鐵工	650	550	防水工	600	550
鋸物工	700	600	타일工	700	600
木型工	700	600	샷슈工	600	550
大匠工	600	500	부력工	600	550
캐스鎔接工	700	600	유리工	600	500
電氣鎔接工	800	700	스레트工	600	500
鐵筋工	550	500	美裝工	700	600
鐵板工	700	600	합석工	650	550
機械工	700	600	塗裝工	600	500
機械技術工	700	600	뚝자리工	500	450
火藥取扱工	700	600	製材工	600	500
重機運轉工	700	600	도배工	600	500
우물工	600	500	溫突工	600	500
비개工	600	550	研磨工	600	500
坑夫	600	500	測量助手	600	500
冷凍工	650	550	木手	700	600
보링工	650	550	기와工	600	500
外線電工	950	850	製罐工	650	550
內線電工	700	600	衛生工	650	550
信號保安工	500	400	發破工	700	600
保線工	600	500	벽돌工	650	550
通信外線工	900	800	着岩工	650	550
自動車運轉工	600	550	石工	650	550

註：短期=日傭 長期=一個月以上 繼續就役

讀者諸賢

時勢에 있어 萬一 錯誤를 發見時에는 本協會編輯部로 連絡하여 주시던 事 再調査하여 正確을 期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電話 ☎ 9802

(原) (稿) (募) (集)

編 輯 後 記

「建築界」가 여러분이 지도편달로 편을 더 하여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協會를 위하고 會誌를 愛護育成하는 마음에서 다음 요령에 의거 많은 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교묘를 지불합니다.

1. 各種建築에 關한 論文(200자 원고지 30~40매).
2. 建築手記, 建築關係 提言(200자 원고지 12매).
3. 作品畫報(會員設計로 준공된 작품 1점) 사진 4매, 설명서(간단요약하게), 도면(평면, 입면, 투시도, 배치도 각 1)은 켄트지 및 트레싱페이에 4.6배판 정도로 필히 먹물로 그릴것.
4. 建築資材 規格 및 技術에 대한 質疑
5. 建築法規 및 도서등록에 關한 質疑
6. 接授는 臨時로 協會 「건축계」 편집부에서 함.

☆海棠花 붉은 꽃잎이 불타다 남은 情熱로 철쭉을 明沙를 따라 푸른 波濤와 함께 지난날의 영화를 노래하고 있다.

그 누가 여름을 바캉스의 전유물이라고 했는 저 너무나 잔인한(?) 유혹의 유산이다.

☆보다 알찬 名實相符한 建築界로서 會員 여러분께 공헌코저 새로운 아이디어를 構想이나 猛夏之節의 후유증 닳인지 하늘과 神이 놀라고 땅도 같이 웃을 特許 감이 여러분의 助言을 기다리게 한다.

☆씨는 뿌려 저서 누구든 結實을 견우어야 한다. 黃金의 물결은 「建築界」를 讀書의 季節에서 놀한 가을의 맑은 하늘과 함께 여러분의 書架를 訪問할 것이다.

◁徐·潤▷

＝ 公 告 ＝

本協會 會誌 「建築界」를 愛讀하시고 指導 鞭撻을 하여 주신 江湖諸賢에게 感謝를 드립니다.

本協會 正會員外 本誌購讀을 願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구독자 찬조회원을 모집합니다.

1.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本協會 各市道支部에 구독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소정의 찬조회비를 本協會 出版部로 送金하시기 바랍니다.

2. 「建築界」구독 찬조회비는 매호당 실비 1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建 築 界

1967年 8月 20日 印刷 <隔月刊>
1967年 9月 20日 發行

登録番號 마 216 號

登録日字 1967. 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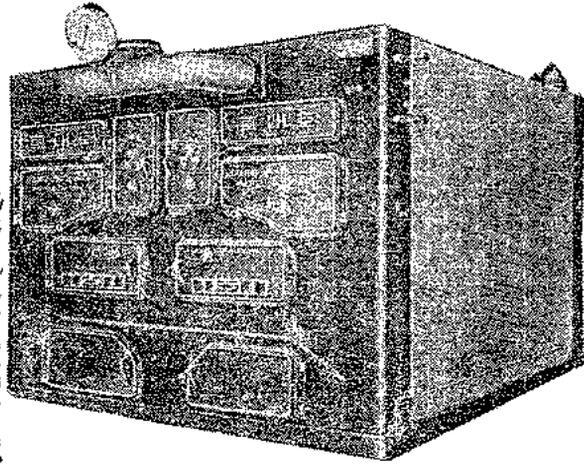
發行人 張 起 仁
編輯人 安 仁 模
印刷人 李 學 洙
印刷所 光明印刷公社
發行所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中區武橋洞33의1
(武橋빌딩3層) ☎ 9802

許持新案用 第 1552 号
 許持新案用 第 2784 号
 許持新案用 第 3506 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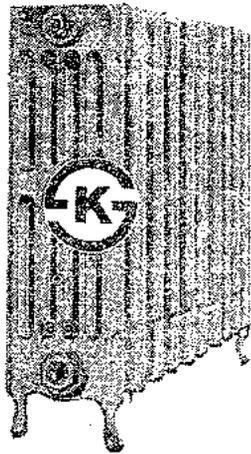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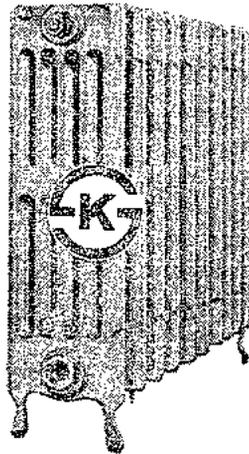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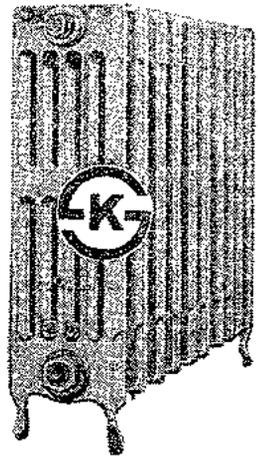
東震 鋳物製作所

製口如案内

- ※ 暖房用汽罐
- ※ 各種放熱器 및 真空ポンプ
- ※ 콘덴서 이송 펌프
- ※ 圓板式 蒸氣釜
- ※ 스틸 용 백라 - 鑄鉄 製 送風機
- ※ 유닛 히터
- ※ 電氣 호이스 크레인



國會議長 最優秀賞受賞
 副總理兼 經濟企副院長官 特賞受賞



東震鋳物製作所

本社・TEL (4) 0545・0968・1622
 工場・TEL (6) 3780・1772



青 蓋 瓦

(發明特許814号)

商工部長官 優秀賞 受賞

서울特別市長賞 受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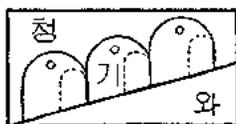
大韓建築士協會長 最優秀賞 受賞

弊社蓋瓦의 特徵은

1. 堅固하다.
2. 壽命이 永久의이다.
3. 色彩가 玲瓏(영롱)美麗하여 아름다운 調和를 이룬다.

弊社特製蓋瓦로建築한一部重要建物

- 1961年 10月 迎賓館
- 1963年 10月 梧柳洞 카톨릭 修道院
- 1964年 8月 青坡洞 카톨릭 修女院
- 1965年 8月 青 瓦 臺
- 1965年 9月 板門店 由由의 집
- 1966年 7月 陸士花朗查閱臺
- 1967年 2月 越南귀농市 八角亭
- 1967年 4月 李忠武公 顯忠祠



九川窯業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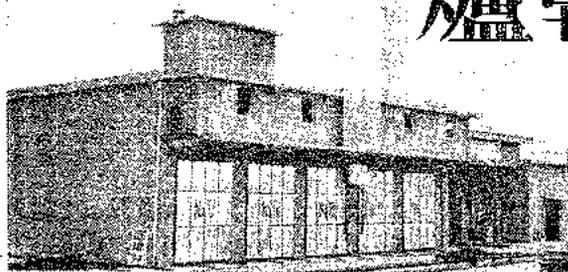
工場·서울特別市城東區岩寺洞515番地

電話(千戶洞) 417 番

代表 金 鎔 七

自動調節式乾燥爐

틈이안생기고 뒤틀리지 않는
爐乾燥 후로-링



建具 家具 內裝 建築
 用材 乾燥木材



東洋木材工業株式會社

本社 및 工場 · 仁川市萬石洞 2 番地 電話 (2) 1321 - 1322 5658
 서울事務所 · 서울特別市中區武橋洞 25 番地 原昌빌딩 601 611. 612 (2) 6373, 8003 7716

液 体
 아스팔트 콘
 시 리 콘



프라스릭
 其他 各種
 防水工事專門

現代防水工業社

代表 宣 明 勳

事務所 ·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1街53, TEL 28-2508
 工場 · 서울特別市城東區金湖洞3街502, TEL 52-4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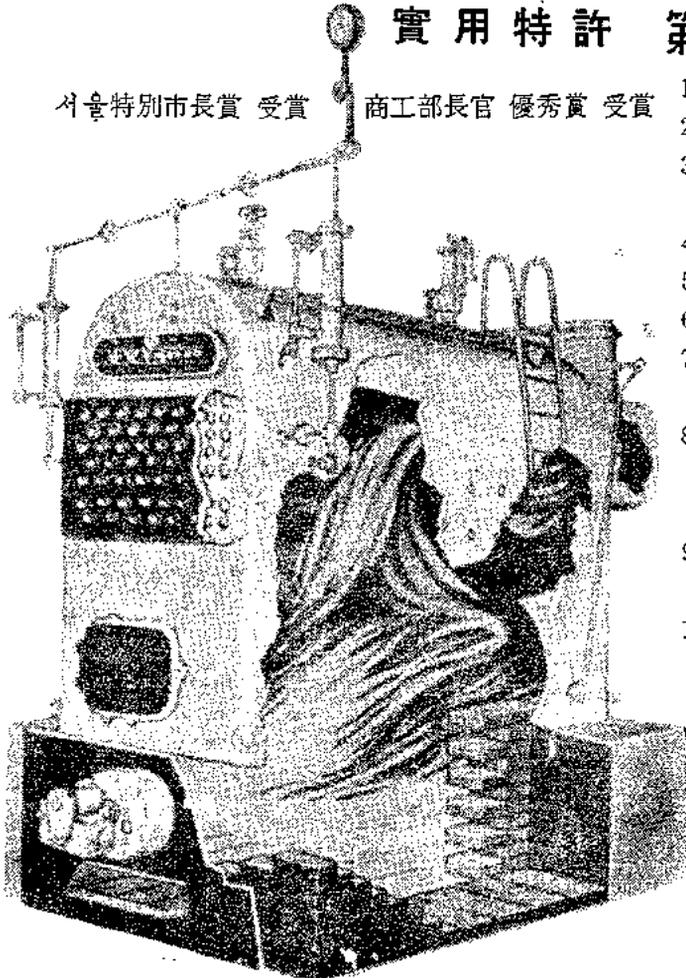
보일러의革新

DW型 東光水管式 보일러

實用特許 第2845号

서울特別市長賞 受賞

商工部長官 優秀賞 受賞



1. 방카 C油及 無煙炭兩用
2. 築爐가 必要없음.
3. 狹少, 天井高 얕은 室內에 適合
4. Package型, 移動及設置便利
5. 水管의 內外掃除가 簡單
6. 蒸發速度가 高性能
7. 煙管式 보일러와 같은 管의 洩水가 全無
8. 鑄物 보일러와 같이 使用途中 破裂이 無한 暖房보일러로 好評
9. 煙管式, 鑄物 보일러 보다 燃料가 二割以上節約
10. 價格이 廉價

政府廳舍, 펠링, 호텔, 病院, 食品工場, 化學工場, 製藥工場, 纖維工場, 機械工場, 沐浴湯, 洗濯所 等 其他
溫水보일러, 低壓, 高壓 任意로 使用할 수 있다.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會社

代表理事 朴 鍾 泰



本 社
工 場

서울特別市 龍山區 文培洞14의 1 (4) 1 6 7 3
서울特別市 龍山區 文培洞12番地

東光工營株式會社